

석사학위논문

무지개와 구름

- Of Rainbows and Clouds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양 시 호

2003년 12월

무지개와 구름

지도교수 김 원 보

양 시 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양시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Of Rainbows and Clouds

Author: Her Majesty Ashi Dorji Wangmo Wangchuck



차 례

머리말과 감사의 말

1. 세르상 라마
2. 두 화신의 합일
3.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의 죽음
4. 불타는 상초에코르 드종
5. 티베트 망명
6. 세카 다 유폐
7. 미니어처 예술의 대가
8. 폐동 고옴파의 라마
9. 순례자와 장돌뱅이
10. 탈로 드종의 영검
11. 보물 언덕에 흐르는 멜로디
12. 귀국
13. 노브강 10 년의 세월
14. 상경
15. 목재상
16. 행복의 궁전에서 의 국혼
17. 영조가 날아드는 곳
18. 황금빛 노을

참고문헌

머리말과 감사의 말

‘할머니 돌아가신 지 거의 반세기가 흘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15 년이 되었다. 우리 형제들은 그들로부터 그들과 우리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으레 불가에 둘러앉아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연기를 내며 타는 장작의 어른거리는 불빛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졸음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그러면 나는 할머니에게로 살며시 다가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누워, 눈을 감은 채 얘기를 계속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꿈결같이 다가오는 그 어린 시절에 나는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가족사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요즈음 일들에 관해서는 곧잘 잊어 버리는 습성이 있으면서도,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들은 마치 어젯일처럼 기억에 생생하다. 이제 나도 일흔을 넘긴 노인이 되었다. 선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과 내가 살아 온 인생을 손자들에게 들려 줄 때가 온 것 같다.’ 이것은 이 글의 해설자이자 나의 아버지인 압 우젠 도르지의 말이다.

이 책은 나의 아버지의 삶과 그 시대상을 그의 눈을 통해 바라본 것들을 기록한 글이다. 나는 단지 그가 부탄의 국어인 드중카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받아 썼을 뿐이다. 그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굵 왕축 삼촌의 기억을 빌려 적었다. 아버지의 일대기를 처음 써 봐야겠다고 생각한 때는 1995년 그가 고회를 맞던 해였다. 그는 심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격동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삶을 살아 온 분이다.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지만, 출세에 대한 강한 집념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노력을 무색케 한다. 그 해에 시작된 그의 회고록 집필은 1997년 중반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지난 삼 년간, 나는 항상 손에 수첩을 들고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떤 때는 거의 매일 푸나카 줌링탕으로 전화를 걸어 그와 오랜 시간 통화를 나누기도 했다. 끝없는 질문 공세에도 역정 한 번 내지 않고 친절하게 응해 준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아버지와 항상 가깝게 지내 왔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그와 선조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바깥세계에 알리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국가적 사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한 예로, 청년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것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뻔한 부탄국 역사의 한 장이었다.

산가이 오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서 성원해 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가족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친지제위께도 감사 드리고 싶다. 로버트 뎀프니어 씨에 대한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고 있는 최근 현장 사

진들을 제공해 주었고, 그로 인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편집과 디자인을 하면서 수고한 카르마 우라 씨와 안토니 아리스 씨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내가 여러 달을 서재에 틀어박힌 채 글 쓰기에 매달리는 동안, 자기 일들을 스스로 잘 해 준 딸 소남 테첸 공주와 아들 지겔 왕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 자립적인 사람들로 잘 커 가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다.

이 책을 나의 부모님 전에 바친다. 그 분들의 은혜는 억겁이 흘러도 결코 다 갚지 못할 것이다.

1998년 9월
모티탕에서
도르지 왕모 왕축



1. 세르상 라마

옛날 9 세기에 티베트의 랄파첸 왕은 이전의 본(Bon)교를 대신해 불교를 숭상했던 왕이었다. 그런데 그의 숭불 정책에 반기를 든 무리들이 왕을 폐위시키고, 일부 대신들과 왕의 동생 창마 왕자를 국외로 추방시켰다. 모반자들에게 매수당한 점성술사들이 왕자에게 이제 나라에 기근과 역병이 나돌아 아귀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로몬(부탄의 옛이름)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거짓 고언을 했다. 그리하여 창마 왕자는 파로를 거쳐 부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팀푸, 왕두에, 트롱사, 쟈강, 몬가르, 트라시강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트라시양체의 첸카르에 정착을 했다. 그리고 그 곳을 터전으로 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은 계곡 왕국들을 점차 세워나갔다. 손자 공카르같은 콜롱토에드의 왕이 되었고, 또 그의 자손들은 동부 지방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지방의 세습 촌장이나 토호들이 되었다. 그런 가문들은 현재 부탄 동부에서 코체 또는 포엔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창마 왕자의 한 자손인 세르기 포티 람은 지금 인도 동북부 지방에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쉬의 타왕에 세르상 대승원을 건립했다. 그는 왕자의 24 세손이었고, 그의 직계 비속들이 대대로 사원의 방장직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세르상 람이라고 불렀다. 황금 가치의 라마라는 뜻이었다. 그들이 창마 왕자의 자손으로 금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많은 학식도 갖추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초대 세르기 포티에 이어, 2 대에는 린첸, 3 대에는 로파이 시디, 4 대는 소에남 드롭엘, 그리고 5 대에는 겐첸 도르지가 세르상 람으로 불리었다. 겐첸 도르지는 지그메 남갈 섭정(1825-1881)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그를 위해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고 한다. 지그메 남갈은 1870년에 부탄의 49 대 데시(섭정)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우겐 왕축(1862-1926)이 1907년에 부탄국 초대 왕위에 올랐다.

겐첸 도르지와 동시대인으로 동부 지방에서 종교 사회적으로 추앙받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아자 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재가 신자의 수만 하더라도 수백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명망가들이었던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공대하면서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아자 람이 그의 권세를 이용해 좀 지나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가 독단적으로 겐첸 도르지를 트라시강의 드중폰(성주)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트라시양체 지방에 대한 통치권까지 주었던 사건이었다. 그 일은 푸나카에 있는 중앙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정부는 그 일을 그냥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아자 람의 그 같은 행동을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장푸 등과(수령)에게 그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결국 아자 람은 그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이에 성난 아자 람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장푸 등과를 또한 살해해 버렸다. 그런 일들로 인해 한동안 많은 혼란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겔첸 도르지는 전개되는 사태에 두려움을 느끼고 티베트로 피신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사태가 안정되고 평온을 되찾자, 겔첸 도르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이 예순을 넘겨 양첸 드로엘마와 재혼을 했다. 그녀는 위대한 테트론 중의 한 사람인 초에왕 구루의 자손이었다. 테트론이란 보물을 재발견하는 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물은 의식 대상이 되는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었다. 양첸 드로엘마의 조상은 아루나찰 프라데쉬의 돔카르멜롱 왕들이었는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마 왕자까지 이른다. 그녀의 아버지 온텐 폰초가 돔카르멜롱의 4대 왕이었던 타시 남겔의 증손이다. 겔첸 도르지와 양첸 드로엘마는 결혼을 하고 돔카르멜롱에 정착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첸 드로엘마는 임신을 했다. 겔첸 도르지는 임신한 아내에게 태어날 아기가 트롤쿠(라마의 화신)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는 1905년에 태어난 아들 지그메 도르지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예언은 옳았다. 지그메 도르지는 떠들떠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탈로 얘기를 자주 했다. 탈로는 부탄의 정신적 지배자인 사브드룽의 화신들이 대대로 환생하던 지방으로 유명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의 집이 그 곳에 있다고 했다. 돔카르멜롱에서 탈로까지는 죽히 열흘은 걸리는 먼 거리였다.

нга왕 남겔 사브드룽(1594-1651)의 다섯 번째 정신의 화신이 환생했다는 소문이 중앙 정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نگ가왕 남겔은 불교 이념으로 부탄을 건국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1651년에 입적한 후에 그의 현신들이 세 가지 형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떤 현신은 육체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것은 언어로, 그리고 또 어떤 화신은 정신의 형태로 나타났다. 바깥세계에 다르마 라자(정신적 지배자)로 알려진 사브드룽의 그 일련의 화신들이 대대로 텡 라자(세속의 지배자)와 함께 초기 부탄 사회를 다스렸다. 첫 번째 정신의 화신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은 نگ가왕 지그메 드라과였고, 육체의 화신은 시킴의 왕자로 태어난 이였다. 그는 자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부탄 땅을 단 한 차례도 밟아 보지 못했는데, 육체의 화신은 그에게서 멈춰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첫 번째 언어의 화신은 다가나 닌두카에서 출생한 남겔이라는 사람이었다.

< 언어의 화신 계보 >

초대, 남겔 초클레이(1708-1736) - 2대, 사차 텐진 초클레이(1736-1780) - 3대,

예세이 켈첸 초글레이(1781-1830) - 4 대, 지그메 도르지 초글레이(1831 -1850) - 5 대,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1851-1917) - 6 대,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1919-1949)

< 정신의 화신 계보 >

초대, 지그메 드락과 사브드룽(1724-1761) - 2 대, 체오키 켈첸 사브드룽(1762-1788) - 3 대, 지그메 드락과 사브드룽(1791-1830) - 4 대, 지그메 노르부 사브드룽(1831-1861) - 5 대, 지그메 초예갈 사브드룽(1862-1904) - 6 대,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1905-1931)

우젠 왕축 왕은 사브드룽이 환생했다는 소문을 확인해 보기 위해 왕실 관리들과 중앙교단의 스님들을 돛카르멜룽으로 보냈다. 중앙교단이라 함은 제 켄포(종정) 스님을 수좌로 해서 여러 스님들이 수행하는 승가를 말하는 것으로, 하안거에는 팀푸의 트라시 초 드중(사원)에서, 그리고 동안거 동안에는 푸나카의 푸나 데첸포드랑 드중에서 수행을 했다. 정부 대표단은 5 대 사브드룽 지그메 초예갈(1862-1904)이 썼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그것들을 똑같은 모양의 다른 물건들과 뒤섞어 놓고, 지그메 도르지에게 그의 물건들을 골라 보게 했다. 이에 그 어린아이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물건들을 자신 있게 집어들었고, 자기를 섬겼던 하인까지도 알아보았다.

그로써 지그메 도르지는 사브드룽의 화신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되었다. 몇 일 뒤, 지그메 도르지와 그의 가족들을 탈로로 인도할 사람들이 스무 필의 말을 이끌고 돛카르멜룽을 찾았다. 그는 탈로에 가서 6 대 사브드룽으로 공식적으로 추대될 예정이었다. 그때 그 여행에는 지그메 도르지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 도르지 옴, 이모 노르모, 외사촌 시투 베다 등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카르 드중 너머에 있는 라메 곶과 궁에 들러 국왕을 예방했다.

왕은 환생한 사브드룽을 몹시 만나 보고 싶어했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찾은 지그메 도르지 일가를 반가이 맞아들였고, 많은 하사품들까지 그들에게 내렸다. 그는 어린 사브드룽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왕의 무릎에 앉은 지그메 도르지는 그의 긴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가 무언가 갑자기 떠오른 듯 왕에게 질문을 했다. “미툼 소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언약은 왕이 전생의 사브드룽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와 사브드룽 외에는 그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 미안해요.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 터이니, 가는 길에 그 소를 몰고 가시게나.” 왕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어린 사브드룽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탈로에 도착한 후, 지그메 도르지는 탈로 드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한 교법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캄토이 맵 트룰쿠이 로폰이라는 호감 가지 않는 별명을 가진 선생이었는데, 그의 의미가 '귀인과 어울리지 않는 선생'이었다. 1912년, 지그메 도르지는 공식 의식을 통해 6 대 사브드룽으로 확인되어 푸나카 데첸포드랑에 들었다. 그때 그의 나이 일곱 살이었다.

지그메 도르지가 태어났을 당시, 사브드룽의 5 대 언어의 화신 예세이 느고드룹 초글레이가 쉰 넷의 나이로 파로 계곡 너머의 상초에코르 드중에 살고 있었다. 그의 고향은 불탕 탕강 유역에 있는 쿠토에라는 마을이었다. 그는 그 곳에서 1851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탄생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위대한 보물 계지자 페말링과의 후손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밭에서 밭을 베다가, 큰 구멍이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얀 비단을 몸에 두른 하얀 피부의 사람이 백마를 타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 밖으로 나오더니 홀연히 어디론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번에는 황마를 탄 황비단을 걸친 황인이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그런 일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뒤에 홍마를 타고 홍비단을 두른 홍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이어 곧 녹마를 탄 녹비단을 두른 녹인이 언뜻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는 청마를 탄 청비단을 걸친 청인이 나타나서 하늘로 치솟았다. 신비한 환영들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일 뒤, 외양간에 깔 솔잎을 모으러 들로 나갔던 그녀가 청솔 숲에서 이번에는 키가 크고 살결이 흰 남자를 보게 되었다. 수려한 용모의 그 남자는 하얀 셔츠에 파란 고(길고 품이 큰 남자용 겹옷)를 입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이 그녀의 수태를 예시하는 것들이었다. 그녀가 만삭이 되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는 한 줄기 빛이 하루 종일 천장으로부터 그녀가 누워 있는 침대를 향해 내리비쳤는데, 그 빛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밭에서 보았다는 다섯 사람의 환영이 링의 전설적인 왕 계사르의 다섯 현신이고, 솔숲에서 본 남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계사르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력을 갖고 태어난 예세이 느고드룹은 자라면서 환생한 초글레이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하여 파로의 상초에코르로 오게 되었다. 예세이 느고드룹 초글레이는 1904년부터 우리 나라에 세습 군주제가 확립되던 해인 1907년까지 데시를 지냈다. 우젠 왕축 왕자가 부탄을 통치하던 시기였다. 초글레이 스님은 1915년에 그의 두 번째 종정직에 올랐고, 그로부터 두 해 뒤에 입멸했다.

초글레이 스님에게는 산가이라는 형이 있었다. 그는 파로 펜롭(주지사)이었던 님 도르지 밑에서 일하다가 그의 딸 초엔조 잠과 결혼을 했다. 그들은 슬하

에 느고드롭 펴, 잠, 남가이라는 세 자식을 두었다. 특히 딸 딸 느고드롭 펴는 부모에게서뿐만 아니라 초글레이 삼촌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가 혼기에 이르자, 삼촌은 조카딸의 신랑감을 자신이 직접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쿠엔가 켈첸은 초글레이 제 켄포 스님의 시동이였다. 1874년에 하타추 고포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에 출가해 중앙교단에 들어왔다. 열두 살 무렵에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제사 의식과 학문 과정을 다 마쳤고, 무용에도 능해 축제 때는 탈춤 공연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열 두 살짜리 아이에게 맞는 무용복이 없어, 옷을 줄여 입고 나서야 했다. 초글레이 스님은 어른들 틈에 끼어 심벌과 트럼펫 소리에 맞춰 사뿐사뿐 몸을 돌리고 날아오르는 동자승의 춤사위를 보며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제자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전통 미술 공예에서의 열 세 가지 세밀 기법들을 전수했다. 그래서 쿠엔가 켈첸은 그림과 건축, 조각에 대한 기예도 두루 갖추게 되었다. 그의 세공술은 주위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정교한 연장이나 확대경 없이도 밀 알에 장식까지 하며 신상을 새겨 넣었다. 그는 스승이 여는 열 세 가지 교법세론 법회에서는 트리 초에폰(집사장)역을 맡기도 했다. 당시 부탄에서 교법 십삼론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초글레이 스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쿠엔가 켈첸은 그런 사승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스승을 섬기는 마음은 더욱 극진해졌다.

초글레이 스님은 쿠엔가 켈첸을 자연스럽게 그의 조카딸의 배필로 생각하게 되었다. 구도자의 서원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나은 신랑감은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1895년에 쿠엔가 켈첸과 느고드롭 펴는 백년 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해 뒤에 외아들 산가이 텐진이 태어났다. 그는 주요 트롤쿠로 추앙받았던 당칼라 트롤쿠의 현신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다섯 살 때에 불문에 귀의했다. 그는 커 가면서 근엄한 자태와 수려한 용모의 청년으로 변모했고, 파로와 하아 지방의 명문가 규수들로부터 많은 흠모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출가자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까닭에 산가이 텐진을 향한 여인들의 연모의 정은 더욱 간절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연모자들은 그가 밟고 가도록 그들의 술을 벗어 길바닥에 놓았다. 술에 찍힌 그의 발자국만을 보고도 그들은 만족해했다. 도처에서 빈랑이나 말린 쇠고기, 고추장 같은 선물들을 그에게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산란한 마음을 가진 중이 아니었고, 그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후사가 끊어질 일을 걱정하며 아들에게 장가를 들도록 간곡히 종용했고, 그런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끝내 저버릴 수가 없었던 산가이 텐진은 마음을 바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지금, 산가이 텐진의 자손 수가 백 명을 헤아린다. 그의 네 아들 중의 한 사람인 나만 하더라도 슬하에 아홉 자식과 스물 세 명의 손자를 두었다. 그리고 보면, 나도 그의 자손 번성에 많은 공헌을 한 셈이다. 나의 아버지 산가이 텐진과 어머니 아시 도르지 옴의 결혼은 사브드룽의 언어의 화신 가문과 정신의 화신 가문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혼사 얘기를 할까 한다.



2. 두 화신의 합일

나가왕 남갈 사브드룽이 계몽주의 통치 이념으로 부탄을 통일한 이후, 그의 정신의 화신들과 언어의 화신들은 전통적으로 탈로와 상초에코르에 각각 살았다. 5 대 언어의 화신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이 상초에코르 드종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 탈로에는 6 대 정신의 화신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시 도르지 움이라는 양순하고 품행이 바른 누나가 있었다. 나의 조부모님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아버지의 좋은 배필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푸나카 축제 때 푸나카 드종에서 보았던 도르지 움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터라, 그녀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두 집안 사이에 혼사가 오고 가게 되었고, 혼례식을 1916년 어느 길일에 립추에서 올리기로 약정되었다. 립추는 초글레이 스님이 겨울 안거에 머무는 지방이었었는데, 잔잔히 흐르는 푸나카 모추 강이 넓고 깊어지는 곳이며, 논밭들이 울창한 아열대 숲에 맞닿아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고장이기도 했다.

예전에 캅제사 집안과 고엔 집안이 립추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오랫동안 다툰 적이 있었다. 그 분쟁은 결국에는 문제의 전답을 초글레이 스님에게 시주하기로 양가가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스님은 그 시주한 땅에 삼층 건물을 짓고, 맨 위층에 아름다운 절을 꾸렸다. 할아버지가 그 집을 지을 때에 건축 감독 일을 했고, 초글레이 스님과 함께 신당에 안치할 상들도 만들었다. 바로 그 신당에서 부모님 혼례식이 열렸다.

어머니가 탈로에서 립추로 시집올 때가 열 여섯 살이었다. 혼례식이 열리던 날, 선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러리로 신부의 뒤를 따랐다. 신부 행렬에는 외할머니를 비롯해 외할머니의 여동생 노르모, 이모 짐베리, 그리고 어머니의 외사촌 시투 베다도 들어 있었다. 그들은 칩드렐(경축 행렬)의 환영을 받으며 식장으로 안내되었다. 예식이 열리는 삼층 신당은 행사의 비중을 나타내 듯 화려한 장식들로 잘 치장되어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은백색 텅갑(어깨 걸쇠)이 달린 반짝이는 비단 키라를 입었다. 그녀의 가녀린 목에는 Z자형 산호목걸이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가느다란 손목에는 두툼한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스무 살이었다. 비단 룡섬 고를 입은 그는 매우 의젓한 모습이었고, 법의를 입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초글레이 스님이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는 주례를 썼고, 혼례장을 맡은 국왕의 사촌 팀푼 쿠엔장 트린레이 팀푸 주지사도 참례해 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예식이 끝난 뒤에는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다. 즐겁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흥에 겨운 하객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모두에게 경사였지만, 특히 참한 며느리를 얻은 할아버지

와 할머니의 기쁨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으로 느가왕 남젤 사브드롱의 언어의 화신 가문과 정신의 화신 가문이 하나로 합쳐졌다.

초글레이 제 켄포 스님은 말년에 다리 수종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 그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심해 있는 조카딸에게 그녀의 손자로 환생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스님은 병마와 싸우다, 결국 부탄력 1917년 오월 스무 날 팀푸 드중 우체(본당)에서 6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양의 해에 나의 큰형 지그메 텐진이 태어났다. 형이 태어나기 전에 범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배는 날 밤, 황금색 도르지(뇌우)가 보이면서 무지개빛 후광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임신 일곱 달째에는 쿠엔가출링 뜰을 거닐다가, 아홉 잎이 달린 금잔화를 보았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화롯가 너머로 무지개가 서기도 했고, 늦그릇 속에 있는 물이 우유빛으로 변하는 일도 있었다.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조부모님은 초글레이 스님의 유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예감했다.

큰형이 태어날 당시, 우리 가족은 탈로 드중 아랫마을인 창카에 살고 있었다. 형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상초에코르에 가고 싶다는 말을 부쩍 자주 했다. 하인들은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척 재미있어 하면서도, 자꾸 때를 쓸 때면 어쩔 수 없이 그를 상초에코르로 데려가는 시늉을 해야 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길가 숲에 숨어 있다가, 형을 데리고 나선 하인들이 가까이 오면 무서운 짐승 소리를 내었다. 그러면, 그들은 겁을 먹은 채하며 집으로 얼른 도망쳤다. 그 무렵에는 그런 연극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 형이 세 살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지그메 초에겔 사브드롱의 어머니 움 신계 템을 추모해서 세운 웅장한 초르텐(석탑)이 탈로에 있었는데, 하루는 그 옆에 서 있던 형이 갑자기 슬픈 얼굴을 하고 미시나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게둠 체왕이 저기에서 죽었어.” 사실, 초글레이 스님을 시봉했던 게둠 체왕이라는 사람이 1870년대 미시나 전투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초글레이 스님이 환생했다는 소문이 봄탕 왕궁에 전해졌다. 왕은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려고, 초글레이 스님을 생전에 시봉하다 스님 입적 후에 궁에 들어와 일하고 있던 둑 초를 탈로로 내려보냈다. 당시 세 살바기였던 형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노마(老馬) 체림에 관해서도 물었다. 둑 초는 감격하여 말을 잊지 못하고, 아이의 발 아래에 넙죽 엎드렸다. 자신의 람이 환생한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 탈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왕에게 소상히 아뢰었다. 그렇게 해서, 지그메 텐진 형은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화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외삼촌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롱이 조카가 초글레이 스님의 화신임을 확인하

는 공식 취임식을 치르게 해 달라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이에 왕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그가 상초에코르에서 공부를 좀더 한 뒤에 취임식을 가져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 답장을 했다. 그래서 취임식이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뒤에야 거행되었다. 왕이 취임식을 서둘러 하지 않으려 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에 일어났던 재난 때문이었다. 지그메 노르부 사브드룽과 하압 펜롭이 초대 사브드룽 나가왕 남겔 스님의 쿠둥(미라)을 손질하려고 푸나카 드중 밖으로 옮긴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지고 나서, 한 차례 강력한 지진이 드중을 무겁게 뒤흔들었다. 신의 노여움 때문에 그런 불길한 조짐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황급히 미라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 일로 인해, 54 대 제 켄포였던 지그메 노르부 사브드룽 스님은 당대에 미라 복원하는 일을 단념해야 했다. 그 미라는 후에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과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 단장되었다. 유해를 백색 비단으로 감싼 후, 그것을 또 분홍색 비단으로 덧감아 은색 관에 안치했다. 그때, 부탄의 드룩과 카규의 개조인 드로와이 고엔포 창과 자레이 스님의 척골에 현시된 아발로키테슈바라(첼레지 신)의 모습, 랑중 카르사파니도 함께 손질되었다. 할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던 등뼈 한 쪽을 가는 금실로 보철했다. 드룩과 카규는 위대한 석학이자 번역가인 마르파(1012-1093)와 그의 제자 밀라레파가 티베트에서 개종한 불교 일파였다. 히말라야 지방에서 사대 불교 종파 중의 하나로 인정받았던 그 종교는 나가왕 남겔 스님에 의해 후에 우리 나라의 국교로 채택되었다.

나는 큰형을 람(라마) 형이라 불렀다. 람 형이 네 살이 되던 1923년에 그는 외삼촌 손에 이끌려 팀푸 타시초 드중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중앙교단에서 나온 네 명의 로폰(교사)과 왕실 파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구 뒤섞여 놓여진 물건들에서 '그의' 것들을 고르는 시험을 치렀다. 그는 자신의 전생에서 사용했던 염주와 도르지, 드릴부(중) 등을 하나하나 골라냈다. 그 곳에 모였던 회중들은 정확하게 자기 물건들을 집어 드는 그의 행동을 보고, 초글레이 스님이 환생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 취임식은 타시초 드중 본당에서 외삼촌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그는 그 날을 기념해 조카의 공덕을 기리는 송가를 지었다.

우리 형제는 본래 십남매였다. 1918년에 태어나 몇 달이 안 돼 죽은 라돈이 큰누나였고, 그로부터 24 년 후인 1942년에 태어난 남가이 옴이 막내여동생이다. 작은형 왕축은 1922년에 났고, 나는 1925년 황소 해 8월에 쿠엔가출링에서 태어났다. 쿠엔가출링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의 함자에서 유래되었는데, 할아버지가 서른 살 때인 1904년에 지은 삼층집이었다. 그 집은 돌뜰을 사이에 두고, 각 층에 신당이 있는 안채와 단층 살림집인 바깥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집 주변은 삼나무와 소나무 숲이었고, 한눈에 파로 계곡이 내려다보이기도 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같은 곳에 살아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쿠엔가출렁은 좋은 위치에 잘 지어진 저택이었다.

우리 집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파로 펜롭이었던 체링 펜조르였다. 지그메 왕축 왕의 조카였던 그는 왕을 등에 업고, 당시 서부 지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의 세도는 그가 사망하던 1949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체링 펜조르가 도발한 기나긴 소모전으로 인해 그가 죽는 날까지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복운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내 곧 궁색한 상황으로 추락하는 고단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야 했다.

한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남자 둘이 경쟁을 하다가,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예전에 나의 아버지와 체링 펜조르 사이에 있었다. 음흉하게도 나의 어머니에게 연정을 품었던 파로 펜롭은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쳐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아버지의 쉽게 굴하지 않는 성격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 일이 펜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화근이었음을 나중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시 파로 관아의 아전이었던 아버지가 상전에 대한 양보심이 없었다는 데서도 그는 더욱더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날마다 관청으로 출근했다. 어떤 때는 펜롭이 아직 기침 전이라,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했다. 야행성이었던 그가 늦게 잠들어 오후잠에야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관원들은 별수없이 그의 습관에 맞춰 생활해야 했다.

쿠엔가출렁을 탐내던 체링 펜조르는 마침내 그 속내를 드러내어, 우리 집을 사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은전 2천 냥이었다. 실제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였지만, 막강한 세도가의 제안을 물리치기는 사실 힘든 일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기 전에 가보처럼 여기는 탕화와 은제들을 다른 곳으로 미리 옮겨 놓았다. 펜롭이 집 값이라 하며 덜렁 내놓은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명목상의 증표에 지나지 않았다. 1927년, 쿠엔가출렁을 넘겨주고, 우리 가족은 상초에코르 드종으로 이사했다. 초클레이 스님이 머물던 그 절은 산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르렀다.

파로 펜롭이 집안 어른들을 쿠엔가출렁 인수식에 초청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감회에 젖어 있었다. 식이 끝난 뒤, 할아버지는 평생 숭배해 왔던 체링마 신(장수와 부의 여신)을 모신 신당에 들러, 우리 가족에게 그녀의 대자대비가 있기를 빌었다. 그리고 나서, 직접 공들여 지은 신당 안을 찻찻한 마음으로 빙 둘러보았다. 상초에코르 드종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무겁게 입을 뗐다. “우리가 한동안은 고생을 할 것 같구나. 지금은 저 집을 넘겨 주지만, 언젠가는 다시 우리 자손들 손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게다. 그 애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것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었다. 부탄은 전통적으로 권좌한 사브드룽들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상초에코르 드중에서 뛰놀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세 살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램 형과 왕축 형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졸졸 쫓아다녔다. 그들도 그런 나를 때버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홉 살이었던 큰형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대를 받았다. 그는 초클레이 스님이 거하던 방을 썼고, 대개는 법의를 입고 성좌에 앉아 있었다. 공양도 우리와는 별도로 받았다. 아침에는 가람당에서 칸주르(불경)을 독경하며 예불을 드렸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장난치며 쾌활하게 놀았지만, 의식을 행할 때만큼은 아이답지 않게 과묵하고 엄숙했다. 그런 것들 말고도, 그에게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의미 심장한 눈과 길고 가느다란 손, 맑은 피부, 그리고 공명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총명했고, 몸가짐도 더 단정했다.

우리 삼형제는 가람당에서 찾아낸 갑옷들을 입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전쟁놀이를 했다. 램 형이 대장이었고, 왕축 형과 나는 그의 병졸들이었다. 그럴 듯하게 투구도 쓰고 방패와 검도 들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 바닥에 자꾸 닿아 부딪쳤다. 대장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긴 칼을 제법 내뿜 두르며 앞으로 돌격했다. 한 번은 병정놀이를 하다가 늙은 하인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 형들은 쩍샤게 도망쳤지만 그들보다 빠르지 못했던 나는 그에게 붙잡혀 엉덩이를 찰싹 얻어맞은 일도 있었다. 어떤 날은 쿠루(창 던지기놀이의 일종)를 하며 놀기도 했다. 벽에 나무 과녁을 세워 놓고, 그것을 향해 긴 살을 던지는 놀이였다. 우리가 던지는 살 대부분이 과녁을 벗어나 애꿎은 벽만 때렸다. 그 때문에 수난을 당한 벽은 여기저기 구멍 안 난 데가 없었다.

네 살 무렵부터는 하루 종일 멧대로 노는 일이 더 이상 자유롭지가 못했다. 나는 형들과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할아버지의 수업을 받아야 했다. 왕축 형과 나는 조반 전까지 문장 네 줄, 점심까지 또 네 줄, 그리고 저녁 때까지 또 네 줄을 암기해야 했다. 우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암송을 했다. 내가 읽었던 경전은 '지텐 왕축'이었는데, 나가왕 남겔 사브드룽의 덕을 찬송하는 짧은 기도문들이었다. 아침 공양 시간까지 네 줄을 다 암기하지 못하는 날에는, 그 별로 보통은 아침을 거른 채 가족 채로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좀더 벌여 보려고, 왕축 형이 요리사에게 빈랑을 주며 공양 시간을 늦춰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점심 공양이 끝난 뒤에는 한 시간의 휴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놀 수는 없었고, 가루로 갈아 쓸 하얀 조약돌을 주웠다. 하얀 돌가루를 형겔에 싸서 글쓰기 연습에 사용하는 목판에 살살 칠하면 좋은 고정제가 되었다.

램 형은 그의 방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는 하루에 여섯 쪽을 암기해야 했다. 그 날 숙제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특별히 봐주는 법은 없었다. 형이 체벌을 받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 날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존귀한 이를 육보인 것을 속죄하려고 손자를 성좌에 앉혀 놓고, 그의

앞에 세 번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형이 대개 숙제를 잘 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다가도, 공부할 때만큼은 그렇게 엄한 훈장 선생님이로 변했다.

어머니는 유순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닌 분이였다. 할아버지가 가끔 회초리를 들고 나를 혼내려 하면, 나를 감싸주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매를 피해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으며, 그녀의 뒤쪽으로 와락 달려들었다. 내가 너무 세게 밀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점토상을 깔아뭉개고 말았다. 그 상이 할아버지가 여러 날 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겁이 덜컥 났다. 그런데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사실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매를 가장 많이 맞는 사람이 나였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가르치는 틈틈이 목각을 하거나 탕카(탱화)를 그렸다.

1928년에 내 바로 밑 동생 렌케이 겔첸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어머니가 꿈의 계시에 따라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독특한 이름이다. 어머니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상초에코르 드중에서 옆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부정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재계에 따라, 우리도 어머니와 아기동생을 보러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다. 한 번은 씻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와다가, 호되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

우리 가족은 여름은 상초에코르에서 보내고, 겨울 동안에는 푸나카 림추에 가 있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지척인 탈로에 살았다. 사람들은 외할머니를 아비 읍이라고 불렀다. 아비 읍이란 동부 지방에 쓰이는 창라말로,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보통 체격이었던 외할머니는 머리를 길게 땡고 있었는데,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다. 우리는 겨우내 림추에 있는 동안 외할머니 댁을 찾곤 했다. 매우 젊잖았던 외삼촌은 나를 그의 옆에 앉히고, 불을 톱툱 치기도 하고 곱슬곱슬한 내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외삼촌과 람 형은 나이 차이가 열 네 살이 났다. 그런데도 두 젊은 람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막역하게 지냈다. 그들은 서로를 쫓아 마당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비둘기와 하인들을 흘트려놓았다. 어떤 때는 속옷 바람으로 서로 부둥켜안고 땅바닥에 뒹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외할머니 댁에서 한 번은 내가 좀 짓궂은 장난을 했는데, 그 별로 광에 갇힌 일이 있었다. 외할머니는 나를 안으로 들이밀고, 밖에서 빗장을 질러 버렸다. 나는 갑자기 어두컴컴해진 안에서 잠시 더듬거렸다. 차츰 어둠에 적응되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어수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단지 하나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그 쪽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어 보았다. 홍설탕이 가득 들어 있었다.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 설탕을 실컷 집어먹고 나서, 고 주름 사

이에 몇 줌을 더 찢러 넣었다. 그렇게 설탕으로 배를 채우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느끼한 기분이 들면서 졸음이 비 오듯 쏟아졌다. 단지에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마구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깬다. 외할머니가 설탕으로 뒤범벅이 된 내 얼굴을 꾸짖을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보니, 우젠 도르지가 설탕을 훔쳐먹고 있었구나.” 화가 났을 때조차도, 외할머니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외할머니를 힘껏 밀치며, 열려 있는 문 밖으로 후닥닥 달려나갔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와 가족들은 탈로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머니가 특히 더 그러했다. 외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절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외삼촌을 해치려는 추잡한 음모가 스멀스멀 굼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롱의 죽음

탈로 드종에 방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다. 짐베리 이모의 남편 소남 체링이었다. 하얀 피부에 키가 작고 대머리였던 그는 붐탕 자카르가 그의 고향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고운 얼굴을 가졌던 이모가 그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딸을 낳다가 그만 아기와 함께 죽고 말았다. 소남 체링은 뜻하지 않았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사브드롱 궁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졌다고 느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유세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삼촌의 유일한 동기가 돼 버린 나의 어머니와 재혼할 속셈을 먹었다. 어머니가 그때 두 아이를 둔 주부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안중에는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일단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어머니를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 주려고, 외삼촌 앞에서 아버지를 몹시 헐뜯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계략은 그가 바랬던 대로 진행되지가 않았다.

어머니와 결혼해 보려는 시도가 여의치 않게 되자, 소남 체링은 어머니의 이모인 아시 노르모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남편 체텐라 역시 탈로 드종에서 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음흉한 술수가 성공을 거두었다. 체텐라는 갖은 수모를 당하며 사브드롱 궁에서 쫓겨나야 했다. 마치 속죄 의식의 루에(인형) 신세처럼,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고를 뒤집어쓴 채 가루 세례를 받았다. 결국에는 북소리에 맞춰 드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 돈 뒤, 탈로를 떠났다. 노르모는 그녀 집 층계참에 서서, 가련할 만치 치욕을 당하는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부상당한 짐승이 울부짖듯 애절하게 울고 있었다. 소남 체링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던지라, 외삼촌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탈로 드종에서 쫓겨난 체텐라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꼭 앙갚음하겠다고 다짐하며, 체링 펜조르 파로 펜톱을 찾아갔다.

체텐라를 쫓아내는데 성공한 소남 체링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필코 나의 아버지를 마저 처치해야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탈로 외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때였다. 무장을 한 네 남자가 아버지를 잡아 가려고 그 곳으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하인 드라가이 타시와 그때 함께 있었다. 드라가이 타시도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네 장정을 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흥분을 하며 아버지의 총을 뽑아 들었다. “문 밖에 네 놈이 와 있습니다. 이거로 저 놈들을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버지에게 피부르는 싸움을 만들지 말고, 그 곳을 빠져나가 어디에 가 숨어 있으라고 간곡히

타일렀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굳게 닫힌 문을 계속 세차게 두드리는 사이, 아버지와 드라가이 타시는 이층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림추로 도망을 쳤다.

어머니는 소남 체링의 눈에 띄면 좋을 일이 없겠다는 생각에 당분간 남가이 출렁에 가 있기로 결심했다. 남가이출렁은 사브드롱의 화신들이 참선하는 도량이었는데, 탈로에서 고갯길을 따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석 달 뒤, 어머니는 큰형은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아직 젖먹이었던 작은형만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보석들을 몸에 지니고 키라(여성용 겹옷)를 세 겹으로 껴입었다. 그리고 하녀 한 사람이 짐 보따리를 들고 어머니 뒤를 따랐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곧 소남 체링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그는 부하 두 사람에게 당장 쫓아가 어머니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추적 끝에 굽 창시를 지나서 어머니를 따라잡았다. 한길 너비만큼 가지를 벌리고 있는 큰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설득해 탈로로 데려 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제안을 한 마디로 잘라 버렸다. 화가 난 베투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채며 앞길을 막아섰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차게 그의 팔을 물며 손을 뿌리쳐 버렸다, 그러고는 어깨에 달려 있는 텅카브(금속제 어깨걸쇠)를 떼 내어, 단뚝날 같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그들을 향해 겨누며, 가까이 오면 그것으로 그들의 눈을 찌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다소곳한 성품의 어머니도 궁지에 몰리자, 사나운 호랑이가 다 되어 있었다. 그들도 그런 행동을 보고는 더 이상 어머니를 거칠게 다룰 수가 없었다. 그들이 탈로 쪽으로 그냥 발길을 돌리자, 어머니는 림추 쪽으로 방향을 바꿔 부지런히 걸음을 떼었다.

아버지는 하인들과 함께 림추 근처의 술숲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귀찮은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어느 해질 무렵에 아버지는 천막을 향해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중 한 사람이 어머니처럼 보였기 때문에 혹시 허깨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온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더욱 단단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봄에 우리 가족은 림추에서 파로 쿠엔가출렁으로 이사했다. 소남 체링의 눈을 피해 한동안 탈로에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파로 관아에 다시 나갔다. 펜롭이 은기나 상, 골동품 같은 물건들을 수집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청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여럿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는 펜롭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장이었다. 그러나 체텐라가 그 곳에 들어온 뒤부터는 그렇지가

못했다. 펜톱이 이제는 아버지를 멀리 대하려 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에게 보통 맡겼던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쫓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아로 계속 나갔다. 그때가 아버지에게 무척 힘든 시기이기는 했어도, 그 대신 가족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1927년 3월에 지그메 왕축 왕의 즉위식이 푸나카에서 열렸다. 외삼촌이 식 집전을 맡았다. 파로 펜톱이 쿠엔가출렁을 사려 한 때가 그 해 중순 무렵이었다.

탈로 드중에서 쫓겨난 체텐라는 파로 펜톱에게 사브드룽 때문에 자신이 쫓겨나게 된 것이라 하면서, 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의 얘기는 펜톱의 호기심을 무척 자극했고, 그의 귀를 즐겁게까지 해 주었다. 아버지는 나중에 관원들로부터 체텐라가 펜톱에게 했던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체텐라는 사브드룽이 흑마술을 부려 자신을 쫓아냈고, 이제 왕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말을 꾸며댔다. 국왕을 해하려는 음모가 얼마나 불온한 것인지는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펜톱은 체텐라의 말을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진위도 알아보지 않은 채, 곧장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려 버렸다.

왕과 사브드룽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외삼촌이 멜롱카르 초지를 왕의 허락 없이 친척들에게 나눠 준 일이 있었다. 토지를 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고유 권한이었기에 그의 행동은 왕의 노여움을 살 만했다. 젊은 라마가 그 같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던 그의 주위 사람들 탓이 컸다. 그 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또 있었다. 그것도 초지 문제 때문이었다. 세울라 라마 가문의 넵 도르지라는 사람이 왕에게 사브드룽 소유의 땅을 자신에게 하사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는데, 왕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토지를 하사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둘 사이가 더욱 소원해지게 되었다.

외삼촌의 숙부 도폴라는 트라시강의 드중폰(성주)이었다. 그런데 그가 도적떼를 소탕하라는 왕명을 받고, 자신의 관내를 넘어서까지 도적들을 추격하다가, 삼드롭 종카르에서 그들의 십자 포화를 받고 전사하고 말았다. 외할머니와 부모님은 라사 순례 여행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불타에 이르렀을 때, 왕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을 왕에게로 안내했다.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아버지는 도폴라 드중폰의 죽음은 사고이고, 그것이 그의 업이었다고 아뢰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 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왕은 그 무렵에 본래 사브드룽 소유의 다가나 드중과 그에 딸린 토지를 반환해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5 대 정신의 화신 지그메 초에갈 사브드룽(1862-1904)이 입적한 후 정부에 귀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바람

에 그 반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붐탕에 머물고 있던 외할머니 앞으로 탈로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곁봉에 사브드룽 인장이 찍혀 있기는 했으나, 위조된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소남 체링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도폴라 사망에 대해 왕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깨진 인장 자국이 찍힌 봉투를 왕에게 보이고, 사브드룽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자고 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소남 체링이 말 대로, 왕에게 보상을 요청하고 말았다. 왕은 뜻밖의 요구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보상금으로 은화 2천 냥을 내놓았다. 그런 일로 왕이 보상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외할머니와 부모님은 보상금을 두둑이 갖고 붐탕을 떠나게 되었지만, 마음이 개운치가 못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행동이 못내 유감스러웠다. “왕께 사실대로 아뢰고 그의 보호를 구했다면, 지금 우리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 아파 뗏뗏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마음이 편치가 않군요.” 탈로에 도착해서 은화를 꺼내 보니, 그 중 절반이 거의 닳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소남 체링은 무모하게도 그것들을 다시 붐탕으로 가지고 가, 왕에게 새 은화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왕은 “그것을 주조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티벳인들이요,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놔 두고 가시오.”라고 말했다.

1931년 여름에 소남 체링이 초에키 겔첸과 강텡 린진에게 통역사 한 사람을 대동해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고 오라고 하며, 그들을 인도에 파견한 일이 있었다. 사절 대표는 초에키 겔첸이 맡았는데, 그는 아시 노르모의 아들로 외삼촌과는 외사촌지간이었다. 그는 언행이 가벼워 그리 미더운 사람이 못 되었다. 그들은 켈커타에서 간디를 만날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이미 떠난 뒤였다. 어렵사리 보르사드에서 간디를 만날 수 있었다. 초에키 겔첸은 소남 체링이 일러 준 대로 말을 했다. 옛부터 부탄은 사브드룽의 화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근년에 와서 그런 권한을 잃게 되었으니 사브드룽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그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초에키 겔첸으로부터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던 일 관련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간디는 티베트 사절단을 떠나 보내는 자리에서 초에키 겔첸에게 코코넛 한 개를 건네며 사브드룽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에키 겔첸은 좌절감만 안은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파사카로 돌아왔다. 그는 선물로 받은 코코넛을 잘라먹으며, 자신들은 많은 선물을 들고 갔지만 돌아온 것이 고작 코코넛 한 개뿐이라고 푸념했다.

1931년 5월에 티베트 ‘왕(사브드룽)’의 동생이 마하트마 간디와 회담했다는 기

사가 인도 언론에 실렸다. 그 소식을 접한 지그메 왕축 왕은 노여워하며, 사브드룽을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엄하게 내렸다. 그 후, 외삼촌은 탈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파로 펜룽이 한 번은 외삼촌이 티베트로 도망갔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즉시 사브드룽 일행을 체포해 오라고 군인들을 캄마르와 사마다까지 보냈고, 필요하다면 그를 시해해도 괜찮다는 명령까지 내렸었다.

그런 얽히고설킨 일들로 인해, 왕과 사브드룽 간의 갈등의 골은 이미 깊이 패일 대로 패어 있었다.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외삼촌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다. 젊은 사브드룽을 잘 인도하지 못한 측근들 잘못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외삼촌을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함으로써 금욕 생활을 어기게까지도 했다. 여신자들은 대개 그런 기회를 다키니 지위에 오르는 커다란 특권이라 여겼다. 나는 여신자와 동침한 사브드룽의 행동이 신성을 모독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지그메 노르부 사브드룽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졌다. 그리고 최초의 드중 심토카를 세운 초대 사브드룽도 대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난 뒤에야 금욕의 서원을 세웠다.

나는 이 기회에 나의 외삼촌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의 죽음에 얽힌 숨겨진 역사를 밝히고 싶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 간에 많은 추측들을 불러일으켰다. 심장 마비 때문이라니, 또는 자살을 했다는니 하는 말들이 흥흥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공표된 적은 없었지만, 그가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민감한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왕은 파로 펜룽과 합심해 탈로 드중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드중 식구들은 그 심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사브드룽에게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티베트로 피신할 것을 간곡히 권고했다. 친척 아상 드랄항은 그를 티베트까지 자신의 등에 업고서라도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새끼 뱀 암소를 어깨 위로 거뜬히 들어올릴 만큼 힘도 세고, 검술에도 능한 사람이었다. 탈로 드중에서 남쪽으로 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초사이오우라는 호수가 있었다. 아상 드랄항은 사브드룽이 그 곳으로 나들이할 때마다 그를 수행했다. 사브드룽은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속숨(양쪽에 있는 과녁 중 어느 한 쪽을 향해 대나무 창 두 개를 던지는 놀이)과 기프(속숨과 비슷하지만 끝이 갈라진 창을 사용함) 놀이도 했다. 그 사이, 하인들은 대개 검술 단련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아상 드랄항은 건초로 짠 두꺼운 떡갈나무를 단칼에 두 토막 낼 정도로 칼을 잘 썼다. 다른 하인들은 건초나 간신히 베었고, 역센 도바 드루가이도 나무 걸면에 칼자국을 내

는 정도에 그쳤다.

사브드룽은 티베트로 피신하자는 아랫사람들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몇몇은 얼마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라도 드종을 지키 보자고 하며, 적장 두 세 명을 총으로 쏘 죽이면 병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 말했다. 사브드룽은 시종 차분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저는 중이고, 그릇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저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종자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도록 소남 체링에게라도 부탁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오만 방자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도도한 여유를 보였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브드룽에게 감히 위해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요. 겁이나 주려고 하겠지요.”

아상 드랄항은 탈로 겐을 모신 신당으로 조용히 들었다. 겁을 제단에 올리고, 가람신에게 사브드룽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사브드룽을 알현했다. 그와의 마지막 자리에서 숙연한 어조로 이승에서의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나지만, 환생해서 람을 다시 모시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바 드루가이에게 “나는 람을 놔 두고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요. 내가 결심한 길을 가리다.” 라고 하고는, 드종 뒤쪽 지이고툼 굴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마셨던 독극물 자국이 손에 묻어 있었다. 그는 사브드룽이 살해될 것임을 예견하고, 자신의 람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자살을 택했던 것이다. 도바 드루가이는 탈로를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에 소남 체링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브드룽의 만류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1931년 10월 29일, 무장한 삼백 명의 군인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 탈로로 쳐들어왔다. 한 부대는 트롱사의 시종 산가이가 이끌고 있었고, 또 한 부대는 파로의 용병장 남가이가, 그리고 또 한 부대는 팀푸의 수령 강테이 트룰쿠가 지휘하고 있었다. 강테이 트룰쿠 부대가 타시초 드종을 출발한 것은 그 날 오후였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한 말을 타고, 전투 대형으로 정렬한 병사들을 선도했다. 홍소에 이를 무렵,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횃불을 들어 길을 밝혔다. 강테이 트룰쿠는 폐말링파의 육체의 화신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팀푸의 전 수령이었던 쿠엔장 트린레이이고, 어머니는 사브드룽의 5대 정신의 화신 지그메 초에갈의 누이이다. 그는 공식 취임식은 갖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팀푸 수령 자리에 올라 평생 그 자리에 있었다.

세 부대는 폐와 돌라이에 집결했다. 그 곳은 랍차카 부근에 있는 삼단 지형의 넓은 들판이었다. 장수들은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채, 전투 표상으로 비단 스카프를 그들 상체에 엮고 있었다. 병사들은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탈로 드종을 향해 다시 진군을 시작했다. 가는 도중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일부 군인들

은 탈로 아래쪽에 있는 달리다 사원에 들어가, 제수로 장만해 둔 음식들을 모두 먹어 치웠다. 파로 부대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로 잠시 소동이 일어났다. 군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탈로 드중 쪽에서 쏜 총 소리라고 생각했다. 강테이 트를쿠는 대오를 다시 정렬시킨 뒤, 그의 부대를 이끌고 제일 먼저 남문을 통해 탈로 드중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이어, 남가이가 이끄는 부대가 동문으로, 그리고 산가이 부대가 서문으로 진입했다. 소남 체링이 군인들을 맞이하겠다고 방정을 떨며 탈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장수들은 겁에 질린 드중 식구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말했다.

군인들에게 점령당한 탈로는 곧 공포 분위기가 드리워졌다. 마을 주민들은 집 문을 꼭꼭 걸어 잠갔고, 떠들던 아이들의 소리도 잠잠해졌다. 드중을 빙 둘러싼 초병들은 드중 식구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일일이 검사를 했고, 밤에는 사브드룽이 도망갈 것을 대비해 출입문마다 큰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지폈다. 집집마다 ‘식객들’로 북적거렸다. 군인들은 보통 가까운 풀밭에 앉아 다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중에도 줄을 맞춰 앉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살다 보니, 마을에 있는 모든 양식이 얼마 못 가 동이 났다. 군인들을 계속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브드룽의 눈에서 채 익지 않은 쌀을 거둬 들여, 등에 지고 옮겨 왕겨를 벗기며 밥을 지었다. 성미 급한 일부 군인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노브강과 템바이카 같은 이웃 마을들로 가서 황소들을 잡아먹기도 했다.

군인들 대부분이 사브드룽을 암살하는 일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성직자를 살해하는 것이 대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앙교단은 사브드룽 구명을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서 스님들은 사브드룽을 중앙교단으로 초청해 같이 지내자는 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사브드룽이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마음의 준비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결의는 삼텐 감초 독송단장의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왕의 임명으로 그 자리에 있던 그는 교단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스님이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 물에 젖지 않을 돌이 어디 있겠소?”라고 변죽을 울리며, 가셉 보쿠 비서에게 탄원서의 내용을 고쳐 쓰라고 지시했다. 가셉 보쿠는 그가 말하는 대로 탄원서를 새로 쓴 뒤에 탄식했다. “다시는 붓을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두 손으로 죄를 짓고 말았어. 내가 눈을 감으면, 지옥 말고 또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중앙교단은 사브드룽 사태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으며, 왕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당하다는 것이 새로 쓴 탄원서의 내용이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탈로에 군대가 주둔한 지 두 주가 지날 무렵, 사브드룽을 시해라는 어명이 마침내 장수들에게 내려졌다.

양 의 해 시월(1931년 11월) 초사흘날 밤, 사브드룽은 군인들에게 갈아입을 새

옷 한 벌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불편해서 그 옷을 입지 않았다. 그 날 저녁, 조카롭 민주르가 사브드룽을 시봉하는 자두 킨라이 스님에게 그의 처소 방문을 잠그지 말라고 일렀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그는 사브드룽에게 밤중에 위험한 일이 있을 지도 모르니 깊이 잠들지 말라고 당부 드렸다. 그러나 사브드룽은 초연했다. “저의 죽음이 이로운 일이라면, 죽는 게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은 일일 뿐입니다.” 그 날 밤, 그는 침소를 기둥 옆 바닥에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알몸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신단 위의 버터등이 꺼지자, 방안은 온통 어둠에 잠겼다. 사브드룽의 사촌 움자이 도크리가 그에게 등을 다시 켜느냐고 묻자, 그는 불을 켜면 눈이 부시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사브드룽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움자이 도크리와 자두 킨라이는 제단 뒤로 몸을 숨겼다. 이경 무렵에 칠흙 같은 어둠을 뚫고 일렁거리는 횃불들이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왔다. 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조카롭 민주르와 남가이, 강테이 트룰쿠의 하인 폼테이, 그리고 푸나카의 가령 카르츄이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사브드룽을 에워쌌다. 그리고 곧 그의 몸을 깃누름과 동시에 목을 쥐며 음낭을 걷어찼다. 숨이 막힌 사브드룽이 잠시 몸을 바둥거렸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그 움직임은 멎었다. 그들은 망연 자살해 우두커니 서 있는 스님들에게 그를 요에 잘 눕히라고 말했다. 스님들이 멍하니 선 채 가만히 있자, 그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사브드룽을 반듯하게 눕히고, 타살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을 말끔히 치웠다. 그러고는 방을 나가며, 스님들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면 사브드룽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읊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날이 밝자, 사브드룽이 수면 중에 사망했다는 부고가 났다. 그때 외삼촌은 꽃다운 스물 여섯 청년이었다.

사브드룽의 장례 준비가 서둘러 진행되었다. 강테이 트룰쿠가 장례 위원장이었다. 평상시였다면, 마땅히 공들여 준비되어야 할 장례였다. 시신을 오랫동안 정장 안치시켜 미라로 만든 뒤, 은색 사리탑에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탈로 드종에 안치되어 있는 지그메 드락과 사브드룽과 지그메 초예갈 사브드룽의 주검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었다. 참배객들은 지금도 살아 있는 존자에게 하듯, 매일 빈랑과 같은 제물들을 제단에 올린다. 중앙교단이 임명한 의전 담당자가 그 모든 관리를 하며 참배객들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사브드룽이 사망한 지 열이틀 뒤인 1931년 11월 26일에 탈로 드종 잔디밭에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초에게이 왕축 중정 스님의 집전으로 스님들이 경문을

독송하기 시작하자, 구슬픈 곡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목놓아 우는 것이 두려워 애써 울음을 참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카를 민주르가 큰 소리로 말했다. “탈로 사람들아, 울지 마시오. 그대들의 람은 곧 돌아올 겁니다.” 신심 깊은 한 신자가 대꾸했다. “그래, 우리의 람을 집어삼켰으니, 이제 속이 후련하신가?” 사브드롱은 심장과 눈, 혀를 남기고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사람들은 상서로운 일이라 생각하며, 그것들을 신성한 유물로 보존하자고 했다. 그런데 강테이 트를쿠가 불경스럽게도 심장을 막대기로 찌르며 떠들어댔다. “어, 불만에 찬 심장이 아직도 남아 있네.”

추모 행렬이 뒤따르는 가운데, 유해를 실은 마차가 푸나카 모추 강으로 향했다. 재가 강에 뿌러지기 시작하자, 강둑 위에 있던 사브드롱의 애마 차인가 잠이 신음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몸을 이리저리 굴렀다. 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곡성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인근의 개들도 일제히 짖어댔다. 정말 괴이한 현상이었다. 그날, 계곡은 사람과 짐승들의 울음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온종일 메아리 쳤다.

우리는 외삼촌의 사망 소식을 외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외할머니는 나중에야 감시자들로부터 아들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파로 상초에코르에서 비보를 접한 어머니가 곧장 탈로 드중으로 달려갔지만, 집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채마밭에 서서 이층에 있는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서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애절한 장면이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슬픔을 토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그들 심정이 오죽 했겠는가!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죽던 날 밤, ‘어머니! 어머니!’ 하고 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소리가 자꾸 귓전에 맴돌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헤어질 무렵, 창 밖으로 산호 한 쌍과 황금색 도르지 한 개를 넣어 싼 보자기를 던졌다. 어머니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파로로 터벅터벅 걸어 돌아오며, 외할머니만 다시 홀로 남겨 두고 왔다는 자책감을 내내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 동안 상초에코르 드중에서 꽤 편안한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럴 날도 얼마 남지가 않았다.

4. 불타는 상초에코르 드종

외삼촌이 돌아가신 지 두 달 보름이 지날 무렵, 우리 가족은 이십일제의 마지막 날에 맞춰 하아 타추 고엠패로 떠날 준비를 했다. 부모님이 그 해에 그 제의 후원자가 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십일제에서는 민간에 널리 유행되는 옴마니파드메흠 진언이 암송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런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기도 해서, 어느 두 집이 자원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가 끝나는 날까지 준비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상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는 보통 하고 다니던 산호 목걸이를 다른 보석들과 함께 땅굴 속에 보관해 넣고, 그 관리를 첸도나에 사는 친척들에게 맡겼다. 그 덕에 그 보석들은 상초에코르 화재 때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아 타추에서 페마 큰할아버지 댁에 묵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살던 집이었다.

부탄력 정월 열아흐렛날, 파로에서 급히 올라온 사람이 상초에코르 드종에 불이 났다고 알렸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우리는 허둥지둥 짐들을 챙겨 파로로 종종걸음을 쳤다. 모두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내내 말이 없었다. 카릴라 고개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상초에코르 드종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시커먼 거대한 연기 기둥이 드종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드종과 작별 인사를 하듯 두 손 모아 기도를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종교 유품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적지 아니 절망했다. 우리 전채 산이 그 곳에 있었다. 회귀 경전들도 있고,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 같은 보석들도 있었다. 터키옥이 박힌 림포체 법사의 금상은 다시는 구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귀중한 유물이었다. 파드마삼바바 도사라고도 불리는 림포체 법사는 제2의 부처라 인정받을 정도로 대중들로부터 높이 추앙되는 인물이다. 그의 고향은 지금은 파킨스탄령에 속해 있는 고대 웃디야나 왕국이 자리했던 스와트 계곡이다. 그는 8 세기 중엽에 붓탄의 신두라자 왕의 초청을 받고, 부탄으로 건너오면서 인도의 탄트라 불교를 처음 소개했고, 신계 드종과 쿠르제에 같은 성소들에서 수행을 했었다.

상초에코르 드종 화재는 체링 펜조르 파로 펜롭의 처남이자 마구간 관리인인 굽 체링이 담배를 피우려다가 부주의로 인해 일으킨 불이었다. 그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미루나무에서 불기 시작한 불이 삼시간에 드종 전체로 번졌기 때문에 건잡을 수가 없었다.

상초에코르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

들은 아직 다 타지 않은 잔해들을 이리저리 막대기로 헤집으며 건질 만한 물건들을 찾았다. 아직도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들을 바라만 보았다. 금세 그들의 얼굴은 먼지와 숯 검댕이로 시커멓게 변했다. 그들은 주화와 동향아리들을 찾아냈고, 아직 불타지 않은 경전들도 건져냈다. 책들을 찢던 보자기와 책 가장자리만 조금 그을렸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는 데에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흥칙한 모습으로 변해 버린 상과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들도 발견되었지만, 림포체 법사 금상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불에 타지 않은 물건이 또 있었다. 드종 정문 옆에 있는 대고였다. 그것은 스님들에게 휴정을 알릴 때에 사용되었던 북이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그 북을 보며,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들 했다. 통드로엘(대형 종교 장식품)과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상이 들어 있는 은제 초르텐(탑), 탕카(탱화), 금문 경전, 상아 한 쌍, 그리고 심벌즈도 무사했다. 그것들은 드종에 있던 관리인과 여스님들이 불이 나자, 재빨리 밖으로 들고 나왔던 것들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상초에코르 화재로 가재들과 보금자리를 통째로 잃게 되었다. 아직 어렸던 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화재가 있기 전, 할아버지는 푼초 펠리라는 집을 짓고 있었다. 상초에코르 드종은 사실 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리 집이 아니었다. 상초에코르 드종에서 링푸 고엠펜파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집은 쿠엔가출링을 모델로 해서 거의 설계되었지만, 규모는 그보다 조금 더 작았다. 우리는 새집이 완성될 때까지 링푸 고엠펜파에서 잠시 지내야 했다. 그 절에는 방이 세 개 있었는데, 우리 같은 대가족이 살기에는 좀 비좁기는 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한 방을 가재들을 넣는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방을 나누어 써야 했다. 작은형과 나는 큰형과 같은 방을 썼다. 큰형이 상단에서 잠을 자고, 우리는 그의 발 아래 마루바닥에 잤다.

푼초 펠리를 짓는 동안, 작은형과 나는 건축 용재로 쓸 나무들을 하러 다녔다. 우리는 링푸 고엠펜파 너머에 있는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그 통나무들을 경사면을 따라 끌고 내려왔다. 당시 나는 여섯 살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섯 살짜리 꼬마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일곱 살만 되어도 받을 갈던 시절이었다. 고되기는 했지만, 그 일이 내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집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공부 시간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근처 샘에 놀러 나갔다가, 큰형이 물가에서 곤봉처럼 생긴 막대 하나를 발견했다. 그 막대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형은 우리 머리를 그것으로 쳐 보고 싶어했다. 내가 먼저 맞게 되었는데, 어찌나

아팠던지 “아아!”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다음에는 작은형이 맞았다. 그는 나보다도 더 큰 소리를 질렀다. 큰형이 작은형의 머리를 한 차례 더 좀 세게 때렸다. 그러자, 그의 머리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 내렸다. 작은형은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하는 쪽으로 달려갔다. 겁이 덜컥 났다. 큰일났다고 생각한 큰형과 나는 얼른 창고로 숨었다.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대낮인데도 안은 캄캄했다.

아버지가 햇불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숨어 있는 구석 쪽으로 불빛이 잠시 비치는가 싶더니 이내 곧 사라졌다. 아버지가 나가자, 우리는 창고 위쪽으로 올라가 상초에코르 화재 때에 건져냈던 시커멓게 탄 물건들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얼마 뒤, 그 문틈 사이로 우리를 노려보는 변쩍거리는 두 개의 노란 눈동자가 보였다. 나는 옆에 있던 철봉을 얼른 잡아 들며 형에게 속삭였다. “이걸, 저 놈에게 던질까?” 형이 “그러지 마!”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문 쪽으로 내던졌다. 쿵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눈동자의 정체가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인간의 눈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그 곳에 숨어 있다가, 저녁 때쯤 돼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어머니가 우리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형 머리에 난 상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형의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오히려 그 덕에 가족들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게 된 그는 한동안 적잖이 짐잔을 빼며 다녔다.

어느 날 아침, 조반을 들고 있었는데, 별안간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옆 방에서 들려 왔다. 얼른 그 쪽으로 달려가 보니, 방안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희뿌연 먼지로 자욱했다. 잠시 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세 사람이 앓은 판자 위에 불안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바닥은 온데간데없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어머니와 하녀 다공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아버지를 할머니가 말렸다. 그들이 조심조심 발을 내딛으며 좀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자,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판자와 진흙벽이 함께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다라면, 정말 큰일날 뻔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곧장 밑으로 달려 내려갔다. 다공은 다친 데는 없었지만, 몹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도 “주인 마님, 주인 마님”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았다. “예, 괜찮아요!”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침내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떨어져 내린 잡석과 버팀목들 밑에 누워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그것들의 육중한 하중을 찌그러진 동그릇들이 받치고 있어, 어머니는 등만 약간 굽히고 크게는 다치지 않았

다.

파로 펜롭은 외삼촌이 죽고 난 뒤부터는 아버지에게 더욱더 일을 잘 주지 않았다. 어쩌다 간혹 일을 하게 되더라도 노임 받는 일은 드물었고, 그 대가로 식사 대접을 받는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려 했던 것은 그의 호의와 보호를 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파로 관아에 아전 산가이의 아내 자감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파로 본데이가 고향이었지만, 할머니와 영적 자매였다. 영적 자매는 특별 의식을 통해 맺어졌다. 각자가 이름들을 적어 놓은 쪽지들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면, 그 이름의 주인공과 자매 결연이 되었다. 자감은 펜롭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하루는 우리 집으로 와, 램 형이 사브드룽과 같은 일을 당할 것 같으니 몸조심해야겠다고 할머니에게 당부를 하고 갔다.

어머니의 귀중품들은 첸도나에 사는 잠 이모할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스물 다섯 종류의 보석들과 산호목걸이 세 개, 금장신구, 그리고 텅카브들이었다. 상초에코르가 불에 탄 직후에 파로 펜롭이 산가이를 우리 집으로 보냈다. 그는 우리의 보석들을 넘겨준다면, 상초에코르 드종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펜롭의 말을 전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할 만한 거래였다. 그래서 할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말을 끝이 듣고, 보석들을 선뜻 펜롭에게 넘겨주었다. 사흘 뒤, 그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른 말을 아전을 통해 보내 왔다. 그의 말인 즉, 우리 가족이 상초에코르를 재건하는데 동의한다면, 방화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푼초 펠리가 다 지어지자, 우리는 새집으로 이사했다. 연이은 불행들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집안 운수가 좋지 못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집에 들어가고 몇 일이 안 되었을 때, 표범 두 마리가 집 층계참에 앉아 있는 일이 벌어졌다. 불길한 일이었다. 일찍이 자감이 할머니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도 있고 해서, 집안 어른들은 램 형의 신변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몹시 걱정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펜롭 궁에서 일하는 한 친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밤에 우리 집으로 달려와, 아무래도 램 형의 안전이 위태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티베트 망명을 절실히 고려하기 시작했다.

5. 티베트 망명

어머니는 추락 사고를 당하고 나서 허리가 좋지 못했다. 파로를 빠져 나갈 기회를 찾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그것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이웃들에게는 티베트 온천으로 어머니 다친 허리를 치료하러 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제구들은 모두 동향아리에 담아, 그것을 짐 근처에 구덩이를 파 묻었다. 뚜껑이 되게 항아리 한 개를 더 얹어 흙을 덮고, 위치 표시로 큰 돌 하나를 그 자리에 올려 놓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귀하게 쓰게 될 물건들이었다.

어머니는 안장을 엮은 말에 태우고, 나머지 두 필의 말에는 식량과 옷가지들을 나누어 실었다. 그리고 나니, 온천으로 떠나는 영락없는 가족들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와 람 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먼저 출발했다. 케상 당숙 부부도 함께 떠났다. 할아버지와 람 형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일단 푼초 펠리에 남아 있기로 했다. 보름 뒤에 티베트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만 남기고 떠나는 우리 마음은 편치 않았다.

파리까지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날씨가 더워 고생을 많이 했다. 왕축 형과 나는 느리게 걷는 일행들을 가끔 앞질러 가, 그들을 기다리곤 했다. 우리는 그 동안 허리에 찬 칼을 꺼내 심심풀이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소매를 걷어 붙인 채 산에 올라갔다 오기도 했다. 비록 도망치는 신세이기는 했지만, 나는 미지의 땅을 향해 흥미 진진한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첫날 밤을 요타이나에서 보내고, 이튿날 오후 늦게 파리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는 어느 이층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 파리에서 우리의 목적지인 콤부 온천까지는 꼭 하루가 걸렸다.

우리 가족은 야크 수십 마리를 콤부에서 기르고 있었다. 그래서 해마다 목동이 버터랑 추고(굳은 크림치즈) 등을 보내 왔다. 야크들은 일정한 수로 관리되었다. 정해진 수보다 많을 때에는 목동이 그 초과되는 수만큼의 야크를 가질 수 있었지만, 병이나 사고로 그 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부족한 수를 채워 넣어야 했다. 목동이 야크 몇 마리와 함께 파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뿔 때문에 나는 야크 타기가 처음에는 좀 겁이 났다. 그러나 파리까지 이틀을 줄곧 걸어 오며 발에 물집이 잡혀 있던 터라, 그것이라도 타고 가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곧 들었다.

온천에 가까워질 무렵, 드넓게 펼쳐진 들판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별판한가운데로 개울물이 흐르고, 그 주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열 세 개의 온천들

이 보였다. 그 중 세 개는 흠집으로 가려져 있고, 나머지는 노천 상태의 온천들이었다.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 타징이라 쓰여진 온천이 가장 컸다. 나는 야크에서 내리자마자, 그 곳으로 달려가 고를 벗어 던지고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얼른 나오고 말았다. 생각보다 물이 너무 뜨거웠다. 그 뒤부터는 물에 들어갈 엄두가 감히 나지 않았다. 어른들은 물 속에 몸을 푹 담그고 느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온천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나와 작은형, 렌케이는 좀더 낮은 수온의 온천에서 놀았다. 나는 가끔 머리를 처받고 물 속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하얀 조약돌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물이 계속 샘솟으며 거품들이 이는 모습이 무척 신기해 보였다.

우리는 목동들이 지어 놓은 막사에서 지냈다. 걸쭉한 우유랑 버터, 치즈 같은 신선한 유제품들을 실컷 먹었다. 그 중에서도 마른 크림치즈의 감칠맛이 좋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껌처럼 질경질경 씹었다. 난생 처음 먹어 보았던 양고기는 좀 역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튀니튀니 해도 밥이 제일 좋았다. 티베트에서는 쌀이 재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서는 밥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밥은 점심에만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은 밀가루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메밀 음식을 먹었다. 음식 준비는 모두 채왕 펨 당숙모가 맡아서 했다.

온천 생활이 사나홀로 접어들면서, 나는 할아버지와 람 형이 많이 생각났다. 가족들도 두 사람이 약속한 날에 맞춰 파리에 올 수 있을 지 무척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떠난 뒤, 경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말을 우리보다 그 곳에 늦게 도착한 동향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티베트 방면으로 통하는 드루켈 드중 위쪽에 있는 사나 잠과 남쪽의 랑고 잠에서 초병들이 여행자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다고 했다. 파로로 들어오는 병든 쇠고기를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가 부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람 형은 용케 파로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충북 드라가이 타시와 다른 세 하인과 함께 말 세 필을 이끌고 밤을 틈타 그 곳을 빠져 나왔다. 그들이 사나 잠에 이르렀을 때, 다리 한복판에 초병 두 사람이 장벽처럼 머리를 맞대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조용조용 말들을 이끌며 다리로 접근했다. 드라가이 타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도를 꺼내 들고 있었다. 그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주저 없이 그 칼로 그들의 숨을 끊어 놓을 작정이었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 얼마 못 가, 수탉이 해치는 소리가 들렸다. 드라가이 타시는 닭 울음 소리가 몹시 반가운 듯,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닭이 우는 걸 보니, 날이 밝나 봅니다. 좋은 징조군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만큼이나 심장 뛰는 소리도 요란했다. 파리가 눈 앞에 보이는 고개에 올라서야,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요기도 할 겸해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람 형은 평평한 돌 위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맨바닥에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라마에 대한 예의였다. 할아버지가 만든 메밀가루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할아버지와 람 형이 아래로 펼쳐진 계곡 경치에 감탄하며 파로 쪽을 애뜻이 바라보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갈가마귀 한 쌍이 날아왔다. 그들은 몇 발치 떨어진 곳에 있는 돌탑에 내려앉았다. 마치 라마의 축복을 받으러 온 양 람 형을 향해 머리를 몇 번 꾸벅거렸다. 그리고는 돌탑 주위를 세 바퀴 맴돌고 파로 쪽으로 날아갔다. 부탄에서는 까마귀를 국가 수호신인 마하칼라의 상징으로 여겼다. 할아버지가 예언하듯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 말했다. 티베트를 향한 여정이 힘들었지만, 성조들과의 해후로 그들은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가 있는 온천 주변에 열 명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파리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우리 가족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시했다. 할아버지와 람 형이 오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 탈 없이 파리까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약속한 날, 왕축 형과 나는 발에서 갓 따다 삶은 콩을 광주리에 넣고, 그들이 오는 곳으로 마중을 나갔다.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는 무척 기뻐했다. 고된 여행 탓인지 초췌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안부를 우선 물었다. 풀밭에 앉아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우리는 가지고 갔던 달콤한 콩을 그들에게 내놓았다. 기력을 다시 회복한 후, 그들은 우리의 안내를 받으며 파리로 향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가족 모두가 안도하며 감사해했다. 우리 가족은 당국의 배려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파리 드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첫날 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깬다. 혼자 뒷간에 가기가 무서워, 주무시는 할머니를 깨워 함께 나갔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우리는 드중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땠는지 쉬이 상상이 될 것이다. 할머니는 그날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파로 펜톱의 군대가 우리 가족을 체포하려고 포위한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까. 날이 밝아서야, 우리는 그들이 람 형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티벳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워줄라 스님은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는 티베트 초모의 문벌 가문 출신으로 검은 피부에 육척 장신 거구였는데, 그의 삼촌 또한 소문난 장사였다.

스님은 우리 가족이 티베트로 떠나기 한 달 전, 링푸 고옴파에서 우리와 함께 망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티베트 정부에 알렸다. 간체를 경유해 티베트 수도 라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파리 드중에서 몇 일을 지낸 뒤, 우리 가족은 티베트 정부가 제공한 짐말 서른 마리와 조랑말 다섯 마리와 함께 간체를 향해 떠났다. 간체까지는 엿새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날씨가 좋아 여행은 즐거웠다. 람 형을 호위하는 무장 군인들이 내내 우리 뒤를 따랐고, 우리가 다른 지방으로 넘어갈 때마다 호위병들도 교대되었다. 그때 보았던 일들이 마치 어젯일처럼 눈에 선하다. 간체에 도착한 우리는 테와 출렁에 머물게 되었다, 석벽으로 둘러싸인 공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원이었다. 바깥문을 지나 안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뜰이 나왔는데, 그 안뜰에 여러 채의 단층 가옥들이 있고, 그 중앙에 마니 라캉(사원)이라는 절이 있었다. 모두가 따로 방을 쓸 만큼 방의 수도 많았다. 람 형은 신당에 들었다. 간체 정부는 형을 국민으로 모셨다. 그래서 요리사와 마부, 청소부 등을 보내, 우리 가족을 시중들게 할 정도로 많은 배려를 했다. 워줄라 스님은 우리 가족의 망명에 대해 티베트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라사에서 계속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간체 체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그 곳에서 만년 가까이 살게 되었다. 나는 그 사이 티벳어도 조금 익혔다.

세라 승원의 고승 네 사람이 람 형을 내방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가족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티베트에는 3 대 초글레이 예세이 겐첸 스님(1781-1830)의 족적이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세이 겐첸 스님은 티베트에 불교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9 대 달라이 라마 캄의 룡톡가초 동자승을 비롯한 여러 고승들에게도 불법을 설했었다. 룡톡가초 달라이 라마는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섭정 데모가 그를 대신해 보은의 뜻으로 초글레이 스님과 그의 화신들에게 짐말 서른 필과 조랑말 다섯 필을 자유로이 징발할 수 있는 특권을 서면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또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여진족 황제 치아-치잉(1796-1820)은 최고의 라마에게 내리는 양산과 금판 칙령으로 그에게 사례했다.

아무래도 생활이 불안정하다 보니, 우리는 그 전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아침 수업은 여전히 진행되었지만, 그 후로는 자유 시간이었다. 나는 형들을 쫓아 공원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미루나무나 버드나무에 올라 놀기도 했다. 우리는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빨간 진을 빨아먹곤 했다. 어떤 날은 모래밭에서 팔이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테고(두 개의 평평한 돌을 던지는 고리 던지기 비슷한 놀이) 놀이에 열중했다. 집안 어른들은 모여 앉아 도

란도란 정답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가족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간체 켄충이라는 스님의 초청으로, 그의 절을 방문해 차를 대접받았다. 간체 지방의 명사였던 그는 티베트와 인도를 오가는 대상과 상품의 유통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고, 13 대 달라이 라마 툽텐 가초 스님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간체 드종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방마다 가구와 소품들이 잘 비치되어 있었는데, 아름답게 조각된 탁자라든지 벽화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방장에서 마셨던 곱쫄한 차는 그 후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었다. 버터가 워낙 많이 들어 있어, 탁자 위에 옆질러진 차가 금세 굳으며 딱딱한 버터로 변했다. 그 뒤부터는 차에 버터를 많이 타 마시고 싶을 때마다, “간체 켄충의 차를 마셔 볼까?”라고 말하며 모두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마니 라캉 밖에서 커다란 기도문통을 돌리던 노인이 생각한다. 그 할아버지는 점심에 돌뜰에 앉아 가루와 마른 푸성귀를 섞어 만든 죽을 후루룩거리며 맛있게 먹었다. 날마다 그런 변변찮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해하는 그를 보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먹을 음식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 식탐하는 하인도 있었다. 할머니가 썸 텐둠에게 창자 세 개를 주며, 그것을 강에서 씻어 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창자 두 개만을 들고 돌아와서는, 하나를 실수로 강물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다음 날, 점심에 그 창자 요리를 먹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게 먹었지만, 썸 텐둠은 냄새가 역겨운 듯 손도 대지 않았다. 내장을 물에 빠뜨렸다고 말은 했지만, 그가 그것을 구워 먹었거나 했던 게 틀림없었다.

라사로부터 이제나저제나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칼림퐁에서 다우 겔첸이라는 친척이 우리를 찾아왔다. 인도 주재 부탄 대표였던 그는 소남 툽계 공짐(시중 장관)의 전갈을 우리에게 전했다. 브헨둠 티베트 주재 부탄 대표가 우리 가족이 티베트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공짐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그들은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가 티베트로 망명을 하게 되면, 두 나라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우 겔첸은 우리 가족이 인도 칼림퐁으로 가는 게 어떨지 의향을 물었다. 칼림퐁은 부탄과 티베트, 시킴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였다. 그는 간체에 이틀간 머물며, 집안 어른들과 그 문제에 관해 계속 의논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가족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겠다는 공짐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할머니는 다우 겔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것은 아이들 안전을 걱정해서 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거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소.”

칼림퐁으로 떠날 무렵, 간체는 버드나무에 낙엽이 지고 된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칼림퐁으로 가는 여정은 멀고도 힘이 들었다. 특히 예순을 바라보는 조부모님에게 아주 고된 여행이었다. 간체를 떠난 지 얼마 안 돼 일어났던 승마 사고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늙은 말을 탔던 나는 펍 덴둑과 함께 일행들보다 뒤쳐져 가고 있었다. 안장띠가 느슨하게 매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그것을 좀 단단히 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피곤했던 그는 내 말을 들은 채 만 체하며 계속 걷기만 했다. 나는 앞서 가는 가족들을 따라잡고 싶은 마음에 모자로 말 잔등을 한 번 세계 내리쳤다. 그러자, 그 가없는 말이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안장이 뒤집어지며 내 몸도 함께 말의 배 아래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되었고, 나는 두 발이 등자에 걸린 채 말에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 안긴 채 개울가에 있다는 의식이 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고,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굵혀 아직도 피가 흐르는 내 두 손을 어머니가 형겔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내게 죽을 먹이면서 아버지에게 속삭이듯 말을 했다. “참, 이 만하길 다행이지... 만약에 다리가 빠지지라도 았았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네요. 다 신들이 보살펴 준 덕이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틀 거리를 하루에 가 보려고 재촉했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 생각했다. 드러내 놓고 불만을 말하지는 았았지만, 아버지는 다음 날 내내 말 한 마디도 하지 았았다.

칼림퐁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 칼라, 도이나, 파리, 초모, 코이푸, 링탐, 그리고 폐동에서 밤들을 지냈다. 그리고 여행 여드레째 되는 날, 마침내 갈림퐁에 도착했다. 소남 톱게 공짐이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집은 그의 아버지 카지우겐이 지은 것이라 했다. 조부모님과 람 형은 위체를 쓰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래체에 살기로 했다. 공짐 가족은 근처 부탄관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터가 유서 깊은 곳이었다. 예전에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이 보드 가야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잠시 머물며 복을 내렸던 성소였다. 당시 현주식에서 마르창(포도주)이 부글부글 끓며 거품이 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이 그 집주인에게 발복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는 일

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었다. 왕축 형은 공짐의 토집(시동)으로 들어갔다. 관습에 따라, 그에게 절을 하고, 그 집의 고용살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은화 한 닢을 바쳤다. 이에 공짐이 그의 큰아들 지그메 팔덴 도르지의 고 두 벌을 주자, 형은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앞으로 형이 지그메 팔덴 도르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왕축 형은 훗날 부탄 총리가 된 그를 15년 동안이나 보좌하게 되었다. 우리는 칼림퐁에서 다섯 달을 살았다. 그 동안 공짐이 워낙 잘 대해 줘, 참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공짐의 주선으로 하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하아 드중 부근에 있는 세카 다라는 호젓한 암자였다. 벼랑가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고, 또 파로에서 하룻길이었기 때문에 파로 펜톱의 간섭을 피하기에도 좋은 장소였다. 게다가, 세카 다 바로 위쪽 구릉 지대에 할아버지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도 지척에 살아 더욱더 좋았다. 그 곳에서 할아버지 고향까지는 반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무렵, 집안에 뜻하지 않은 우환이 생겼다. 렌케이와 세 살바기 여동생 테첸 옴이 시름시름 앓았다. 그들이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며 세카 다로 출발했지만, 우리의 기대는 반만 이루어졌다. 렌케이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지만, 테첸 옴이 가는 도중 알가라와 폐동 사이에 있는 추미첸 이하강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우울한 날이었다. 당시 외동딸이었던 그 애의 죽음은 특히 부모님의 가슴에 깊은 한을 남겼다. 우리는 테첸 옴을 조그마한 상자에 넣고 가다, 하아 계곡으로 들어서서는 젤렐라 고개에서 하늘로 날려보냈다. 굶주린 독수리 떼가 이제 곧 동생의 몸을 갈기갈기 뜯어먹을 것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테첸 옴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끔 긴 머리에 예쁘장한 동생의 얼굴이 떠오를 적마다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울적한 기분에 젖는다. 그 특별한 일은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지기가 힘들 것이다.

6. 세카 다 유펜

새 보금자리가 된 세카 다는 첼레지 산 뒷자락의 가파른 절벽을 등지고 선 아담한 이층 사원이었다. 그 산은 글자 그대로 첼레지 신을 상징하는 산으로, 잠바양 산과 차나 도르지 산과 함께 전국 삼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혔다. 그런 연유이겠지만, 이층 신당에 그 세 신상이 모셔져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림포체 법사와 불교 카르규(구전) 교리를 설하는 신들을 묘사한 아홉 폭짜리 벽화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밑실에는 가람신인 도르지 짐 신을 모신 제단도 있었다. 용안이 회고 번영을 상징하는 보석과 화살을 각각의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평화의 신임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일층에는 하인들이 쓰는 방과 창고가 있었다. 세카 다는 1986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후에 다시 지어졌다.

람 형은 신당에 들었다. 잠을 잘 때는 그가 상단을 차지하고, 왕축 형과 나는 단 아래쪽에 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조부모님과 렌케이는 가족들이 식사하는 방을 쓰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옆방을 썼다. 어머니는 층계참을 직조실로 사용했다. 껌첸 삼촌과 케상 당숙은 우리 가족이 세카 다로 이사한 날 밤에 땅에 묻어 둔 제구들을 가지러 푼초 켈리로 떠났다. 그것들은 그 후에도 계속 보관되다가 몇 년 뒤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세카 다 생활은 평온했다. 가족들 모두가 가파른 지대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산양들처럼 험준한 환경에 잘 적응해 갔다. 그러나 산허리를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은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가지를 치겠다고 도끼를 들고 나무에 올랐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때 나는 아래쪽 관목들로 굴러 떨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끼에 이마를 찍히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 보니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에 다시 충격을 받고 기절을 했다. 하아의 어느 의료 보조원한테서 그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런데 그가 마취제도 쓰지 않고 꿰매는 바람에 나는 바늘이 두피를 파고들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상처 부위가 깊게 되어, 꿰맨 실들을 뽑아내고 다시 꿰매야 했다. 그 흉터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람 형은 할아버지의 엄격한 감독하에 공부에 열중했다. 하루에 두 번씩 그날의 공부 상황을 점검받았다. 왕축 형과 나도 드라가이 타시가 중앙고단으로 출가할 때까지는 그에게서 공부를 배웠다. 우리는 아침 수업이 끝나면, 가족을 돌보거나 땀감들을 모았다. 어머니는 해 질 무렵에 소들에게 먹일 목초를 하러 근처 야산으로 올랐다. 어머니는 풀을 베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 청

아한 목소리가 주위에 은은히 울려 퍼졌다. 그렇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노래하지 않았다. 세카 다에서 4 리쯤 떨어진 곳에 루수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사는 아움 껌이라는 아주머니가 우리의 가족 일부를 그녀의 축사에 넣어 키우게 해 주었다. 삼층집이었던 그 아주머니네 집 일층에 축사로 쓰이는 큰 헛간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 소들에게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밭에 거름으로 썼다. 그것이 축사를 빌려 쓰는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이 내는 일종의 샅인 셈이었다.

아침마다 목동들이 타추 고옴과 너머의 넓은 들로 소들을 몰고 나갔다. 들 저편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은 거의 일년 내내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추위를 쫓으려고 우리는 대개 불을 피웠다. 어떤 날은 노는 데에 너무 열중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하루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 주위를 살펴 보았더니, 소 한 마리 보이지가 않았다. 허둥지둥 소들을 찾다가 끝내 찾지를 못하자, 우리는 근처 타라자 굴에 은거하는 한 스님을 찾아갔다. 그 스님에게 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점을 치더니 신통하게도 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또 어느 날에는 사라진 소들을 찾으며 타라자 뒤쪽으로 갓 생긴 밭자국들을 쫓고 있었는데, 숲 속에서 메에춤(유인원의 일종)이 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그 소리를 흉내내며 응답하자 아까와 같은 소리가 또 들려 왔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계속 내며 숲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좀더 가다 보니, 바닥에 한 자 정도 길이의 나뭇단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소 찾을 생각은 잊어 버린 채, 그 나뭇단들을 따라 이상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작정 향했다. 그러다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어렵사리 우리의 밭자국들을 다시 찾아 숲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혼쫓난 하루였다. 그 뒤부터는 모두가 너무 멀리는 가려 하지 않았다.

목동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가 엄습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야크털로 만든 담요 한 장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비를 가리기도 하고 바람을 막기도 했다. 배를 굶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소를 몰고 돌아다니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많이 먹어 둘 필요가 있었다. 루수카 위쪽 산악 지역에서 소를 치면서 배가 자주 고파 복통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캅체이(밀가루 반죽)와 소금에 절인 고추 몇 개를 도시락에 싸고 가서 먹었지만,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배가 꺼졌다. 간혹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특별한 날도 있었다.

1934년에 세라 껌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부정을 피해 보름여 동안 루수카 카킴네 집에 가 있었다. 외동딸을 다시 얻게 된 부모님은 무척 기뻐했다. 그로부

터 네 해 뒤에는 세카 초텐도 태어났다. 그로써 내게도 여동생이 둘이나 생기게 되었다. 세카 초텐을 낳을 때는 어머니가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의 출산을 위해 세카 다 아래쪽에 조그마한 오두막 한 칸을 특별히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어머니는 한 차례 유산을 겪었다. 임신 다섯 달째였다. 아버지가 죽은 아기를 하아 강에 버리고 오라고 해서, 나는 그 애를 넣은 양철통을 지고 강으로 갔다. 강둑에 다다랐을 때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서 죽은 아기를 한참이나 관찰했다. 눈이랑 손이랑 발이 모두 나 있었다. 아버지가 일러 준 대로 그것에 돌을 매달아 뚜껑을 연 상태로 통째 강물에 넣었다. 그러자 양철통은 돌의 무게 때문에 곧 그대로 가라앉았다.

1935년에 국왕이 하아를 방문했다. 소남 톱게 공짐은 국왕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쓸 돈의 관리를 나의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가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때 나는 공짐의 소개로 왕에게 격식을 갖춰 인사를 올리고, 왕실 토집(시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부터 왕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실에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 되었다.

아버지는 파로 관아에서 다시 일을 얻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공짐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파로로 향하게 되었다. 태양카 방면으로 걷던 아버지가 잔사세메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앞쪽 잔잔한 웅덩이에서 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에 튀었다.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 아버지가 몸을 얼른 낮추며 풀숲으로 뛰어들어 도망가기 시작했다. 귀 옆으로 총알이 다시 지나가자, 땅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총알 세 개가 연속해서 또 날아왔다. 안 되겠다시피 눈 속으로 들어가서 엉금엉금 기면서 그 곳을 빠져나갔다. 그날 아버지는 밤이 되서야 세카 다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로부터 그날 있었던 얘기를 듣고 화가 불뚝 났지만, 외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이라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풀어 내렸다. 아버지를 향해 총을 쏘았던 사람은 체링 펜조르였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파로 관청에서 일하는 총디 둥이라는 친구에게서 나중에 들었다. 체링 펜조르는 총을 겨누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창 철망을 부하에게 찢게 했다. 다섯 발을 쏘고도 아버지를 맞추지 못하자, 그는 변명조로 “내 총알을 피하다니, 그 놈 좋은 철통을 지니고 있는가 보네.”라고 말했다. 철통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을 넣는 장신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명사수라 소문이 나 있던 그는 평소에도 파로 드종의 창문을 통해 파로 강에 떠다니는 호박들을 쏘며 사격술을 연마했다. 아버지는 공짐에게서 일거리를 얻었다. 그의 야크 관리 회계를 맡기도 하고, 관저인 하아 드종에 있는 궤들을 페인트칠해 주기도 했다. 그가 하아에 머무는 여름 동안에는 두석 달 동안 그의 비서 노릇도 했다.

해마다 부탄력 정월에는 하아 타추 고엠펜에서 마니(여섯 글자 진언)을 독송하는 이십일제가 열렸다. 람 형이 그 제의 첫째 날과 둘째 날 의식을 집전했다. 그 동안 형은 고엠펜 근처의 어느 집에 묵었는데, 나와 왕축 형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왕축 형이 뭔가 불편한 듯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가 뒤를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틈만 노리던 형은 결국 루수카 쪽으로 사라졌다. 세카 다 방면에 있는 루수카는 타추 고엠펜에서 3 리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형이 그 마을에 간 것은 한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 사정을 알리 없는 나는 눈치 없게도 형을 끝까지 쫓아갔다. 그러나 형을 찾아 내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그가 여자에게 훌쩍 빠져 있어 내게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작은형은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섭섭한 마음에 나는 밤새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날 따라 계단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때문에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 간혹 계단 밑으로 뭔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런 소음은 새벽까지 계속되다가, 독송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서야 멈췄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다. 아침에 형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는 화도 나고 피곤도 해서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으니 그가 앞으로는 내게 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세카 다 생활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활쏘기를 자주 했다. 아버지가 즐겨 했던 국궁은 우리 나라의 국민적 스포츠라 할 만큼 일상 생활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쿠나 숲에 있는 넓은 공터에서 활을 쏘았다. 지금은 높게 자라난 소나무들에 가려 그 곳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아버지는 활시위도 골라 주고 화살들도 잘 다듬어 주었는데, 활이 아직 어린 내게 너무 컸다. 힘들게 시위를 당겨서 쏘아는 보지만, 화살들이 과녁까지 채 날아가지 않았다. 그것을 제대로 쓰려면 몸과 활이 나란히 일직선이 되어야 했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였던 만큼 궁술 시합이 자주 열렸다. 매해 롬바(정월 초하루) 때면 루수카와 타추 고엠펜이 친선 시합을 했다.

어느 날, 활쏘기를 하고 친구 린첸 체링과 함께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초르텐 옆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곳에서 몇 해 전에 돌아간 그 친구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그는 모자를 쓰고 고를 입고 있었는데, 생전에도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 그 곳에서 도망을 쳤다. 아버지는 사람들과 함께 다음 날 시합 때에 먹을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일을 얘기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내 머리를 세게 두 번 쥐어 박았다. “네 눈에는 무엇이냐 다 보이는 모양이구나.” 해가 뉘엿뉘엿 서편으로

기울면서 사람들도 하나 둘 집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 세카다로 향했다. 아버지는 낮에 내가 한 얘기를 마음에 두고 있던 모양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아주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본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일 게다.” 나는 그 일 말고도, 어렸을 때에 여러 번 유령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강하게 믿게 되었다.

세카다에서 맞이한 첫겨울은 몹시 추웠다.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온종일 메에자(군불)를 땠는데, 우리는 겨우내 불 주위에서 살다시피 했다. 가족들 모두가 한동안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살았다. 람 형은 세 해 동안,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한 해 동안 세카다를 떠날 수 없었다. 한 해를 그렇게 간헐 지낸 우리는 이듬해에는 푸나카 림추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다. 양식 모으기가 그 곳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림추 생활은 우리 대가족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그 해 겨울에 반년 치의 식량을 모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이 두 해 만에 탈로에 다녀왔다.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에도 조카들과 함께 계속 그 곳에 살고 있었다. 림추에서 탈로까지는 닳새가 걸렸는데, 어머니는 파로 관리들의 눈을 피하려고 초승달이 뜨는 날 밤에 맞춰 그 곳에 들어갔다.

겨울이 끝나 갈 무렵, 나는 케상 당숙과 함께 겨우내 모아 뒀던 쌀 가마니들을 두 마리 말에 나눠 싣고 세카다를 향해 떠났다. 우리는 신출라 근처 두싱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은 팀푸 데첸포드랑 아래쪽 베이베나에서 노숙을 했다. 다음 날, 파조딩을 오르기 위해 아침 일찍 그 곳을 나섰다. 초코 덩에 이르러, 요기도 하고 말들도 쉬게 할 겸해서 짐들을 내렸다. 그런데 뿔나무들을 모으고 불을 붙이려던 당숙이 호주머니 속을 뒤적뒤적하며 성냥을 찾았지만, 성냥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없었다. 전날 잠을 잤던 곳에 그것을 그냥 빠뜨리고 온 게 틀림없었다. 별수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라도 불을 빌려 볼 생각으로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배는 점점 더 고평 가고, 허기를 채우지 않고는 견지도 못할 것 같았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숲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당숙이 불을 얻어 오겠다며, 그곳을 향해 바빠 떠났다. 그가 떠난 지 얼마 안 돼, 부자지간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당숙이 간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게서 성냥을 얻어 불을 피우고는, 밥도 짓고 차도 끓였다. 한참 뒤에 당숙이 불 붙인 나무 두 토막을 들고 돌아왔는데, 불씨가 이미 꺼져 있었다. 그 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정말 배를 굶았어야 할 처지가 될 뻔했었다. 품라를 지날 때에 사향노루 무리가 보였

다. 그날은 차루나의 어느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성냥이 있었다면 아마 한테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파로에 가서야 한 티베트 상인에게서 성냥 한 통을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림푸를 떠난 지 닷새 만에 마침내 세카다에 도착했다.

외삼촌이 죽은 뒤, 그의 재산 일부가 정부에 의해 몰수되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푼초 초덴 왕비가 고맙게도 푸나카 논과 가축들을 외할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 거기에는 외삼촌의 애마 차인가 잠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왕비에게 매우 감사히 생각했다. 외삼촌의 일주기를 맞아 전가족이 탈로를 찾았다. 그때의 방문은 특별한 기억으로 내게 남아 있다. 할아버지는 림포체 법사 금상 안에 외삼촌이 입던 옷과 머리 타래, 그리고 암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을 넣고 갔다. 그 외에도, 그 상 안에는 초대 사브드룽이 조각했다는 백단향 목상과 림포체 법사의 체취가 어린 푸르바(의식용 단도)가 들어 있었다. 탈로 주민들이 우리를 따뜻이 맞아 주었다. 탈로 드중에서 람 형의 주재로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 상 제막식이 열렸다. 그 식에서 할아버지는 준비해 간 림포체 법사 금상과 탕카 한 폭, 은기 한 세트를 외할머니에게 건넸다.

탈로에 있는 동안, 나는 사촌 왕디와 함께 들짐승을 잡으려고 숲속에 울무 두개를 놓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한 아저씨가 덩달아 숲에 덫을 설치했다. 우리보다 먼저 짐승을 잡아 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이 놓아 둔 덫을 확인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보다 좀 늦게 숲에 들어갔던 한 나뭇꾼이 누군가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보니, 그 아저씨가 아픈 한 쪽 다리가 올라미에 걸린 채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나뭇꾼의 도움으로 살게 된 그는 나중에 우리를 보자. 우리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면서 엉뚱하게 우리에게 분풀이를 해댔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쇠화살촉을 우리에게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겨울에 림추로 떠날 때, 소들을 하아 사마 사람인 이웃에게 맡겨 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되찾았다. 그는 우리 소를 돌봐 준 대가로 그 동안 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가졌다. 림추에도 우리 가족 소유의 소가 몇 마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곳에 가서도 소 치는 일을 계속 해야 했다.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동안, 나는 다른 목동들과 보통 깊(20 미터쯤 떨어진 과녁에 살을 던지는 놀이)을 하며 놀았다. 그 놀이에 싫증이 나면 담쟁이덩굴을 그네삼아 타기도 했다. 림추 주변의 아열대 숲에는 덩굴들이 열기설기 얽혀 있는 참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하루는 비탈 진 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그네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덩굴에 널판자를 묶었는데, 모두가 먼저 그것에 올라타기를 주

저했다. 그때 한 친구가 대답하게 그 위로 몸을 실었다. 우리가 그의 뒤를 세게 밀자, 그녀가 멀리 날아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가 제 자리로 한 번 돌아오기도 전에 덩굴이 부지직하며 끊어지며 그가 저 만치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밑에 처받히다시피 한 그가 도와 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허리띠들을 얼른 풀어 잇고, 그것을 다시 갈고리 모양의 단단한 막대기에 묶은 뒤에 그 줄을 밑으로 내려보냈다. 그가 가까스로 생명줄을 붙잡자 그를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꼴이 단단히 나 있었다.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우리와 다시는 소를 같이 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소 세 마리를 이끌고 가 버렸다. 그러나 그 친구는 우리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마음이 누그러져 다시 돌아왔다. 혼자 소 치는 일이 몹시 따분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집을 하며 놀고 있는데, 양철히라는 암소가 뭔가에 놀란 듯 불안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났다. 이상한 느낌이 든 우리는 양철히가 향하는 쪽으로 따라가 보았다. 그런데 친구의 황소 한 마리가 바위 지대에서 늑대들의 공격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가 나타나자, 늑대들은 우리를 향해 엄니를 들어내며 으르렁댔다.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 쪽으로 들고 있던 막대기들을 내던졌다. 한 놈이 막대기에 맞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러자 나머지 늑대들도 겁을 먹었는지 뒷걸음질을 치며 내빼기 시작했다. 쓰러진 황소의 배를 밟고 고기를 뜯어먹던 놈은 다른 늑대들이 다 도망가고 난 뒤에야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람 형이 삼년 은거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아에 있는 주네이 다를 수행지로 택했다. 세카 다보다 훨씬 더 험한 곳에 위치한 그 암자는 바위투성이 산을 올라가야 닿을 수 있었는데, 절에는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제자인 한 노승과 절을 돌보는 재가 신자 한 사람만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곳에서 람 형에게 여러 수행법과 의식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도 할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메트롭과 초이 초드 같은 경전들에 입문했다. 그러나 나의 주된 임무는 공부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람 형을 시중드는 일이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들이 세수할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이 세수를 마치면, 그들에게 할머니가 만든 버터차와 밀가루, 고추 소스를 아침 공양으로 올렸다. 그리고 열 한 시가 되면 점심 공양을 올리고, 여섯 시에는 저녁 공양을 준비했다. 그 외에도, 나는 시간 나는 틈틈이 토르마(가루반죽으로 만든 의식용 상)와 버터등들을 만들었다. 주네이 다의 노승은 우리가 그 절에 들어온 지 두 달 뒤에 입적했다. 그 스님은 날마다 상초에코르를 향해 수도 없이 절을 했다. 그의 이마와 손과 무릎이 닿았던 지면이 닳아 오목하게 패일 정도였다. 그는 차분한 모습으로 열반에 들며 이승에서 자

신의 램(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을 친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해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계곡 아래에서 화장했다. 그 사이 램 형은 절에 있으면서 그의 극락 왕생을 비는 제를 올렸다.

삼년 수행을 끝내고, 램 형은 하아 지방에 있는 삼바이카와 두르타사로부터 마을제를 치러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형은 그 여행에 초글레이 스님의 제자인 한 중속환이를 대동했다. 두르타사 주민들은 우박 때문에 자주 공들여 지은 일년 농사가 폐작되고 있다면서, 형에게 그것을 좀 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서 형은 그 마을에 이레를 머물며 마을제도 지내고, 절 건립 봉축 법회도 열어 주었다. 후에 그 지방에 단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삼바이카로 통하는 길은 골짜기 아래로 자갈들이 떨어질 정도로 매우 좁고 험했다. 형은 그 마을에 가서도 두르타사에서와 같은 일들을 했다.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형에게 소를 시주했다. 그 마을을 떠날 무렵에 길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 좁은 길도 넓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걸었다. 조심조심 밟을 옮기던 우리는 테이콜라 고갯길에서는 눈에 깊이 찍혀 있는 족히 한 자는 넘어 보이는 괴상한 발자국들을 보게 되었다. 예리한 발 모양으로 보아 설인이 지나간 흔적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지방 산악 지역에 설인이 산다는 소문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램 형은 신자들의 충고도 있고 해서, 림추나 탈로에 가는 일은 되도록 삼갔다. 그래서 세카 다에 여덟 해를 사는 동안 그는 탈로에는 외삼촌 일주기 때에 한 번 갔고, 림추에는 두 번 다녀왔을 뿐이었다. 어느 해 겨울에 삼치로부터 하룻길인 텐추카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눈에 대나무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램 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사람들 수만큼이나 그들의 걱정거리도 다양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초타라라는 브라만은 자신의 아들 간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형에게 부탁했다. 열다섯 살 된 그의 아들 이름이 마일라였다. 형은 그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특별 주문 기도를 올렸다. 다행히 그의 병세가 나날이 차도를 보여, 나중에는 발작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초타라는 매우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서 그에 대해 사례했다. 왕축 형은 그 자리에서 마일라와 친구 결연을 맺었다. 그 인연으로 초타라와 마일라는 당시 왕축 형이 하던 무역 일을 돕게 되었다. 형은 텐추카와 뚝추첸으로부터 옥수수 같은 곡물들을 사들인 후, 그것들을 다시 티베트 초모로 수출하고 있었다. 그 해 여름에는 그가 하는 장사가 잘 되어, 가족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형은 22 파티(1 pathi ≒ 1.6 kg)들이 옥수수 두 자루를 한 자루에 2 루피씩 주고 산 뒤, 그것들을 두 필의 말에 나눠 싣고 여드레나 아흐레 걸려 초모에 가서 두 자루에 최고

20 루피를 받고 팔았다. 갖고 간 것들을 다 팔면 세카 다로 돌아와 이틀을 쉬고, 다시 덴추카로 떠났다. 사업이 잘 되어 일 년 후에 형은 말 한 마리를 더 샀다.

세카 다 생활은 평화롭고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체왕이라는 사람이 별안간 나타나면서 그런 생활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 집 가보들을 빼앗아 오라는 파로 펜톱의 명을 받고 와서 계획대로 물건들을 훔치고 달아났다. 그때 그가 강탈해 간 물건들이 은병 두 개와 은기 한 세트였는데, 그것들은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유물들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파로 친척들로부터 급한 전갈을 받게 되었다. 체왕과 타제에라는 사람이 곧 우리 집에 들이닥칠 것이니, 젊은 사람들은 잠시 어디로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소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일 뒤에 두 사람이 세카 다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램 형이 열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보물함 두 개를 바위틈 속에 숨겼다. 할머니가 빨리 어디로 가 숨어 있으라고 하며 우리 삼형제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두 형은 루수카 친척 집으로 가고, 나는 작은할아버지 댁에 숨어 있기로 했다. 그들은 세카 다를 살살이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자, 작은할아버지 집까지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층에서 뛰어내려 형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 곳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날 밤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달빛이 없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우리가 부주 초르텐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반짝하며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그 순간 램 형의 발 아래가 바로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딛어도 그 밑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다. 나와 왕축 형은 그것을 보고, 마력에 빠져 드는 것 같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램 형을 보호하는 어떤 숭고한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게 되었다.

우리는 친척 집에 이틀을 숨어 있었다. 그런데 친척들도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 곳에서 하아 드종으로 은신처를 다시 옮겼다. 드종에 있는 동안에는 램이라는 아줌마가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와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아버지는 총각 시절부터 따르는 여자가 많아서 그때까지도 알고 지내는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행실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 무렵에 공짐의 심부름으로 칼림퐁에 가 있었다. 체왕과 타제에는 친척집들을 찾아다니며 귀중품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지만, 친척들은 끝끝내 아무 것도 내주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에는 우리 집에 있는 신상과 부모님 옷가지들을 챙겨 갖고 가며, 두 달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떠났다. 나와 왕

축 형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맞춰 하아 너머 고개로 마중을 나갔다. 아버지를 만난 뒤에 그에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죄다 얘기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심란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한참을 서 있었다.

무례한 불청객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 해가 1940년이 었다. 불청객들이 저지른 만행을 핑계 삼아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 려 했지만, 파로 펜롭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빗대어 말하며 반대했다. “우리 나 라에 종정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장례는 종정 스님에게나 어울 릴 법한 거 아니오.” 세카 다 생활이 여덟 해째로 접어들 무렵, 우리는 가족 안 전이 다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 곳에서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 다.



7. 미니어처 예술의 대가

나의 할아버지 쿠엔가 켈첸의 생가는 하아 타추 고엠파로, 그는 가셀로 출신의 증조부 노브 켈첸과 하아 출신의 증조모 펜캄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자식 중 넷째였다. 할아버지는 고향과 파로 라고에에서 6년 반에 걸쳐 엄격한 수행 생활을 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란색 옷만 입고 다닌다 해서, 그를 가리켜 ‘참고 썸(황의의 수행자)’이라 불렀다. 일찍이 림포체 법사가 머리에 흑이 있고 배꼽에 세 점이 있는 스님이 남쪽에서 올 것이라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예언에서처럼 배꼽 위에 세 개의 큰 점과 머리에 도드라진 흑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림포체 법사가 예언한 사람이라 여겼다.

할아버지가 소시에 수행 생활을 할 때, 증조부의 제구와 부적들을 넣은 함을 사람들이 쉽게 닿지 못할 바위 틈 속으로 던져 버린 일이 있었다. 그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한 증조부가 그에게 그 연유를 묻자, 그는 점잔을 빼며 대답지 않은 대답을 했다.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저 곳에 잘 놔 둔 거예요.” 증조부는 그런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증조부의 뜻에 따라 할아버지는 다섯 살 때에 더 많은 교법을 배우기 위해 중앙교단에 입교했다. 그는 교단에서 하아가 고향인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 스님이 제자의 숙식과 학업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그는 파로 드룩겔 드종에서 수행 생활을 할 때에 역기를 들며 체력 단련에도 꾸준히 힘을 썼다. 그 드종 뜰에 대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스님들이 종종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그것을 들고 경내를 한 바퀴 돌아 보려 했지만, 한 바퀴를 다 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포를 어깨에 올려 놓고 몇 바퀴를 돌았다. 할아버지는 또 아무도 들지 못했던 드종 부근에 있는 육중한 둥근 돌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다. 내가 젊었을 적에 장사일로 파리로 가던 중, 그 돌의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려고 친구들과 함께 부러 드룩겔 드종에 들린 적이 있었다. 나는 용을 쓰며 들어 보려 했지만, 그 돌은 마치 땅속에 박혀 있기라도 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쿠엔가출렁을 지을 때도 무거운 목재들은 할아버지가 혼자서 다 지고 지붕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힘깨나 쓰는 두 사람과 동시에 팔씨름을 한 적도 있었다. 한 쪽이 상대방의 주먹을 꽉 쥐어 빼내지 못하게 만들면 이기는 시합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시합에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의 주먹을 힘껏 빼내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엄지손가락을 좀 다치고 말았다.

1910년에 할아버지가 성지 순례를 하던 중에 티베트 수도 라사를 방문했다.

당시 중국군 점령하에 있던 라사는 긴장감이 감도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13 대 달라이 라마도 2 년째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내 거리를 걷던 할아버지가 한 중국군이 티베트 상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군인은 상인의 물건들을 걷어차고, 그의 머리를 잡아채며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러다가 군화 발로 그 가엾은 사람의 가슴을 차자, 그는 힘없이 땅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민 할아버지가 군인을 향해 칠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깜짝 놀란 그가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할아버지의 억센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가 계속 대들며 할아버지의 셔츠를 잡아 찢자, 할아버지는 화가 더 치밀어 올라 그를 세 차례 더 두들겨 패어 실신하게 만들어 버렸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른 부탄 영사관으로 몸을 피해, 중국 공안원들이 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그 곳에서 몇 일간 숨어 지냈다.

할아버지는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두바 립포체(게세이 세랍 도르지) 같은 선지식도 할아버지의 학식을 찬탄할 정도였는데, 그는 할아버지와 수학 동기로 네팔의 고명한 스님이었다. 두 사람은 파로 탁상에서 티베트 캄 출신의 아트사라 립포체 스님에게서 신성한 비법을 전수받았다. 할아버지와 불교 토론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두바 립포체 스님은 그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저는 각처로 높은 학덕들을 좇아 다니며 열 여덟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반께서는 이런 시골 구석에만 계셨는데도 학문이 저보다 높으니 어찌 된 영문인가요? 필시 그대의 전생에 그런 업을 쌓았나 봅니다.”

당대 최고의 불교 논객으로 평가받던 게세이 라람바가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과 담론을 나누고자 티베트에서 상츠에코르를 찾은 일이 있었다. 그는 공식 토론에서 경전 표지인 목피를 몸에 두를 자격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곧 경전임을 뜻하는 것으로, 그 만큼 삼장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증표였다. 그는 초글레이 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표한 뒤, 중국제 봉도직 한 필을 내놓으며 자신과의 토론에 응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초글레이 스님은 그의 요청을 완곡히 물리쳤다. “송구합니다만, 쿠엔가출링에서 수행중인 저의 제자와 토론을 한번 해 보면 어떨지요? 혹시 그와의 대화에서 어떤 명쾌한 요점이라도 얻게 되신다면, 그때 저를 다시 한 번 찾아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무렵에 삼년 은거에 들어가 있었지만, 천리를 마다 않고 찾아온 귀한 손님을 그냥 박정히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은 일절 하지 않고, 그 대신 석판에 글을 써서 그것을 주고받으며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이 무르익을수록 게세이 라람바는 할아버지의 박학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이 다 끝났을 때 그는 쾌재를 불렀고, 진심 어린 기쁨의 표시로 할아버지에게 중국제 봉도직 세 필을

선사했다. 이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부탄제 직물 다섯 필로 그에 답례했다. 할아버지는 봄탕에 사는 아시 왕모라는 비구니와도 학문적 교류를 했다. 우겐 왕축 왕의 딸이었던 그 여승과의 인연은 할아버지가 입적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 스님이 할아버지에게 직물 아홉 필을 선물로 보내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의 주요 신앙의 대상은 장수와 부의 여신인 체링마였다. 쿠엔가출링 신전에 안치되어 있는 체링마 신상은 할아버지가 직접 공들여 만든 작품이다. 할아버지가 쿠엔가출링에서 수행하던 시절에 체링마 찬가를 짓는 일에 골몰해 있던 때가 있었다. 하루는 그 생각에 지쳐 그냥 탁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탁자 위에 은화 한 닢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글 지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한 번 시작해 보세요.”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곧 사라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장문의 기도문을 완성했다. 기도문의 주내용은 체링마 여신의 자비로 자손들을 보살피며, 그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기도문은 푸나카 노브강에서 매년 거행되는 삼일제에서 암송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그의 출중한 조각술을 여러 곳에서 선보였다. 1905년에 화재로 전소되었던 파로 드종이 재건되면서 상들도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명장(明匠) 코타 룬이 거불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몸통을 만들고 나중에 두부를 조각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 고충을 초글레이 스님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스님은 그 일을 나의 할아버지에게 의뢰했다. 그리하여 그 일을 떠맡게 된 할아버지는 상초에코르 드종 잔디밭에서 몇 날 몇 일 동안의 정성 어린 작업 끝에 점토로 불상(佛相)을 만들어 내었다. 그 부처의 상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며 할아버지의 공을 치사했지만, 그는 그 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스승인 초글레이 스님에게 돌렸다. 그리고 팀푸와 파로, 트라시강, 트롱사 드종들에 있는 상들 대부분도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역작들이다. 특히 미니 상들을 갖춘 소형 제단은 할아버지의 수준 높은 세공술을 가늠케 해 주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것은 일종의 이동용 신단으로 쿠엔가출링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타추 고엠펜에 있는 불상과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상 역시 할아버지의 작품들이다. 그 상들은 상초에코르에서 제작되어 나중에 가마로 타추 고엠펜으로 옮겨졌는데, 부피가 너무 커서 이층 창문들을 뜯어내고서야 신당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초글레이 스님이 열두 행의 멜롬 드루가이(기도문)를 각자의 엄지손톱 위에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지 겨루었던 적이 있었다. 초글레이 스님은 그것을 원형으로 깨알같이 써 내었고, 할아버지는 끈게 써 내려갔음에도 여백을 조

금 남겼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는 자신을 초들지 않고, 그의 라마 솜씨가 더 훌륭하다고 말했다.

강골이었던 할아버지는 두 해 가까이 부중에 시달리면서도 자리에 누워 지내지 않았다. 그런 꺾꺾한 기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 나이보다 더 젊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천수가 육십 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순 살에 접어들었을 때에 버티등 천 개를 신전에 바쳤다. 그러나 그로부터 여섯 해를 더 살았다. 할아버지는 림포체 법사가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명이 여섯 해가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나이 예순여섯이 되던 해의 정월 스무 날에 그는 타추 고옴파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던 타시 체왕 작은할아버지와 스님들을 세카 다로 오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그날이 자신의 명이 다하는 날이라 말하고, 자신을 위해 특별 문람(기도)을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삼가고 임종 준비에 들어갔다. 황색 법의로 옷을 갈아입고, 꺾꺾을 뒤쪽에 놓고, 주위에 발을 쳤다. 그리고 버티등을 켜고 성화(聖畵)들을 펼쳤다. 스님들은 몹시 겸연쩍어 하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누가 죽은 뒤에나 하는 특별 기도를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 앞에서 행해야 했다. 기도가 다 끝나자, 할아버지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유혼을 듣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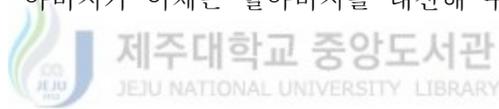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방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가족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 손자들의 앞날을 많이 걱정했다. 비통한 심정으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할머니가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며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잔에 담은 달콤한 사프란 쌀을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어 먹은 뒤, 한숨을 내쉬고는 곧바로 열반에 들었다. 아버지와 람 형이 얼른 그의 주위로 휘장을 쳤다. 우리는 어른들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왔다. 나는 갑작스레 전개된 일에 정신이 얼떨떨했다. 방금 전까지도 우리와 얘기를 나누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별안간 숨을 거두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진 일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할아버지는 걸가부좌 자세로 열반에 들어, 사흘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사흘째날, 그의 머리가 한 쪽으로 약간 기울며 코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기도가 다 끝나고 화장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비식은 루수카 부근에 있는 엽세이 사리에서 거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우리 가족이 집을 지으려고 전에 사 두었던 땅이었다. 땅을 고르고 초르텐 모양으로 장작을 쌓은 뒤, 장의에 참석하는 스님들을 위해 천막 네 개를 쳤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비식이 람 형의 집전으로 진행되었다. 화장을 끝내고 스님들

이 독송을 하고 있을 때, 세카가 초르텐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봐요! 할아버지가 돔(난쟁이 폴로 만든 음식)을 마시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다. 깨끗한 의지를 지닌 할머니도 집안의 대사만큼은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다예를 본받고 싶어 열심히 배웠지만, 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람 형의 강한 집중력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자신의 스승이 손자로 환생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람 형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의 주된 삶의 임무로 여겼다. 그의 그런 노력 덕에 람 형은 위대한 라마의 자질을 갖춘 종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궁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할아버지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궁술 실력은 하루에 스물다섯 발 정도의 화살을 과녁에 명중시킬 정도로 대단했다. 그는 그런 실력을 하아 대 파로 궁술 대회에 여러 번 참가해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캥쿠 겐 체링이었다. 두 활량은 과녁에 꽂힌 서로의 화살들을 번갈아 떨어뜨리는 놀라운 기량을 보여 주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나이가 마흔 넷이었다. 아버지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8. 페동 고옴파의 라마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우리 가족은 인도를 향한 두 번째 여행 길에 올랐다. 여행을 화급히 서두르게 된 것은 칼립풍으로 돌아오고 있던 소남 톱계 공짐을 가는 도중에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파로 펜톱의 군대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 설 경우에 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람 형은 말을 타고, 여동생 둘은 하인들의 등에 업혀 길을 나섰다. 어디쯤에서 타추 페마의 아들 체왕 페마가 말들을 이끌고 우리와 합류했다. 1933년에 티베트로 피난할 때에 우리 가족과 동행했던 꺄첸 당숙은 그때도 우리의 호위역을 자임해 맡았다. 우리 가족이 먼 길을 떠날 때마다 당숙모가 그에게 우리와 동행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평소에도 우리 집의 일을 제 일처럼 도우려는 사람이었다. 나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 사이에 정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크게 마음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을 내심 반겼을 것이다.

여행 이레째 되는 날, 우리는 시킵 왕국의 수도 강톡으로부터 6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경에서 쌓인 여독도 풀고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고개 위로 사원-엔체이 고옴파- 하나가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금빛 돛형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하고 빛났다. 람 형이 그 절을 바라보며 반가이 말을 했다. “절은 우리가 신세를 지기에 좋은 곳입니다. 강톡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테니, 하루나 이틀쯤 저 곳에서 쉬다 가면 어떨까요? 누가 가서, 부탄의 트롤쿠 초글레이와 그의 가족들이 의지처를 찾고 있는데, 그 곳에 잠시 유할 수 있는지 알아 봐 주십시오.” 그래서 꺄첸 삼촌과 케상 당숙이 그 절에 가서 묻고 오기로 하고, 그 곳을 향해 바삐 떠났다.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지 수심 어린 얼굴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식솔들이 많아, 저 곳 사람들이 쉬이 거처를 내줄지 모르겠구나. 기도나 해 보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일이 잘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엔체이 고옴파의 주지 야블라 스님이 먹을 것과 차를 내놓으며 우리를 따듯이 맞아 주었다. 사십대 중반 나이쯤으로 보이는 그 스님은 검은 피부에 키가 작았지만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부탄의 고명한 라마가 자신의 절을 찾은 것을 매우 영광스레 생각했다. 우리는 본당에 딸린 방에 묵게 되었다. 엔체이 고옴파는 삼층 사찰이었는데, 이층에 키가 큰 티베트 라마승이 거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늙고 몸은 야위었지만 학식이 깊은 스님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시킵과 부탄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아서 그 곳 생활이 아주 편했다. 종교도 같고, 언어와 의복, 그리고 음식도 비슷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편하게 해 준 것은 야블라 스님의 따뜻한 마음씨였다. 스님은 아버지에게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대형 천막 한 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다행히 아버지는 천막 짜는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모두가 합심해 머지 않아 좋은 천막 하나를 완성해 냈다. 야블라 스님은 우리가 만든 천막에 매우 만족해하며, 쌀과 고기, 버터로 그에 대해 사례했다.

람 형은 주지 스님과 라마승의 주선으로 시킴의 초에갈 타시 남겔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엔체이 고옴파에 머문 지 여덟 달이 다 될 무렵이었다. 그때, 아버지와 왕축 형, 나도 람 형과 함께 왕궁에 들었다. 우리는 화려한 탕카들이 걸려 있는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금색 목탁자와 의자들이 환히 눈에 들어왔다. 진황색 부직을 몸에 두르고 옥좌에 앉아 있던 왕이 그의 동그란 안경테 너머로 람 형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람 형이 먼저 시킴 생활이 아주 편하고 즐겁다고 인사를 올리자, 왕은 형에게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다 가시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이 초글레이의 화신들과 불교에 관한 화제로 담소를 나누는 사이, 차와 푸짐한 오찬이 우리 앞에 차려졌다. 나는 성찬을 앞에 두고도, 들뜬 마음 탓인지 몇 순갈밖에 뜨지 못했다.

가는 곳마다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의 제자들이 우리 가족을 도왔다. 칼림퐁 근처의 도렘첸에 초글레이 스님의 제자 참 계 움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루는 그의 조카 참 라타가 람 형을 예방하고, 부탄인들이 많이 사는 알가라나 폐동으로 가서 살 것을 권했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큰 눈망울과 긴 턱이 인상적이었던 그는 카규와 닝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직한 재가 신자였다. 그는 하야 카초가 고향이었지만, 폐동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폐동으로 가서 직접 그 곳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강푼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그 곳을 가 보게 되었다. 칼림퐁에서 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폐동은 해발 1,500 미터 고지의 완사면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도회지였다. 참 라타의 말처럼, 그 곳은 정말 부탄의 분위기가 물씬물씬 풍겼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사십여 채의 부탄 가옥과 주변 풍경들이 마치 고향에 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첫눈에 그 곳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우리 가족이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집이 나올 때까지 이웃 마을 알가라에 살고 있기로 했다.

우리는 알가라에서 덕 사협이라는 점잖은 주인의 콘크리트집에 일 년간 세 들었다. 아버지는 그 무렵에 짐말 두 마리를 샀다. 자동차가 드물던 194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말이 가장 보편적인 교통 수단이었다. 칼림퐁까지 말을 타고 천천히 가더라도 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루는 칼림퐁에 말을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던 중에 텐진 노브가 타고 있던 누런 말이 갑자기 내닫다가 포장 도로

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 바람에 그도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텐진 노브는 우리 집에 살며 가사를 돕던 부탄인 부부의 아들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사고에 관해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대로에서 말을 질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던 양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텐진 노브가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고생해야 했다.

참 라타의 후원으로 람 형이 트리(법회)를 열었다. 법회를 준비하는 데만도 몇 주가 걸릴 정도로 이것저것 갖춰야 할 것이 많았다. 법석에 쓰일 목재들은 다 알가라에 사는 부탄인 산림 감시원이 됐다. 제주는 참 라타였고, 왕축 형과 나도 법복을 입고 제관 노릇을 했다. 법회가 열리는 들판 주변으로 어린 상록수들이 많이 자랐다. 알가라와 폐동은 물론 칼림퐁과 돌랩첸 등지로부터 수백 명의 회중들이 들판으로 모여들었는데,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다. 법회는 열 사흘간 지속되었고, 법회 중간에 자매결연 의식도 있었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제비뽑기로 일곱 사람을 선정해 결연을 맺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결연된 사람들은 전생에 서로 인연이 있었다고 믿었고, 차를 마시며 그들간의 결속을 다졌다.

폐동의 쿠참(지역 대표자)인 켈 도르지가 람 형의 설법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다. 법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몇 일 후, 켈 도르지와 폐동 고옴파의 주지 스님이 람 형을 예방했다. 그들은 형에게 폐동 고옴파의 라마가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수락 조건으로 절에 딸린 논들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집도 절도 없는 우리로서는 그것은 매우 반가운 제의였다. 형은 그들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후, 우리는 폐동 고옴파 논에서 거둬 들이는 곡식으로 생계를 세울 수 있었고, 람 형도 폐동 람이라 불릴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형은 주민들의 초청을 받고, 집집을 순회하며 그들의 대소사를 치러 주었다. 아기 이름을 지어 주는 일에서부터 집안의 무사 평안을 축원하는 의식, 그리고 병자나 망자를 위해 치르는 의식까지 하는 일이 다양했다. 그러는 사이, 람 형은 자연스럽게 폐동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켈 도르지는 부탄인으로, 열세 살 때부터 오랫동안 우젠 왕축 왕을 모셨다. 그가 카지 직위를 수여받았을 무렵인 1911년에 조지 왕 대관식 참석차 텔리 다르바르로 떠나는 국왕을 수행한 일이 있었다. 그때 국왕 경호 임무를 맡은 백명의 군인들이 부싸 두아르 기차역에 집결했는데, 일부 군인들이 기차 소리에 놀라 허둥대는 소란이 일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부탄에 돌아오자마자, 켈 도르지는 군인들에게 기차 승차 방법을 사전에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에게 문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폐동에 들어와 살게 되었

고, 얼마 안 있어 그 지역 13 개 마을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다. 폐동 이웃 마을인 사초에는 그의 넓은 저택과 토지가 있었다.

해마다 팽 도르지 쿠참의 저택에서 잔치가 열렸다. 나와 왕축 형도 의식 주재를 맡은 램 형을 따라 그의 집에 갔었다. 낮에 의식들을 다 끝내고, 저녁 무렵부터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다. 고전 무용에 숨은 재주가 있던 왕축 형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춤 솜씨를 뽐냈다. 노령인 팽 도르지는 젊은 아내와 살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정네에게 혹시 추파라도 던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잔치 내내 아내를 그의 시야에 붙들여 두려 했다.

람 형이 여러 집을 돌며 의식을 치러 주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날은 얼마간의 사례비와 식사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의식을 한 번 치러 준 대가로 받는 돈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는데, 보통 알가라에서는 8 아나이고 폐동에서는 1 루피였다. 어느 부잣집 장례식을 치러 주고 5 루피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수입과 논에서 나는 곡물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한 해를 살아 가기가 버거웠다. 더군다나 의식들이 일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거리가 없는 시기에는 생활이 많이 쪼들렸다. 어느 해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양돔(보물함)을 열어, 그 안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보물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판 돈으로 쌀 한 바리를 사서 끼니를 이었는데, 그것마저 얼마 못 가 바닥이 나 버렸다. 그 후로는 옥수수로 근근히 연명해 나갔다. 부모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은상만큼은 절대 팔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각 끝에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제에 두 개를 80 루피를 받고 팔았다. 당시 우리 처지에 그 돈은 상당한 거금이었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그 힘겨운 시기를 견디어 내었다. 폐동 생활 초기에는 것처럼 생활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다. 그러나 램 형에 귀의하는 부유한 신자들이 차차 늘어났고, 그에 따라 웅색하던 살림도 많이 퍼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제단을 주문받아 제작했다. 제단 한 개를 짜려면 넉넉잡아 넉 달은 걸렸으니까, 무척 수고로운 일이었다. 나도 케상 당숙과 왕축 형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거들었다. 수고한 만큼의 보답은 돌아왔지만, 목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유능한 목공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세 명의 견습생- 타시 도르지, 칼루, 체링 -을 밑에 두고서 무료로 가르쳤다. 그들은 후에 우리 가족이 귀국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탄에 들어와 중앙교단에 입교했다.

1942년에 막내여동생 남가이 움이 태어났다. 그리고 한 해 뒤에는 왕축 형과 자이잠 형수 사이에 딸 세라 움도 태어났다. 형수는 형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여덟 아이를 둔 과부였다. 그녀의 딸아들이 형보다 무려 스무 살이나 더 많았다. 펴 도르지 쿠참의 친척이었던 그녀는 폐동 사원 바로 건너편 저택에 살았는데, 집안 살림을 잘 꾸린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형이 곱살한 용모에 온순한 성질을 가졌던 반면, 그녀는 큰 키에 이목과 성격이 시원시원한 여자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사되었다. 형은 장가간 뒤에도 우리 집안의 일을 계속했고, 형수가 이따금 시집으로 음식을 보내 왔다.

큰누나 세라 펴이 칼림퐁 여고에 입학하고, 세카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폐동 학교에 들어갔다. 남가이 움과 세라 움, 그리고 이복동생 체왕 잠의 딸 체링 온도 후에 폐동 학교를 다녔다. 체왕 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촌 아시 시투 베다 사이에서 1921년에 태어난 동생이다. 체왕 잠이 뱃속에 있을 당시에 할머니가 태어날 아기가 아버지의 혈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월 마지막 축일에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말대로 그 애는 정확히 그날에 세상에 나왔다. 체왕 잠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할머니는 새벽 세 시면 일어나 예불을 올렸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면, 모든 식솔이 일층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그렇게 조반을 든 후 낮 시간에는 제각기 자기 일들을 했다. 램 형은 위층 내실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고, 아버지는 목공일을 했다. 할머니와 체왕 잠은 경내를 거닐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 도란도란 정답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생각나면 본당을 향해 무수히 배례를 했다. 폐동 주민들 대부분이 부탄인들이기는 했지만, 쓰는 말이 많이 달라 그들과 의사 소통하기는 힘들었다. 어머니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여가가 별로 없었다. 틈이 날 때도 우리에게 입힐 옷들을 지었다. 램 형은 당시 중풍을 앓고 있는 다르제엘링에서 온 학생을 진언과 기도로 치료해 주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영어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있었다. 여동생들은 절 앞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했다. 나와 렌케이도 가끔 그들과 함께 어울려 물장구를 치며 재미있게 놀았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정자에 앉아 우리가 노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곤 했다.

나는 보통 이층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뒷마루에 나갔다가, 놀랍게도 삼 주 전에 죽은 한 노파를 보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잔디밭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도 매일 밤 그렇게 목욕을 하곤 했었다. 사망이 중요한 시각에 물을 끼얹는 소리가 생생히 내 귓전을 때렸고, 그와 동시에 내 심장도 마구 뛰었다. 난간 밖으로 목을 내밀면서까지 자세히 보았지만, 영락없는 그 할머니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몇 번 더 보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부터는 밤에 혼자 나다니기가 꺼림칙했다.

람 형이 이질에 걸려, 다르제엘링에 있는 플랜터즈병원에 석 달 동안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다. 그 동안 왕축 형과 내가 큰형을 간호했는데, 우리는 참 라타의 주선으로 병원 근처의 고음 사원에서 신세를 졌다. 어느 날, 춤비 바부라는 한 똥똥한 시킴인 사업가가 람 형을 문병 왔다. 오십 줄로 보이는 그는 고맙게도 람 형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 주었고, 병원비까지 내 주었다. 우리 가족은 그의 초대로 다르제엘링 경마장 너머에 있는 그의 멋진 방갈로에서 한 주를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그 곳에 있는 동안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잠시나마 맛보았다. 여러 색깔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운동과 레저를 했고, 경마장 구경을 갔을 때는 자신들의 말을 응원하고 있던 소남 톱게 공짐과 펠 도르지 쿠잡을 만났다. 그리고 초우라스타 변화가에서는 영국인 소년과 노부인들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 무척 흥미를 끌었다. 말들의 고삐를 잡고 걷는 사람들은 티벳인과 셀파인들이었다. 노스포인트와 성바울, 로레토 수도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말을 타고 와, 만화책과 아이스크림을 사 가는 모습들도 신기해 보였다. 그때 우리 가족은 힌두 영화관에 처음 가 보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영화 구경은 부모님에게 좋은 취미가 되었다.



9. 순례자와 장들뱅이

나는 열여덟 살이 되던 해인 1943년에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보드 가야 순례 여행에 나섰다. 그때 우리 말고도 삼십여 명의 순례자가 더 있었다. 우리 순례단은 기차로 가야까지 가서 그 곳에서 마차로 갈아탔다. 왕축 형과 나는 좋은 일손이 되었다. 우리는 공물로 바칠 버터등들을 무수히 만들었다. 점토로 잔을 빚어 그 위에 심지를 붙이면 등 하나가 쉬이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여간 따분한 게 아니었다. 보드 가야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에서만 한 주를 보냈다. 그 동안 램 형은 신성한 보리수 옆에서 줄곧 명상을 했다. 램 형이나 아버지 모두 성지가 자아내는 신비스러움에 깊이 감동을 받은 모습들이었다.

우리는 라즈기르와 바라나시, 그리고 사르나트까지 답사했다. 그런데 폐동을 향해 돌아오던 길에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고열 증세를 보이며 아프기 시작했다. 캄바 왕디라는 사람이었는데, 금세 제 몸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병세는 속히 악화되었다. 어느 기차역에서부터는 어쩔 도리 없이 내가 그를 등에 업고 가게 되었는데,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마치 잿불처럼 뜨거웠다. 그는 안타깝게도 병이 난 지 사흘 만에 별다른 손도 못 써 보고 죽고 말았다. 그의 시신을 화장해 장사를 지낸 뒤에야 그가 천연두를 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매장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지만, 그의 병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던 우리로서는 그를 화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뤄야 했다. 캄바 왕디가 죽은 지 한 주가 지날 무렵에 성지 순례에 함께 다녀왔던 내 친구 사초가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다. 건강 회복을 빌어 달라는 그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우리 몇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의식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 사초가 우리가 있는 방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쳐들어왔다. 그의 물결이 말이 아니었다. 헬썩해진 얼굴은 흡사 꽃양배추를 보는 듯했다. “살려 줘! 나 좀 살려 줘요!” 그는 막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몇 마디 소리치고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폭 쓰러졌다. 우리는 그 모습에 모두 기겁을 하고 도망치듯 그 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가족들이 우리도 그 병에 전염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눈에 움막을 짓고 그 곳에서 삼 주 동안이나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가족들이 눈독에 놓고 간 음식들을 갖다 먹으면서, 데고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며 팔자 좋게 시간만 빈둥빈둥 보냈다. 그런데 뎀보 소나가 그런 무료한 나날을 참지 못해 뛰쳐나갔다가 그의 집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죽었고, 열여섯 나이의 바자이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허무하게 숨을 거

두었다.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을 등에 업고 가기까지 했던 나는 아무 탈이 없었다. 정말 천우신조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전쟁의 여파가 인도에까지 파급되면서, 우리의 일상 생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무렵에 왕둑과 찰루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다. 나보다 두 살이 많았던 찰루는 펴 도르지 쿠참의 처남으로 흰 피부에 키가 컸고, 작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왕둑은 나보다 다섯 살이 더 어렸다. 우리는 칼림퐁에서 쿠크리 단도와 술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누룩빵들을 샀다. 그것들을 실롱으로 갖고 가서 팔 생각이었다.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칼들은 납 무게 정도의 침구 속에 감추어 넣은 뒤, 실리구리에서 기차를 타서 파르푸티를 지나 랑기아에 이르렀다. 그런데 랑기아에서 검문을 받게 되었다. 한 초병이 우리가 들고 있는 짐 꾸러미가 수상해 보였는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때 찰루가 대담하게 그 초병 앞으로 나서며 그의 호주머니 속에 돈 몇 푼을 집어 넣었다. 그러자 그가 주춤하며 두어 발짝 뒤로 물러섰다. 찰루의 신발에 묻은 인분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뇌물 받은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눈치였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긴장된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사육에 굴복했다. 찰루의 재치 있는 행동 덕에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고, 물건들을 하나도 빼가지 않고 무사히 실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술밭으로 둘러싸인 실롱 시의 전경은 참 아름다웠다. 우리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갖고 간 물건의 절반도 팔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투가 벌어지는 마니푸르에 가면 실롱에서보다는 갑절 이상의 값으로 물건들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 당장 군용 트럭을 얻어 타서 그 곳으로 향했다. 마니푸르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폭탄들이 수시로 옆에서 터졌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목숨을 건 위험은 그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한 지 몇 일 지나지 않아, 물건들이 다 팔렸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실롱에 다시 들려 산호들을 산 뒤, 그것들을 칼림퐁으로 가지고 가 팔았다. 그 동안 번 돈의 절반을 국경 지대인 구다마(삼드롭 종카르의 옛이름)에서 카디(면직물)와 부탄제 직물들을 사는 데에 재투자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말에 바리바리 싣고, 다음 장사지인 시킴 다가 타시 덩으로 떠났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 그 곳은 한창 축제 기간이었다. 그 축제에서는 정월 보름날 자정에 테와 하티 로폰 스님의 신비한 불파(물병)가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림포체 법사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 스님이 생전에 그 병에 든 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렸다는 전설이 있었다. 병의 색깔은 짙었지만, 그것의 재질이 점토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알 수는 없었다. 전통적으로 성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쓰였다. 시킴의

왕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몫을 먼저 떼어 두고, 그 나머지 물을 커다란 동기에 부어 거기에 다른 물을 더 타서 사부 대중이 나누어 마시게 했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 보름날에 맞춰 시킴 왕과 달라이 라마가 보낸 사신들을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국내외로부터 그 곳을 찾고 있었다. 만약 병 안에 든 물이 끓어 넘치거나, 혹은 가장자리까지 다 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지 못한 징조라 여겼다. 우리는 길가에 물건들을 펼쳐 놓고 순례자나 축제 구경꾼들에게 팔았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물건들이 잘 팔리지 않았다. 우리가 아마 장사하는 데 보다 축제 분위기에 정신이 더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사흘 동안 즐겁게 돌아다녔다. 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참았지만, 먹거리랑 불거리가 아주 많았다. 저녁마다 청춘 남녀들이 나란히 마주 앉아 노래자랑을 했다. 우승자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낼 짝을 고를 수 있었는데, 만약 어느 한 쪽이 원치 않을 때는 상대에게 돈을 주고 빠져 나왔다. 셀파인들은 선 채로 서로 등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혀 꼬부라진 발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일어나 줄을 맞추고는 부르던 노래를 계속 불렀다.

우리 세 사람은 팔다 남은 물건들을 공평히 나누어 갖은 뒤, 동업 관계를 청산했다. 나는 혼자서라도 계속 장사를 해 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짐꾼 두 사람을 사서 그들과 함께 다시 장삿길에 올랐다. 우리는 두르카사와 진두카, 페두카로 떠돌며 물건들을 팔고 젓소 스물 다섯 마리를 샀다. 그러던 중에 소들을 몰고 아모추 강 유역에 이르렀을 무렵에 비가 그 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었다. 불어난 강물로 다리가 이미 휩쓸려 떠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곳에 몇 일간 눌러앉게 되었다. 그 부근에는 인도인 거주 부락인 텐두카와 그 너머 고개에는 부탄인들이 사는 오두막촌이 있었다. 서너 나흘을 아무 대책 없이 먹고 지내다 보니 식량은 곧 바닥이 났다. 언제쯤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나는 먹을 것을 좀 얻어 볼 양으로 오두막촌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곳 주민들의 생활도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들도 주식으로 먹는 콩이 다 떨어져서 말린 풀과 뿌리를 갈아 만든 가루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라도 좀 얻어야 했다. 그런데 그 가루 음식을 먹은 뒤 내 소화계가 그것에 적응을 못했던지 배탈이 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또 사흘이 지나서야 강을 간신히 건너게 되었다. 다행히 가까운 마을에서 얻은 옥수수로 그 동안에 굶었던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태껏 먹어 본 것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옥수수인 것 같았다. 페동 근처에 이르러서 쌀과 고추를 샀다. 나는 페동에서 많은 차익을 남기고 소들을 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기대만큼의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그 후로도 틈틈이 장사를 계속했다. 쌀 수확철에는 십(납작쌀로 만든 미숫가루)을 칼림퐁 시장에서 냈다. 십은 다 익기 전에 수확한 벼를 냄비에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며 적당히 볶은 뒤에 그것을 빵아 가루로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차나 우유에 타 마시는데, 버터나 설탕을 넣어 마시면 더 맛있었다. 나는 십을 버터우유에 타 마시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아버지는 장사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자신이 장사하는 사람으로 주위에 비취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목공일만 했다. 그러다 간혹 칼림퐁으로 화려한 외출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옷을 잘 차려 입고 백마를 탔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끔 하는 나들이를 즐겼고, 칼림퐁에 가서는 케상 템 아줌마네 집에서 하루나 이틀 머물다 돌아왔다. 그녀는 다우 겔첸의 딸로 하얀 살결과 날씬한 몸매에 성격도 온순해서 이웃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나다가 들리는 길손들한테도 굶겨 보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인정도 많았다. 그녀가 칼림퐁으로 오게 된 것은 칼림퐁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결혼한 후에 침을 둔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탄살림을 차린 뒤에도 케상 템이 그를 계속 충실히 섬겼기 때문에 그는 일 년 만에 다시 본처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큰아들은 한 때 출가한 적이 있었지만, 열두 살에 환속해 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는 후에 우리 나라의 재정부 장관을 여러 해 동안 지냈고, 그의 동생도 군 총사령관을 30 년간이나 역임했다.

롭바(농사 축제)와 설날에는 폐동 마을과 사초 마을이 중앙저수지 앞 활터에서 궁술을 겨뤘다. 우리는 아버지가 폐동팀을 이끌고 시합에 참가하는 동안,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한가로이 경기를 구경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점심에는 체왕 펴 당숙모가 푸짐히 차려 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시합은 항상 폐동팀의 승리로 끝났다. 궁술 대회가 열리는 날은 그렇게 온 가족이 모처럼 일상사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폐동 고옴과 바로 옆에 조그마한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네둑츄 게테이(왕년의 승려)라는 사람이 살았다. 푸나카 계곡의 내둑츄가 고향인 그는 승려 시절에 구족계를 어긴 죄로 벌금을 물고 환속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벌금 낼 돈이 없어 폐동으로 들어와 숨어 살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나 결혼한 시킴인 아내는 딸 카짐을 낳은 뒤에 죽었다. 카짐은 하얀 살결에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소녀였다. 그 애를 무척 좋아했던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관계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우리의 교제를 반대했다. 나는 당시 어엿한 스무 살 청년이기는 했어도 그들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녀를 계속 만났다. 그렇게 은밀히 무르익어 간 우리의 사랑은 그 결실로 아들까지 얻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세상에 나온 지 스무 날 만에 죽고 말았다.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우리의 관계는 카짐이 다르제엘링으로 떠나면서 결국 끝이 나게 되었다. 후에 나는 그녀가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갔고, 두 아이를 낳은 뒤에는 본처의 흑마술에 걸려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이 모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어 나는 마음이 좋지 못했다. 렌케이는 열여덟 살에 돌랩첸에 사는 레이자이와 결혼을 했다. 처제도 날씬한 몸매에 고운 얼굴을 가진 여자였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도 아들을 여의면서 한 해 만에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람 형에 귀의한 신자들 중에 압 산가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절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며 형에게 돌랩첸에 있는 그의 소유의 1300여 평의 땅을 시주했다. 그리하여 레이자이의 아버지 압 카도 씨와 그의 형 푼돌라이 씨가 성금을 모으고,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해서 불사 건립이 시작되었다. 목재도 무료로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역사에서 감독일을 맡았는데, 난생 처음 해 보는 일이었다. 나는 공사 기간 동안 돌랩첸에 살며 현장에 나갔고, 틈나는 대로 그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폐동에 다녀왔다. 상들 대부분은 아버지와 큰형이 제작한 것들이었다. 폐동 사원에 설치할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체파메와 림포체 법사, 사브드롱 상들도 모두 새로 지은 사원에 봉안되었다. 이층으로 지어진 돌랩첸 사원은 두 해가 지날 쯤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벽화가 다 그려지지 않는 않지만, 람 형이 낙성식을 열고 절 문을 열었다.

돌랩첸 사원이 완공되고 난 뒤, 아버지가 내게 왕궁으로 들어가 일할 것을 권했다. 내가 왕의 토집(시동)으로 등록한 때가 1935년 내 나이 열 살 때였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스물두 살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 대로 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10. 탈로 드종의 영검

1947년에 지그메 왕축 왕이 파로로 행차할 때에 나는 국왕 수행단에 들어 있었다. 우리는 파로를 지나 트롱사로 향하던 중 왕두에포드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날 저녁, 초에키 겔첸이 탈로 드종에 있는 재물 일부를 자신이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왕에게 청원했다. 그것들은 본래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의 것이었지만,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차시 팡캅(직물)과 타라(직물), 다르(비단), 그리고 부직 여러 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뒤, 그는 검 서른 자루와 좋은 고들도 드종에 남아 있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초에키 겔첸과 나, 움텡 체링 세 사람에게 그것들을 트롱사로 가지고 오라고 명하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좀 골라 가져도 좋다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왕이 킨가랍텐 궁으로 떠날 때에 우리는 그 검들을 가지러 탈로로 향했다.

1931년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왕두에에서 초에키 겔첸을 만난 것은 좀 뜻밖이었다. 그는 운 좋게도 당시에 단 한 차례의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인도에 다녀왔던 나머지 두 사람은 호된 신문에서 살아 남지를 못했다. 예나 그때나 죽대가 없었던 초에키 겔첸은 왕이 자신을 후대해 준 일 때문에 몹시 들떠 있었다. 그는 탈로로 가는 내내 우리의 걸음을 재촉했고, 그 바람에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탈로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탈로 드종에 들어서자마자 초에키 겔첸은 쟁쟁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 놓고, 내 옆에 서서 내가 검 고르는 것을 거들었다. 나는 검 한 자루와 청색 고 한 벌을 골라 가졌다. 초에키 겔첸은 챙긴 물건들을 그의 집으로 가지고 가, 놓아 두었다.

우리는 탈로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검들을 모두 보자기에 싸서 짐꾼 두 사람에게 지게 하고는 길을 나섰다. 그러나 트롱사로 가는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았다. 불길한 일들이 여행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며 일어났다. 그날 오후 늦게 왕두에포드랑에 도착한 우리는 드종 조마사 집에 묵었다. 그런데 저녁에 술을 곁들여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부가 헐레벌떡 우리에게 달려와서 왕의 말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렸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얼른 마구간으로 가 보았는데, 정말 말 한 마리가 견잡기 힘들 정도로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 말은 몹시 괴로운 듯 새된 소리를 지르며 앞발로 벽을 마구 걷어차다가 갑자기 폭 쓰러져서 죽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 그런 불상사가 길손들이 불운을 몰고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도 트기 전에 일찍 그 집을 서둘러 나왔다. 그날은 사 삼타이강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의 황소 한 마리가 전날 저녁에 보았던 말과 똑같

은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죽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지금 와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느 누구의 집에서도 신세를 지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를 쫓아다녔던 듯한 그 재앙들을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같은 불상사가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다.

여행 사흘째날, 우리가 리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 이층 툇마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첼렘지에서는 멀쩡하던 황소가 갑자기 또 죽는 일이 벌어졌다. 참 괴이한 일들이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들이라 보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너무 많았지만, 도대체 그 영문을 모르겠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타시딩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오후에 마침내 우리는 킨가랍텐 궁에 도착했다. 왕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검들을 보고 아주 흡족해했다. “검들이 아주 좋구나. 람은 이런 검들을 모으느라 무척 고생했을 텐데.” 명검들을 수집하는데 취미가 있던 왕은 그 만큼 검을 보는 안목이 높았다. 그 검들도 충분히 그의 소장 품목에 오를 만한 것들이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모처럼 마음 편히 음주와 가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왕은 사브드룽의 검들 중 몇 개만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모두 신하들에게 하사했다. 입궁했던 왕쥬 타제에도 왕에게 그 검 한 자루를 받게 되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그의 집으로 갖고 와서 벽에 걸어 놓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가 침소에 들어 미처 잠이 들지 않았을 때에 키가 흰칠한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파란 고에 넓은 테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위압적인 모습으로 왕쥬 타제에를 내려다보며 “내 검을 돌려보내시오!”라고 우렁차게 소리쳤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사라졌다. 다음 날, 왕쥬 타제에는 전날 받았던 검을 궁으로 돌려보내라는 왕명을 받게 되었다. 사브드룽의 검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결국 사브드룽의 검들은 모두 회수되어, 다시 탈로 드종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나와 켈첸 도르지가 가진 검들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 우리가 사브드룽의 친척이어서 그가 우리는 용서해 준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지 한 주 뒤에 궁술 대회가 열렸다. 루콕지 도르지 켈첸이 대회 행사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 30대 초반 나이의 그는 궁술과 가무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셀레이 둥 사원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방으로 가지 않으려는가’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픽 쓰러지더니 그냥 죽고 말았다. 가축의 죽음에서 비롯한 그 재앙의 그림자는 끝내는 사람의 목숨마저 그렇게 앗아갔다. 그 모두 사브드룽의 물건에 함부로 손댔기 때문에 탈로의 신들이 노해서 일으킨 것들이라 생각한다.

나는 왕궁 생활을 시작한 후 첫 여섯 달 가량은 초에키 겔첸과 함께 킨가랍 텐 궁 가까이 있는 대나무 오두막에 살았다. 그와 함께 사는 동안, 나는 그에게 기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옷을 갖고 나가 새끼돼지 한 마리와 맞바꾸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날로 독에 넣은 뒤에 버터 덩어리랑 소금, 고추를 집어 넣어, 나무주걱으로 마구 휘저으며 그것들을 짓이겼다. 그리고는 저녁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그것을 하룻밤 새 모두 먹어 치웠다. 그는 그런 포식에 만족해했고, 나중 일에 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술을 몹시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술을 마셨다. 그런 어느 날 한 티벳인 아낙네가 밀린 외상 술값을 받으러 그를 찾아왔다. 당시 빈털터리였던 그는 돈 받으러 왔다는 말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래서 사정을 하기는커녕 어처구니없게도 그 여자를 두들겨 팼다. 그녀는 엉엉 울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 나가면서 그 일을 날날이 왕에게 일러바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는지 그 아낙에게 결국 빚을 다 갚았고, 그것도 실제 빚진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했다.

나는 가셀로가 고향인 남 산가이라는 사람을 각듯이 대했다. 그는 왕의 친애를 받는 카드롭(‘명령을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막역한 친구를 말함)이었다. 카드롭은 사실 왕의 말벗에 지나지 않지만, 남 산가이는 왕과의 담소에서 그를 항상 즐겁게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다른 카드롭들은 종종 입을 가며 놀려 조신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만한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는 간혹 왕실에 나가는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음식을 챙겨들 정도로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다. 하루는 그가 불쑥 내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별 생각 없이 좋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나는 왕궁에서 같이 일하던 틴레이라는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 친구는 내 얘기를 듣고는 그와의 약속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자기가 참한 친척 여자를 소개해 주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친척 여자나 남 산가이의 딸도 자신들과 나와의 사이에 혼사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하다. 왕은 틴레이가 희고 불그스레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를 첼립(외국인)이라 부른곤 했다.

결혼 얘기들은 모두 헛일이 되어 버렸다. 1948년에 왕이 병환에 들면서, 나의 궁궐 생활이 갑자기 끝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와 초에키 겔첸은 궁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폐동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왕실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인 조우 핀초와 함께 낙향 길에 올랐다. 왕궁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캅나이(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검을 등

에 비스듬히 뻗었다. 날씨는 덥고 길은 험했다. 쟁강과 게이렉폭을 지나서 베타 이 다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우리는 큰 고양이 발자국들이 길에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근처에 큰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야.” 큰 짐승이란 호랑이를 드종카어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우 핀초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 마음은 나도 매한가지였고, 위험한 상황과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 얼마 못 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길 한복판에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두 마리와 함께 드러누워 있었다. 우리를 보자, 어미 호랑이가 우리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피가 멎는 기분이었다. 그때 새끼 호랑이들이 몸을 일으키더니 풀숲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도 그들을 따라 그 쪽으로 향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좀더 가다가 인가를 찾아들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가 말하는 드종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다. 왕실 사람이 있어서 더욱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았다. 나중에 우리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자, 그때서야 그는 건초터미 속에 숨어 있게 했던 그의 여덟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밀짚을 머리에 묻힌 채 나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해진 옷들을 입고 있었다. 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집을 나오면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1 루피를 주었다.

폐동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뜻하지 않게도 아흐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만났다.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나로서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손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걱정해 주었던 분이였다. 할머니는 나를 어여뻐 여겨 가끔 ‘파비 동(돼지 얼굴)’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그런 다정한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벽찬 슬픔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차분한 모습으로 임종에 들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나중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한 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머리에 흑이 난 사람이 자신 곁에 와 있다고 손짓으로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그런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편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램 형은 할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외할머니가 할머니보다 두 해 앞서 1946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여원 슬픔에서 오랫동안 헤어내지 못했다. 자주 달을 쳐다보며 “외할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우울한 심경을 드러내곤 했다. 외할머니의 다비식은 탈로 드종 잔디밭에서 치러졌는데,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두 주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외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 즉시 램 형은 고인을 위한 추모제를 올렸다. 외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엔추에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보석을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레 죽는 바람에 그 보석은 그의 친척들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탈로에 사는 외할머니 친척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끝내 어머니는 그 보석을 받지 못했다.



11. 보물 언덕에 흐르는 멜로디

나는 1947년 봄에 탈로에서 두 주를 보냈다. 립추에 있는 조상 땅 문제로 가 있었는데, 그 동안 초에키 켈첸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그때 탈로는 한창 축제 기간이어서, 말쑥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나도 축제 행사들을 구경하려고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사진기도 둘러메고 해서 이곳저곳으로 즐겁게 쏘다녔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진기가 신기해 보였던 때라, 내 어깨에 멘 사진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의식될 때마다 우쭐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작 사진은 많이 찍지 않으려 했다. 사진을 현상하려면 칼림퐁까지 가야 했고, 또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은 예쁜 아가씨들을 볼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렸다. 탈로 드중 뒤쪽의 경기장에서 탈춤 공연을 구경할 때도 내 시선은 시간이 갈수록 공연보다는 구경꾼들 속에 있는 아가씨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주위를 자꾸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아가씨를 주목하게 되었다. 해맑은 피부색에 호트라 잘로 키라(홀치기 염색한 티벳제 옷감으로 만든 드레스)와 쪽빛 비단 토크(숙녀용 외투)를 입은 앳된 소녀였다. 그녀의 목에 걸려 있는 커다란 연분홍 산호목걸이가 마치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전의 하얀 철쭉순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그 쪽으로 다가가서 몸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며 사진 찍기 좋은 각도를 잡다가, 그녀 일행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은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그 소녀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왜 김열관 같은 눈초리를 내게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갑작스런 출현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그 소녀에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그냥 눌러 버렸다. 그리고 칼림퐁에 가서, 그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을 현상했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1949년에 나는 다시 탈로에 갈 일이 있었다. 축일에 탈로 너머 고개에 있는 팡카르포 사원에 들러 신전에 버터등들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 절을 찾았을 때에 마침 그 소녀도 그 곳에 와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가웠다. 그녀는 두 해 전에 보았을 때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성숙해 있었다. 그녀에 관해 많이 궁금했던 나는 그녀에게 먼저 반가이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이름은 투이지였다. 나이는 나보다 여섯 살이 어린 열여덟 살이고, 탈로에서 반시간 거리에 있는 노브장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투이지는 외모만큼이나 목소리도 아름다웠다.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에 아쉬운 여운이 내게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다. 투이지의 노랫소리는

이미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데는 소질이 없었지만, 듣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무척 좋아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그리는 내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어느 사이 투이지를 떠올리며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 끝에 탈로에 있는 동안 그녀를 찾아가 또 만나야겠다고 작정했다. 주위 사람들은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 같다고 하면서 투이지의 어머니가 그리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고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내 생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하루 일정으로 노브강 마을을 찾았다.

노브강은 부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정 중의 한 분인 9 대 제 켄포를 지낸 사차 린첸 스님이 세운 마을이다. 옛날에 그 스님이 노브강 뒷산에 있는 비구니 사찰인 자츄 카르모 사원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맑은 밤하늘에 별뿔별 같은 물체가 근처 정글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궁금하게 여긴 스님이 자신을 시봉하는 스님에게 그것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엇이었는지를 알아 오게 했다. 조금 후, 그 스님이 광채를 내는 돌 하나를 갖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노브(보석)였다. 그래서 사차 린첸 스님은 그 보석이 떨어진 곳을 노브강(보물 언덕)이라 이름했다. 후에 스님은 노브강에 출라강 사원을 창건하고, 그 보석을 절 불상 안에 안치하면서 그 곳을 또 보드 가야라는 뜻의 켈리 도르지 딘이라 이름지었다. 그리하여 노브강은 인도의 보드 가야까지 순례하지 못하는 대다수 부탄인들에게 부탄의 보드 가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차 린첸 스님은 탈로 아래쪽에 달리다 사원과 파조딩 사원도 건립했는데, 달리다는 고대 인도에 있었던 유명한 불교 대학인 날란다에서 따 온 말이다. 그리고 10 대 제 켄포를 지낸 쉐첸 텐진 초에가이 스님은 노브강에 또 짐추 고모라는 절을 세웠다.

출라강 사찰은 승가의 계율이 엄격히 지켜지는 고옴파(도량)였다. 투이지의 증조모가 살았던 19 세기에만 하더라도, 절 경내에서 부녀자가 잠자는 것이 금기되었다. 그래서 그 도량을 찾는 여성들은 마을 끝 쪽에 있는 차차 팡추로 가서 잠을 잤다. 출산시에는 절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고, 가족들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두어 키웠고, 마을 주요 지역에서 피륙 짜는 일도 금지되었다. 모든 상례와 수계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중앙교단이 임명한 쿠둥(화상)이 시행했다. 예를 들면, 여성은 토크스(겉옷)를 입지 않은 채 외출할 수 없고, 스님은 항상 장삼을 걸치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엄격한 계율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완화되어, 193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1957년에 노브강과 주변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목

숨을 잃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노브강에서는 아움 타시 베다의 어린 딸이 죽은 것 외에는 별다른 탈이 없었다. 그 무렵에 불가해한 현상이 노브강 사원 불상의 몸에 나타났다. 불상이 마치 천연두를 앓고 있는 양 얼굴과 몸의 칠이 벗겨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처가 중생들이 몹쓸 병에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신 고통을 겪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나중에 칠이 벗겨진 부분들은 다시 금색으로 칠해졌지만,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 몇 해 전부터는 불에 조그마한 반점 하나가 나타났는데, 현재는 윗입술 쪽으로 옮겨가 있다.

노브강을 첫방문했던 것이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내게 생생하다. 노브강은 무척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쌀자루를 들고 수로를 따라 걷고 있는 투이지를 보았다. 그녀는 흰 토크를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 쌀이 삼 주 전에 돌아간 삼촌 제사상에 올릴 웨이퍼를 만드는 데에 쓸 것이라 말했다. 수줍게 웃는 그녀의 맑은 미소를 보며 내 마음은 설레었다.

다음 날 나는 또 노브강을 찾았다. 아움 타시 베다에게 도움을 청해 볼 생각이었다. 그녀는 30대 중반 나이로 성격이 쾌활해서 내 사랑의 사자가 되기에 적격이었고, 또 그 아줌마의 집이 마을 구석진 곳에 있어서 투이지네 집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들러 그 아줌마에게 투이지를 그녀의 어머니 몰래 그 집으로 초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지나다가 우연히 그 집에 들렀는데, 그 곳에서 반갑게도 투이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나의 각본이었다. 그 각본대로 내가 아움 타시 베다의 집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은 ‘아름답게 노래하는 싱그러운 뻐꾸기’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랫소리는 정말 뻐꾸기가 봄을 맞아 찾아온 듯 봄의 신록을 연상시켰다.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지만, 내 귀에는 투이지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그 후로 그 노래는 우리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담은 소중한 추억의 노래가 되었다.

나는 투이지에게로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녀와 얘기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시간 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대화에 깊숙히 빠져 들었다. 그렇게 대화에 한창 몰입하고 있을 때, 투이지를 부르는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 왔다. “투이지 잠, 어디에 있니?”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근처 빈랑 나무 숲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뒤에 투이지의 어머니가 아움 타시 베다의 집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사람이 여기에 없다며는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만일 네 말이 거짓이라면 ...” 누가 내가 투이지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을 투이지 어머니에게 한 모양이었다.

투이지 어머니의 이름은 아움 우가이 텀이었다. 나는 아움 우가이 텀이 생각

하는 것보다 더 자주 노브강에 놀러 갔다. 궁술 대회에서 투이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구경했는데, 나는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에 그만 났을 잃고 말았다. 당시에 투이지의 고운 마음씨와 목소리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그녀의 남편이 되는 운명에 점점 더 깊숙이 끌려가고 있었다.

투이지네 집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층 저택이어서 마을 전체를 거의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 집의 본래 주인은 35 대와 38 대 종정을 역임한 제사차 께첸 스님이었다. 그가 입적한 뒤에는 그의 제자로 49 대 드룩 데시(세속의 지배자)를 지낸 키잡 도르지 남궐이 잠시 새 주인이 되었다가, 1870년대 말에 아움 우가이 템의 외증조부 삼드롭이 키잡 도르지 남궐의 상무 담당관에게 은화 400 냥을 주고 그 집을 샀다. 그 집은 전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을 넘어서 큰 뜰을 지나면 봉긋한 안뜰이 나왔고, 그 뜰 한가운데에 우람한 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일층에는 곳간들과 투이지네 네 식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넓은 식당이 있고, 이층에는 방 다섯 개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잘 꾸며진 방은 제단실이였다. 보통의 집들과 다른 것은 일층에 마구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마구간이 있기에는 집이 너무 세련되게 설계되어 있었다.

아움 우가이 템은 날씬한 몸매에 고운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투이지가 한 살 때에 같은 마을에 사는 부지런하고 겸손한 삼드롭 뉘과 재혼했다. 투이지의 생부는 그가창 코체의 자손인 두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투이지가 태어난 직후에 그의 삼촌 게세이 세랍 도르지가 사는 카트만두로 구도의 길을 떠났다. 그래서 삼드롭 뉘이 투이지에게 친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실제로도 것처럼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아움 우가이 템은 베 짜는 솜씨가 뛰어났다. 평소에 남편이 노브강과 푸나카 발들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베를 짰는데, 그녀의 그런 소질은 붓탕의 명문가 불리 초에제 가문 출신인 그녀의 증조모 소남 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베를 짜서 판 수입으로 집안살림을 꾸렸다. 투이지의 이복오빠는 그녀보다 여섯 살이 더 많은 출가자 신분이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응석받이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지만, 어느 정도 커서부터는 체마밭에 고추도 심고 음식도 요리하고 하며 집안 일들을 곧잘 거들었다. 그녀의 집에서는 소도 키웠고, 밭에서 거둬 들이는 곡식은 네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어서 남는 곡식들은 이웃들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 같은 일은 특히 추수철 전에 많이 있었다. 이처럼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투이지는 항상 태도가 자립적이고 당당해 보였다.

아움 우가이 템 주위의 남자들은 박정하다 못해 무정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런 좋지 못한 경험들 때문에 모든 남자를 회의적인 태도로 대했

다. 그녀의 아버지 펜다이는 보물 계시자 테르톤 세랍 멤바르의 직손이자 파메사를 섭정(1886-1903)했던 팜 산가이 도르지의 조카였다. 그는 그런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처와 어린 세 자식을 놔 둔 채 집을 떠났고, 당시 서른여섯 살이었던 아내 남가이 람은 개가하지 않고 청상 과부로 수절했다. 아움 우가이 템도 그녀의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구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첫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 집을 나갔고, 두 번째 남편도 투이지 잠이 첫머이였을 때에 먼 나라로 떠나 버렸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투이지의 증조모를 17년 동안이나 보살펴야 했다. 투이지의 증조모는 말년에 중풍을 앓아 누워서만 지내다가 1939년에 세상을 떠났다. 여자의 몸으로 가족 부양을 책임졌던 아움 우가이 템은 여느 남자들이 못지 않은 역센 의지와 지혜로 가정의 역할을 잘 해 냈고, 그러다가 그녀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삼드롭 녀를 만나 그와 재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두 주 동안 탈로와 노브강을 오가며 들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폐동에 머물고 있던 가족들이 귀국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전보를 쳐서 트롱사 엔도출링으로 마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노브강에서 가장 가까운 전신소가 닷새 거리인 야통에 있었는데, 내가 그 곳으로 가서 폐동에서 네 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상다바 전신소로 전보를 보내면 되었다. 나는 떠나기에 앞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먼저 노브강에 마련해 놓았다. 집 주인 게테이 사바이는 파로에 살았는데, 그는 내가 붓탕 왕궁에 있을 때에 왕에게 탄원하러 왔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전보를 치고 곧바로 푸나카로 향할 생각이었다. 몇 일 있으면 그 곳에서 연례 축제가 열렸다. 먼 길을 혼자서 떠나려는 나를 사람들이 말렸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뒤로 하고 총총히 길을 나섰다. 내가 위험을 마다 않고 한걸음에 푸나카로 달려가려 했던 것은 그 축제에서 투이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티베트와 국경을 접한 차루 탕 부근의 랑마렵에 이르렀을 때에 그 근처 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초에키 켈첸에게서 빌린 권총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앞 쪽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길바닥에 가로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몇 사람이 그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험악하게도 손에 돌을 쥐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이 나를 향해 그 돌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고 주머니 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며 허공을 향해 두 발을 연거푸 발사했다. 그들이 총소리에 놀라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곳에서 냅다 도망을 쳤다. 혹시 그들 중 아무라도 내가 쏜 총에 맞았다한들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과로에 도착한 나는 하룻밤 쉬고 갈 생각으로 남가이강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 내가 야통에서 그 곳까지 하룻만에 달려왔다고 하자, 친척들은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런 무리한 짓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으니, 내게 꿈에도 다시는 그런 재주를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룻밤을 폭 쉰 나는 날이 밝자, 그날 중으로 푸나카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길을 또 부지런히 나섰다. 하지만 발에 생긴 물집 때문에 내 걸음 속도는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해가 질 무렵에 겨우 징차이에 닿을 수 있었다. 별수없이 그 곳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 어찌나 피곤했던지 한 번도 깨지 않고 나는 동틀 때까지 계속 꿀아떨어졌다. 이튿날, 목욕도 하고 의복도 좀 신경 써서 갈아입고 해서 푸나카로 다시 떠났다. 마침내 내가 푸나카에 도착했을 때, 투이지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이미 그 곳에 와 있었다. 과란 중국제 부직 튜코와 쿠수타라 키라(복잡하게 짜여진 드레스)를 입고 산호목걸이를 한 투이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보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동안 쌓였던 피로감이 한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투이지의 뒤에서 걸었다. 우리는 유명한 캔틸레버 양식의 다리를 건너, 사람들 사이를 누비듯이 나아갔다. 화려한 중세 전사 행렬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다. 그 행군은 7 세기에 있었던 부탄군과 티벳군 사이의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였다. 투이지와 그녀의 두 친구가 그것을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냈는데, 오렌지 나무 아래였다. 투이지가 친구들 앞에서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서 좀 떨어져서 앉았다. 우리가 행렬을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우리 근처로 모여들었다. 밤색 군복을 입은 전사들이 발을 구르고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번쩍거리는 검들을 서로를 향해 들어올렸다. 화려한 군인 행렬이 다 지나가자, 이번에는 스님들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나타났다. 고깔을 쓰고 가사를 걸친 스님들은 손에 한결같이 비단보를 들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둑에 다다르자 그 속에서 오렌지들을 꺼내 강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티벳군들을 속이기 위해 오렌지들을 강에 투척한 데서 유래하는 의식이었다. 당시에 첼레 강변에 진을 치고 있던 티벳군들이 부탄군들이 것처럼 오렌지들을 강에 던지는 것을 보고, 신성한 랑중 카르사파니의 유물을 버리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었다. 그 유물은 현재 푸나카 드중에 온전히 보관되고 있지만, 본래는 느가왕 남젤 사브드룽이 티베트 랄룽에서 부탄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티벳군들은 그것을 빼앗아 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부탄에 쳐들어왔지만, 결국 부탄군의 그 같은 계략에 속아 역공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티벳왕에게

부탄에는 더 이상 그 유물이 없다고 알렸다고 한다.



12. 귀국

왕궁에 있을 당시인 1947년에 나는 왕세자의 주선으로 국왕을 배알하고, 그에게 두 가지 일을 청원했다. 하나는 파로 펜롭이 몰수한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폐동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부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왕은 자비롭게도 그 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펜롭이 바르코 초 돕(파로)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네의 집안은 라마의 후손들이지 않는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진작 짐을 찾아 오지 않았던가? 케상 다와에게 가서 짐의 카소(칙서)를 받아 가도록 하게.” 왕의 분부에 따라, 나는 케상 다와 시종으로부터 칙서를 받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기운이 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칙서를 갖고 곧바로 파로로 내려갔다. 이제 파로 펜롭에게 그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었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몇 번을 망설임 끝에 그와의 알현을 청했다. 당시 그는 태양카에 머물고 있었는데, 악성 기침으로 무척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 병으로 1949년에 죽었다. 나는 그와 마주한 자리에서 어렵사리 카소를 꺼내 보이고, 그에게 파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가족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공문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아무리 웅변이 능한 사람이기는 했어도, 왕명을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산이 제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보다야 높겠는가. 자네가 카소를 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이면 됐네.” 그 말은 우리 땅을 순순히 돌려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의 말만으로는 나중에 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다시 펜롭을 찾아가, 그 약속을 문서로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트라(빈랑검 케이스)에 들어 있던 빈랑과 잎들을 내 두 손에 모두 털어 주며 나를 칭찬했다. “그 어미에 그 아들이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가졌던 모든 경계심을 풀어 버렸다. 우리 가족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전제 군주와 같은 그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

8년 만에 파로의 논과 림추의 집과 밭을 마침내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쿠엔가출링은 당시에 펜롭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다. 우리 재산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소식은 가족들을 무척 기쁘게 했다. 그들은 그 소식에 용기를 얻어 귀국 길에 올랐다. 그들은 콕라즈하르까지 기차로 와서 지프로 하티사(가이렉푸)에 이른 후, 그 곳에 이들을 머물며 트롱사까지 같이 갈 말과 짐꾼들을 구했다.

하티사의 날씨는 무척 더웠다. 람 형과 여동생들은 거의 하루 종일 강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다. 그러나 가히 살인적이라 할 모기 떼의 공격은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말라리아모기였다. 그런데 차카르수에서 람 형과 남가이 움이 말라리아 열병을 앓듯 산발적인 고열 증세를 보였다. 내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은 이미 꽤 수척한 모습들이었다.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는 차카르수 라캉에서 두 주를 보내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아시 폰초 초덴 여왕을 예방하러 킨가랍텐 궁을 방문했는데, 람 형은 혼자 걷기가 힘들어 부축을 받아야 했다. 여왕은 우리의 여행과 폐동 생활에 관해 물었고, 특히 람 형이 건강을 잃은 모습을 보고 몹시 유감스러워했다. 우리가 궁을 떠날 때에 여왕은 하인 세 사람과 함께 젓소 두 마리를 딸려 보냈다. 어머니는 여왕에게 옷까지 선물 받았다. 우리는 여왕의 그 같은 사려 깊은 배려에 몸둘 바를 몰랐다.

람 형과 남가이 움의 건강 상태는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푸나카로 출발하는 일정을 몇 일 더 뒤로 미루고, 환경이 좀더 나은 택시 라캉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그 곳은 차카르수보다 훨씬 높은 지대여서 날씨가 한결 나았다. 람 형은 말 등에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 가마를 탔다. 주변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보며 즐거워할 기분이 아니었다. 형은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딱딱한 음식은 삼키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식한 듯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형제들과 자주 얘기를 나누었다.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더 이상 도와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그를 대신해 어머니를 잘 보살피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부탄력 1949년 5월 1일에 유언을 남기고 30 세를 일기로 입멸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만, 스물 하루 뒤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게요.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저의 육신을 높은 산에 그냥 갖다 버리세요. 저의 장례를 특별히 치를 필요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가족들에게 안겼다. 그나마 남가이 움이 건강을 되찾은 것이 좀 위안이 되었다. 형이 입적한 지 쉰 해가 다 되어 가지만, 아직껏 그의 화신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형의 유언에 따라, 우리는 그가 기적처럼 부활하기를 바라며 삼 주 동안 그의 육신을 그대로 놓아 두었다. 두 주가 지나도 그의 주검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 태울 듯한 여름 더위였지만, 그의 피부는 마치 금을 입힌 듯 선명히 금빛을 띠었다.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가 입적했다는 소문을 듣고, 초에키 겔첸이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혈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오자마자, 명상하는 자세로 고요히 앉아 있는 람 형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해댔다. 그러다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만 만져서는 안 될 그의 몸을 건드리고 말았다. 형은 그날 명상을 거의 다 마쳤음을 보이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초에키 겔첸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육신을 빨리 불탕으로 옮겨 화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유해를 말에 싣고 킨가랍텐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었다. 레이페이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한 줄기 영롱한 빛이 시신을 실은 말의 앞에 내리비쳤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의 시체를 산에 갖다 버린다는 것은 부모로서 차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슬픔에 겨워 여러 차례 실신을 했다. 아버지도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지만, 그의 뜻은 단호했다. “우리가 너희 형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아 왔다는 걸 너희들도 잘 게다.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여, 그의 시체를 산에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장례비를 아끼려고 그런다고 우리를 욕할 게 틀림 없다.” 부모님은 형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줄 생각이었다.

드중참 돕 텐진은 트롱사의 타폰(조마사)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장례를 도우라는 왕명을 받고, 람 형의 시신을 불탕까지 싣고 갈 마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몇 일 동안 굶은 비가 쉬지 않고 내렸다. 그런데 형의 시신을 뜰 밖으로 옮길 때에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가랑비로 바뀌고, 파란 하늘 위로 세 겹의 무지개가 드리워졌다. 그 무지개는 우리가 불탕에 도착할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람 형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왕축 형이 왕을 알현하고, 도잠에서 람 형의 다비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 도잠은 전통적으로 라마승들의 다비식이 열리던 장소였다. 왕은 람 형의 입적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버지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 주오. 훌륭한 라마를 잃은 것은 짐과 이 나라 모두의 슬픔이고 손실이오. 다비식은 쿠르지에서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쿠르지 라캉은 림포체 법사와 인연이 있는 성소로, 고승과 왕들이 죽은 뒤에 화장되는 곳이었다. 왕은 가이돈 틴레이 시종에게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게 우리 가족 일을 도우라고 명했다. 그렇게 람 형의 장례일이 인연이 되어서 훗날 틴레이는 그의 아들을 내 여동생 세라 펴의 큰딸 린시에게 장가들었고, 나는 또 내 맏딸을 드중참 돕 텐진의 외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람 형의 유해를 옮길 때에 나타난 그 세 겹의 무지개는 무려 이레 동안이나 하늘에 떠 있었다. 그런데 시신을 화장한 재를 강물에 뿌리던 날에 그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구름 주위로 모여들며 테를 둘렀다

가, 재가 강물에 뿌리지기 시작하자 강에 거의 닿을 정도로 하강해서 재 주위를 감싸고는 재들과 함께 유유히 강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가슴을 몽클하게 만드는 장관이었다. 형의 유골은 잠바이 라캉에 있는 미륵불 전에 봉안되었다. 그의 장례가 다 끝났을 때, 또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레 동안 대지를 적셨다.

귀국의 기쁨도 뜻하지 않았던 람 형의 상실로 인해 눈물 바다가 되고 말았지만, 고국을 향한 여정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상심한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푸나카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하인 한 사람을 소들과 함께 먼저 노브강으로 보내, 집을 청소해 놓게 했다. 그리고 그의 편에 투이지에게 편지 한 통을 부쳤는데, 람 형을 여윈 일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투이지에 대한 나의 애절한 그리움을 그 편지에 담았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노브강에 도착했다. 나는 투이지를 다시 만난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투이지 모녀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을 싸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아옴 우가이 템의 그런 따뜻한 환대는 나를 사위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기에 내 마음이 무척 들떴다. 몇 일 뒤, 나는 투이지네 집을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그 곳에서 하룻밤을 잤다. 그런 요식 절차를 거침으로써 나는 관례상 투이지의 남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혼례식을 준비하느라 법석 떨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중에 장모가 처음에는 나를 사위 삼는 데에 망설였었다는 말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농삿일을 잘 못할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의 주된 이유였다.

부모님은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노브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훗날에 그 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절과 민가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그 마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모양과 크기가 한결같은 오십여 채의 가옥들이 산등성이와 나란히 한 채 쪽 늘어서 있고, 능선은 중앙 부분에서 좁아지다가 양쪽 끝으로 갈수록 넓어졌다. 마을에 있는 두 사찰 중 큰 절인 출라캉 사원이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고, 또 그 근처에 투이지네 집도 있었다. 노브강 주민들은 사브드룽의 누나인 우리 어머니를 오랜 친구처럼 편히 대하면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신경을 써 주었다. 그들은 우리 집을 자주 찾았다.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축 형이 칼림퐁에서 가지고 온 축음기 소리를 그냥 재미삼아 들어 보러 오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웃음 소리 녹음한 것을 듣는 것을 특히 좋아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일시에 그것에 전염이라도 된 듯 모두가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그 축음기는 지금도 왕축 형의 집에 온전히 보관되고 있다.

노브강에 들어와 산 지 6 개월이 지날 무렵, 나는 폐동에 남아 있던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러 갔다. 그 곳에는 이모할머니 안가이 잠과 케상 당숙, 그리고 여동생 세카가 살고 있었다. 이모할머니는 부탄에 돌아와서 날씨가 따뜻한 파로에 살다가, 그 곳에서 두 해 뒤에 돌아가셨다. 여동생들은 채마밭도 가꾸고 소들도 돌보고 하면서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해 갔다. 나는 도회지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들이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뻐했다. 당시에 세라웁은 열여섯 살이고, 세카는 열두 살, 그리고 남가이 옴은 여덟 살이었다. 그들은 마을 활쏘기 시험 때는 사리를 곱게 차려 입고 발목에 종도 달고 해서, 친숙한 힌두 가요에 맞춰 무용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무척 귀여워했다.

나는 처가에서보다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왕축 형이 지그메 팔덴 도르지 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총리실에 들어간 후, 집안 일을 도울 사람이 나와 당시 스무 살이었던 렌케이밖에 없었다. 노브강에 산 지 한 해 뒤에 우리는 짐추 고모 라캉 옆에 있는 집 한 채를 샀는데, 마당도 있고 해서 살기가 더욱 좋은 집이었다.

1951년 11월 30일에 우리의 첫째가 태어났다. 나는 첫째의 출생을 지켜보며 무척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등나무를 깎아 만든 날로 세상에 갓나온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그 자른 부위를 비단실로 단단히 묶었다. 그런 다음, 플란넬 천으로 아기를 감싸 옆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장모에게 건넸다. 그런데 장모가 아기를 안다가 그만 놓치는 바람에 아기가 나무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다. 장모는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방에서 뛰쳐나갔다. 다행히 아기는 다친 데가 없었다. 나는 떨어진 충격에 놀라 울어대는 아기를 안아 달래면서, 장인에게 아기가 괜찮다고 장모한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잠시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온 장모는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는 듯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장모가 잠잠해진 아기를 보며,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도 손자를 보게 되었다고 장인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이, 차가이, 우리 차가이(병어리)”라고 하면서 아기를 얼렸다. 내가 아기가 딸이라고 하자, 그들은 더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장모는 딸이 더 좋다고 말했다. 나는 사프란과 향초들을 넣은 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고 아기에게 버터를 먹였다. 그리고 그 애의 이름을 베다라 지었다.

1952년에 온 가족이 다소 지그메 도르지 왕축 왕세자와 아시 케상 초덴 왕세자비의 결혼식을 구경하러 파로에 갔다. 파로까지는 사흘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 곳에서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창 체카에 여장을 풀었다. 예식이 끝난 뒤에 대규모 축하연이 열렸다. 탈춤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는

데, 그것들을 보려는 많은 인파로 행사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 틈에 끼어 구경하는 일도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나는 피곤도 하고 해서 좀 일찍 그 곳에서 나와, 아내와 딸이 남아 있는 창 체카로 먼저 돌아갔다.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 소매치기가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을까. 아내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당신 고가 찢겨져 있네요! 뒤쪽을 한 번 보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허리춤에 끈으로 묶어 질러 넣었던 지갑을 얼른 더듬으며 찾아 보았다. 그러나 지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안에 들어 있던 당시 내 전 재산이었던 은화 35 닢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나는 황당한 기분이 들면서도, 주위를 기울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 몸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소름까지 오싹 돋았다.



13. 노브강 10 년의 세월

우리 가족은 8 년 동안 티베트와 시킴, 인도 등지를 전전하며 고달픈 삶을 살았다. 가족 모두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마다 새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할 일만 없었어도, 그 같은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 동안 나 역시 여러 일들을 해 보았다. 장돌뱅이로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법회에서 재판 노릇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처가의 농삿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밭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쟁기나 도끼, 삽 같은 농구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은 내게 익숙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밭일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나는 농삿일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장인과 장모도 내가 처음부터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촌 생활에 내가 차츰 적응이 되면 자연스레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는 밭에 나가 일을 한 번 해 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장인이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는 나가면서 도끼 한 자루를 마당 어귀에 놓아 두었는데, 나보고 그것을 들고 밭으로 나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한 양처럼 그것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장인은 들에서 참나무를 베고 있었다. 도끼를 들고 다가오는 나를 보자, 그는 빙그레 웃고는 하던 일을 계속 했다. 나는 도끼질이 서툴다는 인상을 그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었지만, 나무들을 힘껏 찍어냈다. 점심 무렵이 되었을 때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쉬었다 하고 싶었지만, 인도 신사라 놀림당할까 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오후에는 베어 낸 나무들도 패고, 그루터기들도 뽑아 냈다. 장인의 손은 몹시 거칠었다. 그는 맨 손으로 췌기풀들을 뽑아 채어 소들에게 먹였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르튼 손을 형겅으로 감싸야 했다. 난생 처음 농삿일을 해 본 그날은 정말 고단한 하루였다. 장인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 일을 했다. 나는 피붙이도 아닌 식솔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를 보며 활력을 느꼈다.

1953년에 장남 산가이가 태어났다. 어느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나는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두 해 뒤에는 둘째 딸 도르지 왕모가 태어났다. 나는 그 해에 남가이 통초이(제사 이름)를 후원하기로 했다. 그 제는 제 사차 린첸 스님이 발견한 보석이 안치된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열렸는데, 버터등과 셀자 토르마(볶은 밀가루 음식) 같은 제물들을 부처의 다섯 현신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남파르 고옌과 지춘 전에 올렸다. 남

가이는 남파르 고엔파의 준말이고, 통초이는 수천 가지의 제물을 뜻하는 말이다. 남가이 통초이는 1955년에 제 사차 린첸 스님이 제를 올린 데서 비롯하였고, 그 후에 노브강 사원과 다른 몇몇 도량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었다. 제수를 장만하려면 돈이 꽤 들었지만, 자기 가족의 무사평안을 축원하는 일이니 만큼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그 무렵, 나는 우리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의 앞날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처가의 일들을 거들어 준 대가로 받는 수입만으로는 우리 식구가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행상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7,000 루피에 왕축형에게서 빌린 5,000 루피를 보태 장사 밑천을 마련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과 직물들을 구입하러 구다마(현재의 삼드롭 종카르)로 갔다. 나는 그 곳에서 검정색 노새 한 마리와 갈색 씨말 한 마리를 각각 1,800 루피를 주고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멘치 마타와 룡셈, 아다 마트라, 멘타, 세트라, 그리고 흰색 부라 같은 옷감들을 샀다. 우리는 랑시아에서 각자의 말들을 기차 화물칸에 실어 푸엔출링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하시마라로 보냈다. 그런데 기차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푸엔출링에서 나흘 동안 초조히 기다려야 했다. 그 동안 우리는 안장과 재갈, 고삐 같은 마구들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말들이 도착하자, 우리는 팔 물건들을 말에 바리바리 싣고 노브강으로 향했다. 옷감은 돈을 받고 팔거나 쌀과 맞바꾸었고, 흥작을 대비해서 그 쌀의 일부를 비축했다. 곡식을 비축하는 집들이 많았던 당시에 곡물을 넣는 밤이라는 큰 나무상자나 루엡이라는 대나무통은 집집마다 흔히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저장되는 동안에 곡물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다. 처가에서도 그런 경우를 당해, 많은 양의 쌀을 집 아래 눈에 그냥 갖다 버린 적이 있었다. 장모는 남은 쌀을 현물 이자를 받고 이웃들에게 빌려 주곤 했는데, 그것을 꼭 되돌려받지는 않았다.

처가에서는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늑대 같은 맹수들이 마을 주변으로 자주 돌아다녀, 돌보지 않는 가축들은 그들의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처가의 암소 한 마리도 그들에게 희생되고 말았다. 나는 가족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친구 몇 명과 함께 늑대들을 뒤쫓기로 하고 그들 사냥에 나섰다. 우리는 추적 끝에 늑대 무리를 발견하고는 한 마리를 사살하고 또 한 마리는 부상을 입혔다. 친구들은 그 정도로는 직성이 다 안 풀렸는지 그 쓰러져 있는 늑대를 마구 때려 죽였다. 우리는 한동안 계속 무장을 한 채 늑대들의 침입에 대비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치 알기라도 한 것처럼 두 해 동안 늑대로 인한 소동은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번에는 표범 한 마리가 느닷없이 마을

안팎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사람과 가축들을 위협했다. 부상에서 회복중인 내 말도 표범에게 목이 물렸다. 어느 날, 내가 푸나카에서 노브강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누워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표범 한 마리가 나를 켑충 뛰어넘어 지나갔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도착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표범이 고양이를 무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외친 소리였다. 나는 그 놈이 집으로 오는 도중에 보았던 그 표범이라 생각했다.

어느 하루는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처가로 들어오다가 사립문을 여는데, 으르렁거리는 묵직한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나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배나무 아래에 덩치 큰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배를 따먹으러 들어온 곰인 듯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항상 외출할 때마다 소총을 가지고 다녔다. 그 곰이 내 쪽으로 다가오자, 나는 얼른 그 놈을 향해 허리 위치에서 총 한 발을 발사했다. 그러자 곰이 쿵하고 쓰러졌다. 집안에 있던 장인이 총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곰이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돌을 던져 보았는데, 곰은 돌을 맞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들어갔다. 밤사이 온 마을에 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죽은 곰이라도 한 번 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곰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해댔다. 그 동안 돼지 여러 마리가 곰에게 희생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그 곰이 어디에 총을 맞고 죽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는데, 총알 흔적이 얼른 보이지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입 속에서 그 자국을 찾아 냈다.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총을 맞은 모양이었다. 나는 귀한 약재로 쳐주는 곰 쓸개만 갖고, 나머지 부위는 그 쓸개를 꺼내 준 티벳인에게 주어 버렸다. 그는 틴라이강 정착촌에 사는 셸파인들에게 그것을 여러 부위로 갈라 팔았는데, 그들은 고기들을 바나나 잎에 싸서 가지고 갔다. 노브강에서는 곰고기 먹는 것이 금기되었다.

1957년에 체링 팸이 태어나고, 두 해 뒤에는 체링 양된이 태어났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짐추 고모 라캉의 주신인 체링마 여신(장수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체링 팸이 태어나던 해에 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짐추 고모 라캉의 관리인으로 위촉되었다. 관리인이 하는 주된 일은 의식들을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들의 비용은 절의 논에서 나오는 쌀로 충당되었다. 장인과 장모도 우리와 함께 짐추 고모 라캉으로 이사했다. 장모가 해산 직후의 애들 엄마를 대신해 집안살림을 꾸렸다. 애들은 외할머니를 “아이에(어머니)”라고 부를 정

도로 그녀의 품에서 크다시피 했다. 장모는 산모가 두 달은 자리에 누워 요양해야 한다고 하면서, 딸을 위해 계란프라이와 창카이(발효 죽), 고기 요리로 구성되는 특별 식단도 만들었다. 나는 아내가 목욕할 물을 하루에 두 번 준비했다. 그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 같지만,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다. 팔팔 끓인 물을 찬물을 섞지 않고 어느 정도 식혀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그 물을 욕조에 비운 후 아내를 그 욕조까지 업고 왔다. 그 같은 방법도 다 딸의 건강을 염려한 장모의 처방이었다.

나는 장사일을 계속 했다. 그러던 중, 정미소를 차려 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푸나카가 쌀 주산지였기 때문에 그 곳에 정미소를 차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칼림퐁에서 수력으로 작동되는 탈곡기 한 대를 사서 푸나카 타라까지 말 등에 실어 옮겼다. 서부 지방에서 그런 기계로 탈곡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낮에는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저녁 무렵에 한 시간 걸어 노브강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기는 했지만, 그 만한 가치가 있었다. 탈곡비로 받는 쌀이나 가루를 많이 모아 둘 수 있었고, 또 남은 쌀은 자우(쌀로 만든 간식)로 바꾸어 파리 티벳촌에서 팔았다. 자우 바리들을 싣고 가는 데에 말 두 마리로 부족할 정도였다.

렌케이가 내 사정을 알고는 파리에서 말 세 마리를 사 왔다. 그는 당시 나프산가이의 손녀 테키와 결혼해 살고 있었는데, 장사로 꽤 성공해 있었다. 말도 여러 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렌케이가 사 온 말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신경이 예민한 금빛 다갈색 말은 도르지 쉘, 복숭아색과 크림색을 섞은 온순한 말은 체링 쉘, 그리고 온순한 다갈색 말은 바투라 이름지었다. 나는 일 년에 세 번 말 다섯 마리에 자우 바리들을 싣고, 초모나 파리로 팔러 갔다. 그 곳에 갔다오는 데만도 보름이 걸렸지만, 장사하고 남은 이익이 쓸쓸했다. 그리고 한 해에 한 번은 인도 국경 마을인 란가마티에 갔다. 그 곳에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쓸 비누랑 옷감, 설탕, 차, 식용유, 빈랑 같은 생필품들을 샀다.

어느 해에 파리에 갔다가 렌케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의 몸이 많이 좋지 못했다. 그 곳에서 그를 간호하느라 집을 한 달 이상 비우게 되었다. 그런데 노브강에 돌아와 보니, 도르지 왕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본래 몸이 허약했던 그 애는 탈수 증세까지 보이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장모와 아내가 내방객들의 눈을 피해 절 곳간에서 그 애를 보살피고 있었다. 악업을 진 사람들이 혹시 아기의 병을 더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신자들은 대개 공물을 올리러 절을 찾았지만, 간혹 쌀을 빌리러 오기도 했다. 내가 파리에서 사고 온 건어물들을 요리해 계단에 올렸다. 도르지 왕모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잃었던 건강을 차츰 회복하기 시작했다. 상초에코르에 가서 제를

올린 후에 특히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1953년에 세라 펨이 결혼했다. 남편은 노브강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토베 이사에 사는 남가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매로 맺어진 그 둘의 결혼은 첫 딸 린시가 태어나기도 전에 파경에 이르렀다. 그 후, 세라 펨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재혼했다. 그녀의 새남편 출라이는 지그메 노르부 사브드롱의 손자로, 푸나카 지방과 가사 지방을 다스리는 주지사였다. 세라 펨이 중매 결혼을 했다 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세카를 또 중매로 시집보냈다. 세카는 왕축 형의 소개로 형의 친구 자파 도르지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열 일곱 살이었다. 그들의 결혼도 몇 해를 못 가서 끝나고 말았다. 남가이 옴은 어린 나이에 렌케이의 소개로 그의 처숙 다우 펜조르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 그 두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은 손자들까지 보았다.

어느 날 노브강 발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매제 출라이가 보낸 하인이 급한 전갈을 갖고 나를 찾아왔다. 푸나카에서 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하던 일을 내팽개친 채 서둘러 푸나카로 향했다. 그는 한걸음에 달려온 나를 반가이 맞아들이고는 국왕 일행이 다음 날 가사 온천으로 휴양을 떠나니, 내가 그 날 중으로 그 곳으로 내려가서 왕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라 펨도 국왕이 행차한다 소식에 몹시 신경이 쓰이는지, 빨리 내려가서 준비를 잘 해 달라고 성화같이 재촉했다. 그리하여 나는 가사로 급히 내려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해서 림추에 잠시 들렀다. 매제로부터 급한 용무를 부탁 받고 가사로 가는 중이라고 하자, 아버지는 집에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떠나라고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다. 가는 길이 밤길인데다가, 가파른 벼랑들이 군데군데 있는 노셋길이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 같이 온 하인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제등을 들고 내 앞에서 걸었다. 우리가 담지에 도착했을 때에 시간은 밤 열 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주지사가 출타중일 때는 펜조르가 그의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펜조르의 집을 찾았다. 곧히 자고 있는 그를 깨운 뒤, 자초지종을 그에게 얘기하고 관원들을 모두 깨우게 했다. 우리는 숙소와 음식을 비롯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서로 나누어 맡고, 밤새껏 부산을 떨었다. 소와 돼지들도 잡고, 쌀이랑 야채, 버터, 치즈들도 모아 들였다. 나는 지역 유지 몇 사람과 함께 새벽 어둠을 뚫으며 온천으로 향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사 드중에 도착한 우리는 그 곳에서 온천까지 걸어갔다. 날이 차츰 밝고 있었다. 우리가 온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국왕 일행이 부근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윽한 향내를 내며 두송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몸에 스카프를 두르고 온천 주위로 몰려들었

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나무 돛자리가 깔려 있는 숙소를 점검했다. 그 건물은 왕을 맞기 위해 이미 한 달 전에 지어 놓았었다. 펜조르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부엌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에 왕이 그를 찾는다는 전갈이 왔다. 누군가가 마구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고 왕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사실 내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왕은 공식 책임자를 불렀다. 왕에게 불러 갔던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잠시 뒤에 돌아왔다. 일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체벌을 받은 것이었다.

이튿날, 모두가 사냥을 나갔다. 우리는 숲 속으로 들어가서 왕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짐승들을 내몰았다. 그날 덩치 큰 수사슴 한 마리가 잡혔는데, 왕이 개발한 색다른 조리법으로 그것이 요리되었다. 일정하게 자른 토막 고기들을 버터와 양파 외에 소금과 설탕을 더 쳐서 볶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볶은 고기에 카레를 부어 요리를 완성했다, 사냥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그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오락회가 열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위에 나무를 가로놓고, 그 위를 무사히 건너가는 시합이었다. 건너다가 중심을 잃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온천수로 떨어졌다. 그런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다. 다음 날, 우리는 가사와 푸나카 중간 지점인 메세첸에서 왕 일행을 송별했다. 나는 그가 왕세자 시절에 궁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왕은 헤어지면서 그가 쓰던 차기와 쌀과자 여섯 자루를 내게 주었다.

국왕 일행은 그날 푸나카 드중 뒤편에 있는 작은 별장에 묵었다. 왕은 저녁에 내 아내와 세 여동생이 추는 춤을 구경하며 여흥을 즐겼다. 평소에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그들의 공연에 아주 흡족해하며, 그들 각각에게 50 눌트럼(1 ngultrum ≍ 1 인도 rupee)을 내려 그의 사례를 표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보는 자상함도 보였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왕은 망극하게도 아버지에게 좋은 충 한 자루를 보내 왔다.

나는 산가이가 네 살이 되던 1957년에 그 애를 중앙교단에 입교시켰다. 그때 산가이와 동갑내기인 렌케이의 아들도 함께 들어갔다. 그는 내 아내의 친구 움이 낳은 자식인데, 그의 부모는 결혼 두 해만에 이혼했다. 입교식에서 산가이는 범복을 입고, 63 대 종정 틴레이 렌둠 스님과 고승들에게 차례로 배례를 올렸다. 나는 아들 출가를 기념해서, 중앙교단에 있는 오백 명의 스님들과 친지, 친구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산가이가 입교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손자가 가통을 이은 것을 매우 기뻐하며 출 라캉에서 거행되는 수그드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수그드렐은 본디 의전 행사 때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의자

의 열을 뜻하는 말인데, 수그드렐 제에서는 자비와 영광과 부를 축원하는 기도가 행해졌다. 제에 쓰인 음식과 과일들은 모두 그 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나는 산가이가 중앙교단에 입교한 지 두 해 뒤에 푸나카 드중 부근의 다리 옆에 잡화점을 개업했다. 그 곳에는 우리 가게 말고도 세 가게가 더 있었다. 하나는 조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나머지 두 가게는 티벳인들이 주인이었다. 나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칼림퐁에서 부탄제 옷감이나 식료품들을 사들여 팔았다. 우리 부부가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과 절의 일은 모두 장인과 장모가 맡아서 돌보았다. 종종 내가 농삿일로 처가에 내려가 있게 될 때면 아내 혼자 체링과 양된을 돌보며 가게를 지켰다. 처음 해 본 그 소매상은 잘 되지 않았다. 개업한 지 두 해도 안 되어 가갯문을 닫았다.

나는 1959년에 베다와 산가이를 하아 학교에 입학시켰다. 산가이가 중앙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애의 장래를 위해 학교 교육도 받게 하고 싶었다. 나는 말 두 마리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또 두 마리에는 식료품들을 가득 싣고 해서 하아로 갔다. 그때 하아에 세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세카의 남편은 하아 드중 의전 담당관이었다. 그들이 있어서 다소 안심은 되면서도, 애들이 아직은 어렸던 지라 그들만 놔 두고 오자니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애들의 애처로운 표정을 보며, 그들을 다시 말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돌아오는 내내 목이 메이고 뭔가 무거운 것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원한 개울물을 마셔도 목이 시원스레 트이지 않았다. 세카가 출출할 때 먹으라고 싸 준 점심 도시락도 열어 보지도 못한 채 팀푸에 도착했다.

림추에 사는 세라 썸이 넷째 딸을 낳은 뒤에 몸져눕게 되었다. 부모님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점쟁이는 이사를 가야 세라 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푸나카 드중 근처의 논에 대나무 오두막을 짓고, 세라 썸을 그 곳으로 옮겼다.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주위에 술잎을 넣어 울타리도 쳤다.

강변에 위치한 푸나카 드중은 항상 침수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 공사의 책임을 맡게 되어, 어머니와 함께 착공식에 참석했다. 그날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했는데, 우리가 점심을 들고 있을 때 세라 썸이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 그것이 살아 있을 때의 그 애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세라 썸은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스물 여섯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로

부터 5 주 후에는 그 애가 힘들게 낳았던 딸도 제 엄마의 뒤를 따랐다. 그 해가 1960년이였다. 그들의 죽음은 또 한 번 가족들에게 큰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내 일에 쫓겨 짐추 고모 라캉의 일은 거의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타지에 살다 보니, 자주 가기도 힘들어 큰 행사 때나 참석하는 정도였다. 나는 1963년까지 여섯 해를 그 절 관리인 직에 있었고, 이제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었다. 그 동안 내 나름대로는 성심껏 일을 했었다. 연례 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그 외 몇몇 행사들도 정기적으로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바나라스 비단으로 옷을 지어 절에 있는 모든 상에게 입힌 것은 짐추 고모 라캉을 생각하는 내 신심의 발로였다.



14. 상경

수도 팀푸는 현대식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날로 변모하고 있었다. 푸나카 소매점 사업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나는 팀푸에서 장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그 계획을 얘기하자, 모두가 내 뜻을 잘 이해해주었다. 처가에서는 사업 밑천에 보태라고 5,000 놀트럼(현재 기준으로 이자 포함해 약 80,000 놀트럼)까지 내주었다. 나와 아내는 일단 아이들은 처가에 맡겨두고, 새 교역 기지를 세우러 가는 대상을 따라 팀푸로 올라갔다. 그들은 여러 필의 말에 생필품들을 가득 싣고 갔다. 이틀 후, 우리는 마침내 팀푸에 도착했다. 그 해 1961년은 내 나이 서른 여섯이 되던 해로,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사업에 막 착수한 때였다.

우리는 팀푸 상점가에서 가까운 찬글링메탕(지금의 운동장 자리)에 의류와 식품들을 취급하는 천막 점포를 차렸다. 밤에 바느질로 손수 옷과 장화를 지었다. 부탄에서는 서리 내리는 겨울날 아침에 사람들이 대개 장화를 신고 다녔는데, 당시에 인도제 구두를 신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릴 적에 신발을 많이 만들어 보았던 나는 제법 숨겨 있는 제화 기술자였다. 가족 밑창에서부터 무릎까지 올라가는 천 갑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잘 처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제화 장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개업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장사 밑천으로 투자한 5,000 놀트럼마저 잃을 상황에 놓였다. 처가에서 쌀과 야채, 버터, 치즈 등을 보내 줘서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만약 사서 먹었다면 힘든 상황은 더 일찍 찾아왔을 것이다. 위치가 좋지 못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파로 총디로 가게를 옮겼다. 그러나 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건을 사는 손님들보다 구경만 하고 나가는 손님들이 더 많았다. 가끔 창체카에 사는 친척들이 가게에 들며,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인 우리 부부에게 위안의 말을 건넸다. 나는 그 무렵에 양뉘이 아프다는 전갈을 받고, 아내만 파로에 남겨 둔 채 노브강으로 내려갔다. 양뉘는 이질에 걸려 있었다. 나는 상초에코르 드종으로 아픈 아이를 안고 가서 조상신께 치성을 드렸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전에도 보통 했던 일이었다. 다행히 양뉘는 얼마 후에 잃었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여름 내내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가게를 다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찬글링메탕에 말고,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타시초 드종 부근에 점포를 내 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이사해서 가건물을 짓고, 장사를 시작했다. 가게 위치가 좋으면 매상이 늘 것이라는 내 예상은 적중했다.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 행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장사가 괜찮았다. 이제야 일이 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타시

초 드중 인근의 상점들을 찬글링메탕으로 이전하라는 정부 지시가 내려졌다. 상점들로 인해 드중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이유였다. 어쩔 도리 없이 가게를 정부가 지정한 장소로 또 옮기게 되었다.

생활 형편이 좋아지고 해서, 나는 큰아이 둘을 좀더 나은 환경의 칼림퐁 학교로 전학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 든 세대들이 대개 그렇듯, 장인과 장모는 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외손자들에게 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먼 곳까지 보내면서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데에 회의적이었다. 베다나 산가이 중 어느 한 애만이라도 집에서 학교를 보내자고 오히려 나를 설득시키려 했다. 그런 그들에게 날로 현대화되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현대식 교육을 받게 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시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물건 구입하러 칼림퐁으로 가면서, 베다와 산가이를 함께 데리고 갔다. 찻차까지는 조랑말을 타고 가서, 그 곳에서 지프로 갈아탔다. 아이들에게 자동차 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찻차에서 팀푸까지는 자동차 길로 60 킬로미터가 되었는데, 자동차 길이라 해 보아야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다. 부모님과 왕축 형도 푸엔출링까지는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세라 펴를 화장한 재를 갠 지즈 강에 뿌리러 가던 길이었다. 아이들이 멀미로 고생을 톡톡히 했다. 하룻밤 노숙을 했던 논에서도 말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노숙했던 그 곳에는 지금은 드룩호텔이 들어서 있다. 칼림퐁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런 큰 도시에 처음 와 보는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진열된 많은 상품들을 보며 눈이 동그해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뿐인가, 거리를 오가는 자동차들,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생소한 힌두음악 소리, 그 모두가 아이들 눈에는 신기해 보이는 것 일색이었다. 티베트와 시킴에서 온 상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은 영화 구경이었다. 그들은 영화 속의 사람과 장소들이 실제로 무대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매우 의아해했다.

총리실에 근무하는 왕축 형이 베다와 산가이가 정부 장학금 혜택을 받고 다닐 학교들을 알아 봐 주었다. 그래서 베다는 성요셉 수녀원에 들어가고, 산가이는 닥터 그라함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다. 왕축 형은 1964년에 총리가 암살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형은 노브강으로 내려가, 같은 마을에 사는 펴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

나는 애들이 받은 장학금으로 그들에게 교복과 세면 도구를 사 주었다. 산가이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베다는 아가타 아주머니 하숙집에 살기로 했다. 그로부터 두 해 뒤인 1963년에 도르지 왕모와 체링 펴도 성필로메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베다와 같은 집에서 하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숙집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학생들이 너무 많아,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라 했다. 그래서 세카의 도움을 얻어 애들을 쿠르세웅에 있는 성 헬레네 수도원으로 전학시켰다. 그때 세라 펨의 막내딸 담채 템과 렌케이의 큰 딸 린첸 감도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 쿠르세웅은 부탄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다르제엘링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였다. 애들은 모두 학교 생활에 만족해했다. 학교가 좋은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학생들도 정원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베다는 하숙하던 집에서 나와 성요셉 수녀원 기숙생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다섯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양된을 낳은 뒤,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사리 성공한 임신이었다. 1963년 5월 11일에 다섯째 아이 산가이 초텐이 태어났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인도와 중국간에 국경 분쟁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부탄의 많은 젊은이들도 징집되어 팀푸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들이 먹을 식량은 인도에서 직접 공수되었다. 공수품들은 주로 쌀과 설탕, 식용유들을 담은 포대였는데, 간혹 떨어진 충격으로 터져 열리는 경우가 있었다. 수시로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것들에 맞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았다. 우리 부부는 그 공수품들이 떨어질 때마다 아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마음 졸이며 아무 일이 없기를 빌었다.

어느 날,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른 고개를 들어 보니,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귀한 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가게 안에서 있었다. 지그메 도르지 왕축 왕이었다. 너무 뜻밖이라 하마터면 안고 있던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지내요? 가게는 잘 되는가요?” 나는 그의 갑작스런 질문에 좀 더듬거리며 드중 근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타시초 드중 부근으로 상점들을 옮겨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다.

다음 날, 왕의 말대로 찬글링메탕 상점가의 모든 점포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철거를 했는데, 작업 속도가 매우 빨랐다. 사람들은 점포를 허물기 전에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 지역은 곧 군 주둔지로 바뀌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징병 연령의 장정들은 대부분 차출되어 신병 훈련을 받았고, 나와 같은 상인들도 낮에는 무기 다루는 기초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에야 군의 위탁을 받고 의류와 담배, 비누, 식료품 같은 것들을 팔 수 있었다. 전에 총을 쏘아 본 경험이 있는 나는 사격 훈련에서 단연 눈에 띄는 실력을 보였다. 하루는 사격 연습이 끝난 뒤에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높은 점수를 쏘서 일부 장교들을 무안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무렵에 나는 군량 창고를 담당하는 상인들이 군량을 상습적으로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소행을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확실히 경고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창고로 갔다. “분량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군인들이 정량만 배급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터인데. 왜 그런 짓을 하시오? 양이 줄어들면, 그 만큼 군인들이 배를 곯아야 하잖소. 가벼운 스톤으로 계량하지 말고, 표준킬로그램에 따라 제대로 해요.” 그들은 내가 뭐라 말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통명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터인데, 웬 상관이나 하는 조였다. 나는 아무래도 그대로 뒤서는 안 되겠다시피, 창고 관리 책임자로 있는 다소 창 창을 찾아갔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였다. 나는 그들의 비행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군량 창고를 타시초 드중 부근으로 옮겨, 내가 그 운영을 맡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그리하여 군량 창고 운영을 맡게 된 나는 그 일을 18 개월 동안 하면서, 거래 관계를 일일이 기록하고 군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 주었다.

나는 타시초 드중 근처에 아담한 건물을 짓고, 그 곳에 새로 가게를 냈다. 우리 가게 옆으로는 렌케이네 가게와 친구 린첸 체링과 주르미가 운영하는 가게들도 있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러 인도까지 함께 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돕기도 하며 의좋게 지냈다.

경제개발 일차계획에 착수한 정부는 농업 진흥 차원에서 사과나무 심기를 권장하고 있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과 묘목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나도 그 기회를 이용해 한 번 과수원을 가꾸어 보고 싶었다. 창 마을의 굽(촌장) 창제세에의 도움으로 홍소 부근에 놓고 있는 땅을 얻었다. 그 땅 한가운데에는 홍소 쿤리나라는 버려진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팀푸와 푸나카를 오가는 중앙교단의 스님들이 쉬다 가는 곳이었다. 스님들은 10월 말경 겨울 안거에 들어가기 위해 푸나카로 향하다가, 그 집에서 잠시 쉬며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예방 조치를 했다. 예방 조치라 해 봐야, 시골 여기저기에 흔하게 자라는 썩을 채취해서 그것을 달인 물을 쭉 마시면 모두 끝났다. 나는 그 땅에 사과나무 천 그루를 심을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팀푸에서 하루에 백 그루씩 포대에 싸서 홍소까지 짊어져 갔다. 그리고 밭에서 노역자처럼 일하다가, 해가 질 때쯤 팀푸로 돌아왔다. 천 그루의 묘목을 다 심을 때까지 그런 생활을 매일 되풀이했다. 일을 다 끝냈을 때, 나는 늘어나는 식솔들을 생각하며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 무렵, 아내는 임신중이었다. 나는 어느 날에 해는 떠오르며 밝게 빛나고 달은 이지러지며 사라지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그것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한 애만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예감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1964년 7월 4일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아기가 태어난 지 스무하루 만에 죽고 말았다. 아내는 너무나 짧은 생을 살다 간 그 아기가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일곱 살이 안 되어 죽은 아이는 조장시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나

는 그 관례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토바이 도르지와 함께 파조딩 뒷산인 데초 라리 산으로 향했다. 토바이 도르지는 과묵하고 근면한 노브강 사람으로, 당시 우리 집에 살며 타시초 드중 재건축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점심 보따리를 들고, 관을 진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초행길이었지만, 산꼭대기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무작정 올라갔다.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여기저기에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아마 그 곳이 장지인 듯싶었다. 내 아이도 이제 곧 저렇게 될 것이라 차마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캐 속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넓적 바위 위에 올려 놓았다. 밥과 차를 하늘을 향해 고수레하고, 아기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환생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윽고 머리 위로 독수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불현듯 젤라라 고개에서 데첸 움을 조장시켰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눈물이 자꾸 눈에 맺혀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흐리게 보였다.

우리는 거의 어두워질 무렵에 집에 닿았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아침에만 해도 아무 탈이 없던 아기가 그때는 생기가 없어 보였다. 이미 한 애의 죽음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던 아내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창 체세에가 우리 집 소식을 듣고는 부리나케 달려왔다. 그는 강직하면서도 유머와 인정이 많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는 친구였다. 그가 중앙교단에 있는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우리 집 일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점성술사는 아기의 병이 나을 때까지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카에게 지프를 빌려 자나에 잠시 가 있기로 했다. 자나는 팀푸 사마징카 위쪽에 자리한 조그마한 암자였다. 그 곳으로 가는 동안에도 아기의 상태는 계속 좋지가 못했다. 쌍둥이 동생이 죽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도 얼굴이 파리하고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기의 입 안으로 자꾸 숨을 불어넣었다. 자나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신당에서 제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좋은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림포체 법사 사당 바로 옆방을 쓰게 되었다. 뒷간 갈 때를 제외하고, 나는 아기를 안은 채 계속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아기의 숨이 고르지 못할 때마다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못했다. 형수가 위로차 우리를 찾아왔다. 다행히 아기는 서서히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암자에 들어간 지 스무하루 뒤에 다시 건강해진 아기를 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데첸출링에 거하고 있던 림포체 드중첸 스님을 찾아가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 드렸다. 그 스님은 아기에게 우젠 체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우젠은 림포체 우젠 법사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고, 체츄는 '생명 수호'라는 뜻이었다.

나는 편한 마음을 갖고 노브강으로 내려갔다. 이듬해에 처가에서 집을 지을 예정이어서, 나무들을 미리 베어 말려 놓아야 했다. 당시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벌목할 나무 수를 할당 받는 절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서 아무 나무나 골라 자르면 되었다. 나는 탈로 부근의 숲에서 목재들을 채취하고, 그 자리에 가지런히 쌓아 두었다.

그 이듬해인 1965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노브강으로 내려갔다. 마을 주민들이 처가 집짓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남자들은 주로 목공일을 하면서 잘게 쪼은 솔잎과 건초, 거름을 넣고 진흙을 다졌다. 그러면 아낙들이 노래를 부르며 벽에 진흙을 발랐다. 아내도 그들 틈에 끼어 노래를 선창했고, 장모는 일꾼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했다. 장인과 나는 공사 전체를 감독하면서, 이 일저 일 가리지 않고 닦치는대로 아무 일이나 했다. 밤이 이슬할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했다. 그런 노력 덕에 석 달 반 만에 멋있는 이층집이 완공되었다. 나는 다 지은 새집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 집은 부모님이 두 해 전까지 살던 노브강 집을 모델로 해서 지어졌다. 일층에는 침실과 작업장, 공간을 만들고, 위층에는 제단실과 방 두 개를 꾸렸다. 부엌은 밖에 따로 만들었다. 아래층 침실은 장인과 장모가 쓰고, 이층 방 한 개는 우리 식구 몫으로 남겨 놓았다.

1966년 6월에 우리의 여덟 번째 아이 톱가이가 태어났다. 위로 다섯 아이는 인도에서 기숙 학교를 다니느라 일 년 중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있었다. 유급받는 일이 없이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다.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는 겨울 방학을 무척 기다렸다. 애들도 마찬가지였다. 방학 내내 그들 곁에서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다. 나는 빌린 지프에 애들을 태워 틴레이 강으로 놀러 갔다. 그 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점심에는 장인이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오후에 애들을 장인과 함께 조랑말에 태워 노브강으로 보낸 뒤에 나는 팀푸로 올라왔다.

해마다 초쿠(진언제) 때에는 온 가족이 노브강 집에 모였다. 저는 중앙교단의 스님들이 와서 지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만도 이틀이 걸렸다. 울긋불긋하게 쌀에 색을 입히고, 음식이랑 등도 풍족히 준비했다. 그렇게 제물들이 모두 차려지면, 제례악 반주와 함께 스님들이 우리 가족의 무사 평안을 축원하는 진언을 독송했다. 의식 집전은 항상 틴레이 렌둑 제 스님이 해 주었다. 스님은 1961년에 63 대 종정직에서 물러난 뒤, 노브강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그는 노브강 사원을 건립한 사차 린첸 스님의 수제자로, 수행의 경지가 매우 높은 스님이었다. 장모는 틴레이 렌둑 제 스님을 자신의 라마로 섬겼고, 우리 애들도 그 스님에게서 기초 기도법을 배웠다. 애들은 그 스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애처로운 눈과 큰 코를 먼저 떠올렸다. 스님은 입멸하기 전에 우리 집의 초쿠제 집전을 চে왕 펴 드라비 로폰 스님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চে왕 펴 스님은 현재 드라비 로폰인 용텐 겐첸 스님에게 그의 입적 후에 그 일을 대신 맡아 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다.

초쿠제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애들도 무척 기다리는 행사였다. 모처럼 가족

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신나는 것은 자신들의 노래와 춤 솜씨를 여러 사람들 앞에 뽐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제에 항상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는데, 애들은 그들 앞에서 학교에서 배운 영어와 헌두 가요를 선보였다. 집집마다 모두 그런 제를 지냈다. 주민들은 제를 지낼 때마다 서로 이웃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우리 가족은 초쿠에 집에 내려가게 되면, 보통 두 주를 그 곳에서 지내다 올라왔다. 그 동안 맛있는 음식들도 실컷 먹고 가족들끼리 활쏘기도 했다. 것처럼 초쿠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좋은 풍습이었고, 그 전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5. 목재상

1968년에 팀푸에 새로운 상설 상점가가 조성되어, 우리는 그 곳으로 또 이사했다. 장사를 하는 지난 6년 동안 다섯 번을 이사하는 셈이었다. 우리는 첫째 열 첫째 코너를 뜻하는 1-1 호점을 분양받았는데, 남가이 옴과 합작으로 그 곳에 이층집을 지었다. 나는 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사를 감독했다, 그들이 틈만 나면 구석에 앉아 킬런을 피우며 노닥거렸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하느라 현장을 오래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집이 다 지어진 후, 우리 가족은 이층에 들고, 점포 용도로 지은 아래층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

나는 차체가 긴 인도제 마헨드라 지프 한 대를 공매에서 5,000 뉴트럼을 주고 구입했다. 차가 생기면서 일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산가이가 어느덧 열 여섯 살이 되었다. 그는 기특하게도 겨울 방학 동안에 팀푸에서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이답게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 혼자서 말 네 마리를 끌고 이웃 마을에 가 벼를 실어 오기도 하고, 타라 방앗간에 가서 벼를 탈곡해 오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다.

1969년에 막내 소남 초덴이 태어났다. 그때 베다는 열여덟 살이었다. 나는 큰애가 좀더 공부하기를 바랬지만, 장인과 장모는 과년한 손녀를 시집보내고 싶어했다.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신랑감이 있었다. 우젠 도르지라는 스물 네 살된 청년이었는데, 드종찰을 지낸 텐진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장래도 촉망되는 젊은이었다. “애들의 혼사는 우리가 나서서 거들어 주어야 하네.”라고 하며 그들은 확고한 뜻을 보였다. 그리하여 결국 장인과 장모의 뜻대로 베다를 우젠 도르지에게 시집보냈다. 사위는 기대와 같이 자신만만한 젊은이었다. 나는 그를 내 밑에 두고 사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렌케이와 동업으로 삼체의 백운암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리 집 애들과 조카들은 팀푸에서 쿠르세웅과 칼림퐁 학교들로 통학했다. 칼림퐁으로 가는 애들이 하루 앞서 출발하면, 그 다음 날은 쿠르세웅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떠났다. 애들이 쿠르세웅으로 막 떠나려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장인이 운명했다는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때 장모는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39년간 같이 살아 온 믿음직스러운 남편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에 애써 눈물을 감추며 담담한 태도를 보이려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노브강으로 떠나려 하고 있을 때, 장인이 이틀 전에 부친 식료품 보따리가 우리에게 배달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장인이 화덕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니마였다. 그는 처가에 살며 소를 치던 셀파인이었는데, 그 즉시 우리 집으로 달려가 나의 아버지

와 왕축 형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이 내 처가로 달려왔을 때 그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심장 마비였다. 우리가 노브강에 도착했을 때에 장인은 생전에 잠을 자던 방에 비단보에 덮힌 채 반듯이 누워 있었다. 아무도 지켜 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에 혼자 쓸쓸히 죽었다고 생각하니, 깊은 회한이 나를 짓눌렀다. 마지막 순간에 장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만 했는데, 우리는 그의 말년에 곁에 있지를 못했다.

그는 내 아내가 진정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애들에게는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였다. 나는 솔직히 장모보다 장인에게 더 친밀감을 느꼈다. 아마 같은 남자라는 데서 느껴지는 동지에 같은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장례는 집 앞 잔디밭에서 화장으로 치러졌다. 우리는 해마다 장인의 기일이 되면, 그를 기리어 기를 높이 달고 있다.

알קות은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생부가 딸을 만나러 오다 하아에서 객사했다. 그는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내 아내에게 맡기러 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 일주일 후에 또 그의 딸마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귀중품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 나는 아내의 친아버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1949년 말에 안간이 잠과 세카를 데리러 폐동에 갔다가, 그 곳에서 우연히 그를 보았다. 아내의 얼굴과 많이 닮아, 처음 보는 순간에 그가 아내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올렸다. 상상치도 못했던 나의 출현에 그는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곧 마음을 놓으면서, 투이지가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라 말했다. 그에게는 동생도 있었다. 예전에 네팔로 떠날 때에 그는 당시 열 살이었던 동생 쿠초 체추도 함께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쿠초 체추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43년에 고향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조카 내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뒤부터 그는 내 처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1970년대 초반은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팀푸가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주택과 사무실, 관공서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섰다. 중국계 사업가인 형이라는 사람이 팀푸 모티탕에 세울 예정인 관공서 단지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 일에 많은 양의 목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목들을 가공하기 위한 제재소를 직접 차렸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제재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재들을 지방이나 인도로 수출할 수도 있고 해서 사업 전망이 아주 밝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산림청으로 가서 제재소 면허를 신청했다. 당시 산림청이라 해 보아야, 맨땅에 노란 방수포로 지붕을 이고 울을 둘러친 것이 고작이었다. 렌케이와 단들이 하려 했던 그 사업에 유력 인사들까지 끼어들면서, 사업 준비가

더욱 활력을 얻게 되었다. 재정부 장관을 지낸 초갈 씨와 내무부 장관을 지낸 탐싱 자가르 씨, 그리고 드로니에르 텐툽이 우리와 동업자가 되었다. 우리는 통상 산업부로부터 10만 톤트럼을 지원받아 창 강변에 부지를 매입하고, 발전기로 가동되는 대형 제재톱 한 대를 사들여 일을 시작했다.

목재는 홍소 숲에서 채취했다. 침엽수 한 그루에 재질에 따라 5 내지 7 톤트럼의 벌목세가 부과되던 때였다. 원목들을 끌어 널 산길을 만들고, 열네 명의 인부들을 고용해 벌목 작업을 했다. 그런 어느 날, 인부 한 사람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현장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중에 일어난 과실 사고였지만, 정부에서 나온 팜 요에사르 감독관이 그 일로 나를 계속 성가시게 했다. 그 일은 결국 사망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기로 해서 일단락되었지만, 만일 동업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나를 가당찮이 감옥에 처넣었을 것이다.

목재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 도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했고, 또 주택 건축용 목재 채취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인도로 갔다. 트럭 몇 대에 청솔나무와 전나무,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참나무들을 싣고, 실리구리에 있는 한 힌두스탄 제재소를 찾았다. 그 곳 사람들은 재질이 우수한 부탄산 목재를 다르제엘링에서 나는 값싼 청솔나무와 똑같이 취급하려 했다. 벌수없이 입방 피트당 5 루피로 싣고 간 목재들을 팔았다. 그 간의 사업을 결산해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원목들을 끌어 널 길을 내는 데에 목돈이 나간 탓이었다. 우리는 그 후에도 얼마간 그 일을 계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업자들간에 화합이 잘 되지 않았다. 애쓰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제재소를 통상 산업부에 넘겨주고 동업 관계를 청산해 버렸다.

나는 혼자서라도 남부 지방에서 목재 사업을 계속 해 보고 싶었다. 지방에서는 운송비도 적게 들고, 노동력도 값싸게 얻을 수가 있었다. 그 무렵에 힝과 타시가 경영하던 계두에 있는 상록제재소가 문을 닫았다. 그 지역의 습한 날씨엔 목재를 오래 보관하기에 좋지 못했다. 나는 그들로부터 중고 기계톱 한 대를 사서, 푸엔출링 강변에 새 제재소를 차렸다. 재정부 장관의 형 킨라이 켈첸 씨가 부지를 얻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곳에 상록제재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 해가 1970년이였다. 환경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매장에 나오는 원목들을 구입하는 데에 적잖은 돈이 들었지만, 그 후 27 년간 나는 그 상호로 계속 영업을 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영리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 이름에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제재업이 잘 되면서 사업을 좀더 확장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는 마침 체링 왕디가 삼드롭 종카르 다이팜에 있는 그의 제재소를 팔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곳으로 서둘러 갔다. 그 제재소는 상록제재소의 것과 같은 종류의 제재톱과 집 한 채가 딸려 있었다. 매각 조건도 괜찮고 해서, 나는 통상 산업부로부터 대출을 얻어 그 제재소를 인수했다.

나는 산림 감시인을 동반해 다이팜 부근의 숲으로 들어가서 쓸 만한 나무들을 찾았다. 간혹 코끼리 무리를 만나면 그들을 피해 다녔고, 어느 날에는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검은 호수를 보기도 했다. 나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 속에서 둘레가 무려 15 피트가 넘는 목련들을 찾아 냈다. 나무 한 개를 자르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자른 원목들을 트럭으로 옮길 수가 없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내버려야 했다. 그것들은 지금도 그 곳에서 그냥 썩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대신 아루나찰 프라데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르니 오니에서 목재들을 채취했다.

나는 한 달씩 다이팜과 푸엔출링을 번갈아 오가며 제재소들을 운영했다. 거리가 꽤 되었던 두 지역을 시간에 맞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우기 때는 갑자기 불어오는 물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아쌌 지역에서 특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탄 지프가 기슭 홍수에 거의 잠길 뻔했다. 주민들은 집 안까지 물이 차 오르자, 모두 바나나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때 그 곳에서 사나흘 동안 발이 묶여 있었다. 그런 고생을 하며 열심히 일했는데도, 다이팜 제재소의 경영 상태가 좋지 못했다. 결국 개업한 지 두 해 만인 1972년에 그 제재소 문을 닫아야 했다. 그 곳에 있던 제재톱은 통상 산업부 장관인 남갈 왕축 왕자의 허락을 얻어 상록제재소로 옮겼다.

목재 판매에 관한 새 법규가 시행되었다. 수동 톱으로 자른 나무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조치였다. 가공용 목재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 나는 특정 개인들에게만 할당해 준 나무들을 그루당 50 톤트럼으로 사서 벌목했다. 으스스한 숲에서 일하다 보면, 자주 위험한 상황과 마주쳤다. 그런 곳에는 으레 들짐승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가까이 나타나면 나는 목동 시절에 익혔던 나무타기 실력을 발휘해 쩍썩하게 나무 위로 피신했다. 강도들을 만난 적도 있었다. 밤에 퓌수를 지날 때에 찾길에 커다란 나무토막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주위에 도적들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수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속력을 내야겠어! 자, 저쪽으로!” 그때, 숲에 매복해 있던 여섯 명 가량의 남자들이 뛰쳐나오며 내 파드미니 피아트 자동차를 향해 창들을 던졌다. 그 중 한 개가 차 문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총을 얼른 꺼내 세 발을 연거푸 발사하면서 그 곳을 벗어났다. 그 일이 있던 지 몇 일 뒤에 또 괴한들을 만났다. 이번에는 조라이 부근에서였다. 길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을 때, 갑자기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차 앞뒤로 나타나며 길을 가로막

았다. 마티가 그들을 피해 길 밖으로 차를 몰려 하자, 앞쪽에 있던 사람이 차로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뒷자석까지 쳐들어왔다. 그는 뜻밖에도 내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나는 위계양으로 몸이 좋지 못한 상태였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힘껏 그를 차문 밖으로 밀쳐 버렸다. 마티가 푸엔출링에 있는 hing의 집으로 차를 전속력으로 몰았다. 푸엔출링에 도착해서 hing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얘기하자.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 부서진 차를 그의 차고에 숨겨 놓았다. 몇 일 뒤, 나는 조라이에서 두 사람이 부탄제 차에 많이 다쳤다는 소문을 그 지역의 인도인들로부터 들었다.

푸엔출링이 겨울 휴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부모님도 겨울마다 그 곳에 들렀다가, 보드 가야로 순례를 떠났다. 그렇게 해마다 하는 순례 여행은 그들이 1961년에 세라 펴를 화장한 재를 갠지스 강에 뿌리러 갔다온 뒤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푸엔출링에 오면 남가이 움의 집에서 지냈는데, 나는 일을 끝내고 매일 저녁에 동생 집에 들렀다. 하루는 내가 갔을 때, 그들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문 뒤에 숨어 있다 나오다가 나를 보자, 좀 멧쩍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질문은 자주 돌아다니는 내 생활을 빗대어 하는 소리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가 걱정하는 말을 했다. “너는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어디를 가든 신들께 꼭 기도 드리거라. 그렇게 다니다가 네가 혹시 변고나 당하지 않을까 어미는 늘 걱정이 된다.”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어머니를 나무랐다. “또 공연한 걱정이네. 그런 일이 어디 쉽게 일어나는감.”

겨울에는 온 가족이 미그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했다. 우리 집 애들과 조카들은 방학 내내 즐겁게 지냈다. 그들은 뭉쳐 다니며 강에서 헤엄도 치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비상품 목재들을 켈카타로 팔 수 있게 되면서부터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 아버지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머리도 많이 희었다. 하지만 은백색 머리와 긴 턱수염이 그에게서 근엄한 이미지를 느끼게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자는 침대에 앉아, 옛시절을 떠올리며 자주 정담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바람피웠던 일들을 들추어내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이 모두 폭소를 터뜨리며 웃곤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의 회포를 얘기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인류가 달에 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나.”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 나라도 많이 발전했다. 그 모두가 현대 부탄의 아버지인 지그메 도르지 왕축 왕의 훌륭한 영도력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1972년 7월 15일에 국왕이 케냐의 나이로비 방문 중에 서거했다. 갑작스런 붕어 소식에 국민들은 모두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7월말에 국장 행렬이 팀푸에 이르렀다. 우리 가족은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로 나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지그메 신계 왕축 왕세자는 당시 열여섯 살이었다. 국민들은 젊은 왕이 국가의 운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들이 임명한 왕이라고 생각했다.

1972년은 나 개인으로도 위기의 해였다. 위궤양이 심해져 술과 양념된 음식을 멀리하고 있었는데도, 궤양성 염증과 위통 때문에 고생을 툭툭히 했다. 보다 못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결국 정확한 진단을 받으러 켈커타에 갔다. 남가이 옴 부부가 티볼리 궁에 살고 있어, 나는 그들과 함께 그 곳에서 몇 일을 지냈다. 그 건물에는 국영무역회사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매제 다우 펜조르가 켈커타 항을 통해 부탄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 곳에서 한 주를 보낼 무렵인 1973년 12월 22일에 아버지가 운명했다는 뜻밖의 전화를 아내로부터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어디 불편하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잠시 뒤 목을 만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심장 파비였다. 그는 향년 77 세로, 그 해 연초에 베다가 낳은 아들인 증손자를 보았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버지를 여윈 충격에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집 앞 잔디밭에서 화장시키기로 했다. 그의 성직 계위는 다칼라 트롤쿠였다. 뉴델리에서 성스티븐대학교에 다니던 산가이도 와서, 내가 불탑 모양으로 장작 쌓는 일을 도왔다. 다비식이 삼백 명의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틴레이 렌둑 제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우리는 그를 화장한 재를 푸나카 모추 강에 뿌렸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74년에 틴레이 렌둑 스님도 입적했다. 푸나카 드중 뜰에서 거행된 다비식에서 그의 육신은 모두 재가 되어 하늘로 훨훨 올라갔고, 수천 마리의 새들이 날아들어 그것들을 모두 쪼아먹었다. 우리는 그 새들이 스님을 천상으로 영접해 가려 나온 천인들의 현현이라 생각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냈고, 특히 스님을 자신의 람으로 섬겼던 장모의 감회는 남달랐다.

수도 팀푸는 1973년부터 그 이듬해 중순경까지 지그메 신계 왕축 왕의 성대한 대관식을 준비하느라 부산했다. 외국의 고위 사절들이 투숙할 호텔들이 신축되고 있었고, 대관을 축하하는 상징 모형들과 기장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국민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감으로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나는 당시 실업계 대표로 국민 의회에 3 년간 몸담게 되어, 대관식에 참석하는 특전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대관식이 마침내 1974년 6월 2일에 열렸다. 몇 일간 계속 흐리던 날씨도 화창하게 맑았다. 사람들은 맑은 날씨를 보며, 새 왕의 치하에서 우리 나라가 진보와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 우리 가족들도 예복으로 갈아입고, 역사적인 행사를 맞으러 거리로 나섰다. 창글링메탕에서 행진과 공연들을 구경했는데, 주변은 온통 화사한 분위기 일색이었다. 딸아이들도 몹시 감동된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성스티븐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산가이는 대관식에서 귀빈들을 안내하는 의전 장교 역을 맡았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외무부에 들어갔다.

1976년에 우리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옆집의 누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그 불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 가게 세 채도 다 탔다. 나는 그때 아내와 함께 푸엔출링에 있었기 때문에 산가이가 혼자 가게에 잠을 자고 있었다. 산가이가 불붙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불은 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기겁을 한 채 벌떡 일어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닦치는대로 밖으로 끄집어내다가, 결국 내의 바람으로 베란다를 통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왕도 내무재정부 장관을 대동해 화재 현장에 나와 있었다. 왕이 친히 현장까지 나온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걱정하겠다는 뜻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화재로 소중한 종교 유품과 보석들을 포함한 많은 가산들을 잃어야 했다. 소실된 것들 속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 온 가족 사진들도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이튿날에야 허둥지둥 현장에 달려왔다. 이미 잿더미가 되어 버린 곳에서 건져낼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다시 새건물을 지었다. 사람들이 화재를 겪은 뒤에는 번창한다고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런 말들이 재산을 거의 다 잃어 버린 참담한 내 마음을 달래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신계잡화점을 개업했는데,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해 나의 경제적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16. 행복의 궁전에서 의 국혼

부왕의 대통을 이은 지그메 신계 왕축 왕은 난국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잘 알고 있는 듯 오로지 나랏일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다. 국민들은 이제는 왕이 언제 화축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왕통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하루 속히 성혼하기를 바랐다. 그런 가운데, 1979년에 왕은 조출한 예식을 통해 나의 네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아시 도르지 왕모와 아시 체링 껌, 아시 체링 양뉘, 그리고 아시 산가이 초텐이었다. 혼례식에는 왕실과 우리 가족만이 참석했고, 그 사실은 한참 후에야 공표되었다.

내 딸들이 왕을 처음 본 것은 1969년 푸나카 연례 축제(돛초이)에서였다. 당시 왕세자 신분이던 그는 축제 참관차 푸나카 드종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보면, 푸나카 돛초이와 우리 집안이 인연이 꽤 깊은 것 같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본 곳도 1915년 그 축제였고, 나도 1949년에 아내와 그 축제를 구경하며 서로의 관계가 깊어졌다. 당시 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통에서 보통 닷새는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달려왔었다.

딸들은 왕궁에 들어간 지 한 해 뒤인 1980년에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 왕자와 치미 양쑤 공주를 낳았다. 나는 왕족 외손의 탄생에 가슴이 부들부들하고 그지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 뒷해에는 소남 데첸 공주와 데첸 양쑤 공주가 태어났고, 또 뒷해에는 케상 초텐 공주도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한 해를 건너뛰어 1984년에는 지겔 우젠 왕자가, 그 이듬해에는 캄쑤 신계 왕자, 또 이듬해에는 지그메 도르지 왕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또 93년과 94년에는 유켄마 초텐 공주와 우젠 지그메 왕자가 차례로 고고의 소리를 내었다.

왕비들은 1980년부터 85년까지 남가이출링에 살았다. 그 집은 내가 지은 삼층 저택으로, 지그메 도르지 레퍼럴 병원 너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들은 그 곳 생활에 매우 만족해했다. 이층 테라스는 햇볕도 잘 들고 전망이 좋아, 나는 외손들을 데리고 그 곳에 앉아 도시 정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하나같이 밝고 총명한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흐뭇했다. 딸들도 모두 어질고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우리 부부는 행복과 평화의 다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느꼈다. 모진 세파를 피해 갈 수는 없었지만, 슬픔이 건히고 기쁨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유수 같은 세월 속에 거침새 없이 나아가는 것이 생로병사의 법륜이었다. 어느덧 집안 어른들도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달갑지 않은 노환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1982년 초에 장모가 푸엔출링 베다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들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용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과 당혹감

에 빠졌다. 문병하러 왔던 어머니도 안사돈의 무력한 모습에 넋을 놓은 듯 할말을 잃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악화되던 병세가 후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건강하던 어머니가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채 창졸간에 돌아가고 말았다. 그날이 1982년 4월 1일이었다. 집 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듯한 인정과 온유한 마음씨를 가졌던 분이였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쉬이 떠나 보낼 수가 없었다. 잠시 명상에 잠긴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찌는 듯한 더위였지만, 당신이 덮던 담요로 어머니를 감쌌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안색도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맑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을 감은 지 닷새째 되던 날, 지진으로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말았다. 10년 전에 아버지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를 속히 노브강으로 옮겨 장사를 지내기로 결정하고, 시신을 비단으로 싸서 차로 옮겼다. 운구차와 유족들을 태운 차가 노브강에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 속에 주민들이 한길 가로 나와 노간주 나뭇잎을 태우며 우리를 맞았다. 그것은 고승이나 고관들에게나 하는 영접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옴하고 장작더미에 올려 놓자, 곧 화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머니 유해를 푸나카 강에 뿌리고, 유골은 차 차(진흙과 뼈가루를 섞어 만든 물건)로 만들어 신성한 갠지스 강에 넣었다.

장모를 푸엔출링에서 남가이출링으로 옮겼다.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어머니의 부음을 장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혹시 안사돈이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한 게냐? 요즘은 도통 들리지 않는구나.” 딸들이 외할머니의 간호를 주로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외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극진해진 것 같았다. 그들은 외할머니를 목욕시키고, 먹여 드리고, 휠체어에 태워 산책시켜 드리고 하며, 그녀의 간병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그들의 그런 정성과 환자의 강한 의지가 어우러져, 비록 한 때일망정 장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혼자서도 몇 발자국 걸음을 뚝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얼마나 바랬던 일이었던가!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그것에서 끝났다. 그녀가 여든 살의 노구인데다 가능한 모든 의학 치료도 받았지만, 그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번의 뇌졸중이 장모에게 찾아왔고, 그녀는 이번에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1982년 10월 12일에 영면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랬장으로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장사가 끝난 후, 나는 60년대 초에 사 두었던 푸나카 임야를 개간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 임야는 모추 강변에 있는 구릉 지대로, 강 건너편에 국왕의 휴양지인 소나가사가 있었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이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당시에 사유지가 아닌 땅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명의를 등록하고 약간의 세금만 내면 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사들인 땅

에 악령이 출몰한다는 좋지 못한 소문도 있고 해서, 그 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닌 듯했다. 그 땅에 집을 막 짓기 시작한 무렵에 근처 굴에서 하룻밤 잔 일이 있는데, 그날 밤에 나는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굴 주변에 얼씬거리는 것을 보았다. 부리 같은 긴 코에다 손 마디가 크고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는 좀 당황은 했으나, 길을 내기 위해 하던 암석 밭과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개운치 못해, 신통력이 있다는 티벳인 스님을 초청해 악령을 쫓는 의식을 치렀고,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한결 놓였다. 집은 두 해가 걸려 완성이 되었다. 나는 집 주변에 오랜지나무들을 심고, 예전에 할아버지가 지었던 집의 이름을 본떠 그 곳을 푼초 펠리라 이름지었다. 할아버지가 지은 푼초 펠리는 체링 펜조르 파로 펜롭에 의해 헐려 없어진 상태였다.

나는 그 곳에 잠시 살다가 그 집을 왕실에 기증했다. 그래서 왕실 가족들이 겨울마다 푼초 펠리를 찾아와서 온화한 날씨를 즐기다 돌아갔다. 나는 그 무렵에 푼초 펠리에서 2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폐가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땅을 또 샀다. 사람들은 폐허에 집을 지으면 불운이 생긴다고들 생각했지만, 나는 그런 미신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좀령탕 가까운 쪽에 있는 한 폐가가 리차의 재력가였던 춤의 집터인데, 그 집에는 벵골 지방의 위대한 성인 가기 린첸이 잠시 일꾼으로 일했던 역사가 깃들여 있었다. 나는 그런 유서 있는 곳을 얻게 되어 무척 기뻐고, 바로 그 터에 새집을 지었다.

옛날 15 세기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가기 린첸(일명 바나라트나)이라는 왕자가 살았다. 그는 푸나카 거북상에 간혀 있는 자신의 어머니 혼령을 현몽하고, 어머니의 혼을 풀어 드리고자 푸나카로 오게 되었다. 그 거북상은 푼초 펠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 자갈람(인도 성인의 바위)이라는 거석 바로 밑에 있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리차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춤의 집에 목동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날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어딘가로 조용히 떠났고, 어두워질 무렵에 푸나카 강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소가죽을 타고 강을 건너, 소나가사의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밤새껏 명상에 잠겼다. 리차 춤은 가기 린첸이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 이유를 궁금히 여겼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그의 뒤를 쫓아, 그가 굴 속에서 명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찮은 범부가 아니라 참다운 보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에게 먹다 남은 음식이나 주고 거름이나 치우게 했던 것을 몹시 후회했다. 가기 린첸 왕자는 결국에는 옥석 거북상을 두 쪽 내어, 그 안에 있던 개구리를 꺼내 죽임으로써 그의 어머니 혼을 풀어 드릴 수 있었다. 반으로 쪼개진 그 거북상은 도 자갈람 아래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재는 성지가 되어 소형 초르텐 세 개가 그 주위에 세워져 있다.

도 자갈람 옆에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예전에 나의 어머니가 인도

성지 순례를 하던 중에 보드 가야에서 보리수나무 묘목을 기도서 책갈피에 넣어 갖고 온 것을 그 곳에 심은 것이다. 어머니는 당시 푸엔출링에 도착해서도 책장 사이에 넣은 그 어린 나무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서 책을 펼쳐 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묘목은 말라 죽지 않은 채 살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화분에 심었다가 8 인치쯤 자랐을 때에 내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지금 그 곳에 심게 되었다. 그렇게 장소를 옮기며 심었는데도, 어린 나무가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로 잘 자랐다는 것이 놀랍다.

나는 푼초 켈리를 지을 당시에 도 자갈람에 절을 지으라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다사로운 햇살 아래에 도 자갈람 주변을 거닐며 간밤의 꿈에 관해 골똥히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 꿈이 내게 계시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지역은 성자 가기 린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절이 필요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 도 자갈람 드중 창건에 착수하게 되었다. 단단한 암반 위에 터를 정하고, 굴착과 발파를 하며 기반을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글동글한 진흙 덩이 두 개를 흙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들을 깨어 보니 그 안에 꿈틀거리는 하얀 벌레들이 있었다. 나는 강독에 흙집을 새로 만들어, 그것들을 그 곳으로 옮겨 놓았다. 절이 다 지어진 후, 제단에 체링마 신과 림포체 법사, 사브드룽, 착토 첸토, 그리고 가기 린첸 상들을 안치하고 터주인 찰츄의 형상도 만들었다. 69대 제 켄포 게두엔 린첸 스님이 낙성식을 열고, 마침내 산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오랜 전부터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쿠엔가출링과 상초에코르 드중을 복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체취가 많이 어려 있는 쿠엔가출링에는 그가 제작한 제단과 벽화, 상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체링 펜조르의 처가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쿠엔가출링은 두 차례의 화재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지어졌다. 화재가 관리인의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는 엄격한 문화재 보존관리법에 따라 드중을 재건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건된 쿠엔가출링은 예전에 자랑했던 그 위용은 온데간데없고, 외양간 같은 불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나는 매년 그 곳을 찾을 적마다 스님 한 사람 살지 않는 초라한 사찰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다.

쿠엔가출링의 소유주는 당시 체링 펜조르의 유족들이었다. 나는 그 집을 사기 위해 그들과의 교섭에 나섰다. 교섭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길었지만, 1988년에 조카딸 린시의 남편 지그미 틸레이의 주선으로 체링 펜조르의 딸을 만나서 그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매매 계약을 끝내면서, 나는 쿠엔가출링이 언젠가 다시 후손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했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그 일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되었다.

나는 곧 중창에 들어갔다.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려면 손볼 곳이 많았다. 별당은 이미 헐려 없어졌고, 낮은 지붕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그리

고 청소를 전혀 안 했는지 실내는 온통 먼지와 검댕투성이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계단 그늘에 있는 성상들은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쓴 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런데 본당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결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바닥과 창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얼룩들을 말끔히 지워 냈다. 나는 목수와 일꾼들을 불러들여, 썩고 있는 목재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지붕을 새로 이었다. 그리고 본당 건너편에 우리 부부가 살 바깥채를 널찍하게 지었다. 그리하여 공사가 일년 반 만에 다 마무리되었다.

나는 낙성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체링 펜조르 집안과 화평을 맺고자 하는 뜻으로 그의 미망인 아시 베다를 비롯한 일가들을 그 식에 초청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제정한 체링마 신에게 올리는 삼일제를 연례 의식으로 바꾸었는데, 형제들이 그 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때부터 해마다 지내는 삼일제는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고, 가족들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나는 쿠엔가출링에서 제를 지내면서 상초에코르 드종도 복원하리라는 결의를 다졌다. 그것은 쿠엔가출링 중창보다 규모가 더 큰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자본이 더 필요했다.

국왕의 공식 결혼식이 교계의 결정에 따라, 1988년 10월 31일에 푸나카 데첸 포드랑 드종(행복의 궁전)에서 거행되었다. 석가 탄신일인 그날은 석가모니 여래가 극락 세계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신들에게 아비달마(불전 삼장 중의 하나인 논장)을 설한 뒤에 속세로 돌아온 날이고, 또 식장인 푸나카 드종이 나의 네 딸이 왕을 처음 보았던 곳이기도 해서 더욱 뜻 깊은 예식이 되었다. 그 식에서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 왕자가 공식적으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나는 그날의 예식 장면들을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딸들은 아침 6시 30분에 푼초펠리를 떠났다. 그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다리에 이르렀을 때, 정계와 교계를 대표하는 고관과 고승들이 선도하는 칩드렐(전통기마 환영행렬)의 환영을 받으며 드종으로 안내되었다. 드종 입구에서 네 명의 신부는 준비된 물과 우유를 받아 마신 뒤, 딸로 들어섰다. 그들은 우체(본당) 뜰에서 포도주를 또 받아 마시고는 트루에술(신성한 공물)을 신전에 봉헌했다. 그런 뒤,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사당으로 들어가 사브드룽 마체이(미라) 앞에 배례했다. 그러자 텐진 텐둑 제 켄포 스님이 왕이 준비한 스카프들을 신부들의 목에 다섯 장씩 일일이 매어 주었는데, 그 장면에서 식의 엄숙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때 여덟 왕자도 왕비들과 함께 스카프를 받았다. 왕은 왕비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나란히 해서 데초그 라캉으로 들었다. 그들은 그 곳에서 덜고 켄체 림포체 스님으로부터 채왕(장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끝난 뒤에 왕과 왕비들이 자리에 앉자, 수그드렐 의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딸들이 트리다르(즉위 봉헌)를 받는 장면에서 복받치는 감격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저 모습을 조부모님과 부모님도 이

자리에서 같이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예식의 마지막 순서는 예물 증정식이었는데, 주위가 갑자기 예물 올리는 사람들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딜고 켄체 림포체 스님과 제 켄포 스님이 국왕 부처에게 예물을 올렸고, 이어 대왕대비와 대비, 우리 부부, 왕실 가족, 원로 스님, 조신, 18 개 지방의 대표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고승들이 차례로 저마다 준비한 예물들을 들고 단상에 올랐다. 장중하고 화사한 식은 그렇게 해서 모두 끝이 났다.

드중 안팎은 수많은 하객들로 넘실거렸다. 성대한 연회가 대비와 왕비들의 주최로 사흘간 열렸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잔치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 잔치에서 그 해로 결혼 37주년을 맞이하는 선왕과 아시 케상 대비의 타시 가소엘(왕 결혼식)도 함께 경축되었다. 국경사를 축하하는 각종 축제와 체육 행사들이 각지에서 펼쳐졌고, 전국의 도량마다 경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만 개의 버터등이 환히 밝혀졌다. 축하 사절로 참석한 외국 공관원과 특사들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종교인, 경제인, 그리고 장성들은 따로 마련된 특별 연회를 즐겼다.

산가이가 십여 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1989년에 귀국했다. 그는 외무부에 첫발을 들여놓은 1978년부터 84년까지 뉴욕 주재 부탄 공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유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했고,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 관한 많은 견식을 쌓았다. 그 사이에 두 아들도 태어났다. 그 후, 그는 뉴델리 주재 부탄 대사관으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잠시 일하다가, 쿠웨이트 주재 부탄 대사로 영전되었다. 부탄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 쿠웨이트 경제 발전 기금에서 장기 저리 차관을 유치하고, 양국 왕실이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왕은 1987년에 국가에 대한 그의 공로를 치하해서 그에게 빨간 스카프를 수여했다. 나는 내 아들이 영예의 그 빨간 스카프를 받았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레 여긴다. 귀국 후, 산가이는 통상산업부 장관직에 임명되었고, 1998년에는 하계 국회 76차 회기에서 비밀 투표로 행정부의 가장 큰 부서인 보건교육부 장관직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룬포 산계 느게둠은 1996년 3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장직을 역임했다.

나는 우리 가문에 깃드는 축복과 번영을 보면서 상초에코르 드종을 꼭 복원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아먹었다. 국혼이 끝난 뒤에 상초에코르를 찾았다.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토르마(제수)들을 상에 올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때 까마귀 두 마리가 근처에 날아왔는데, 까마귀의 출현은 신들이 제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초르텐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들이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슬그머니 떠오르는 상초에코르의 추억들을 쓸쓸히 더듬는 사이, 언뜻 잠이 들었는가 보았다. 나는 잠결에 상초에코르 드종을 다시 지으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그 소리

가 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드종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파로에 돌아오자마자, 렌케이에게 상초에코르 드종을 재건해 보자고 말했다. 동생은 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며서 재건 비용을 나와 똑같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상초에코르에서 태어난 그도 나만큼이나 그 곳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우리 형제는 한 주씩 번갈아서 공사 감독을 맡기로 하고, 매주 가파른 산길을 올라 건축 현장으로 갔다. 그렇게 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일은 이순을 넘긴 우리 두 사람에게 고행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계획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라, 돈을 주고도 일꾼들을 빌기가 힘들었다. 나는 정부에 도움을 청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초에코르 드종은 우리 나라의 마지막 텃이자 다르마 라자가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탐싱 자가르 종무 장관을 찾아가, 상초에코르 드종 복원 공사에 일손이 부족하니 정부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부탁했다. 그는 내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두 형제 분이 뜻 있는 일을 하느라 수고가 많군요. 상초에코르 드종 복원은 비단 한 가문의 숙원 사업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사적지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니,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도와 드려야지요. 궁다 올라(매년 가구당 15일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파로 전주민에게 드종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훈령을 내렸다. 목재 공급은 파로의 한 목재상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급되는 목재들이 대개 규격에 맞지 않아서 천장 외에는 달리 쓸 데가 없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파로 도부와 초에초체 비구니 사찰 부근의 숲으로 들어가, 직접 목재를 채취해야 했다. 별목한 나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해에 일정한 크기로 잘라 건조시켰다. 첸토 사람들은 힘도 세고 일도 잘 하기는 했지만, 젊은 남자들이 틈만 나면 진흙 바르는 아가씨들과 시시덕거리며 놀기를 좋아했다. 그런 행동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일을 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그런데 우체(본당) 골조 공사가 끝났을 때, 뜻하지 않게도 탐싱 자가르 장관이 사망했다. 그 바람에 인력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나는 종무실을 다시 찾아가서 릅진 도르지 종무 비서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했고, 그는 공사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60만 놀트럼까지 지원해 주었다.

본당 일층 중앙에 안치할 림포체 범사 상은 왕비들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상의 기본 골격은 처삼촌 쿠소 체추의 감독하에 카트만두에서 제작되었고, 머리와 손 같은 부분들은 우리 나라의 은 세공사들이 맡아서 손질을 했다. 타추 페마의 손자 제폰 왕축을 비롯한 몇몇 친척들도 상초에코르 드종 재건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다. 상 안에 중(경전, 보석, 유물 따위)들을 안치하는 일은 후에 70 대 제 켄포를 지낸 드라비 로폰 트룰쿠 지그메 초에드라 스님이 했다. 우

리 가족과 고락을 같이 했던 가보들은 림포체 법사 상 안에 다른 중들과 함께 봉안했고, 느가왕 남켈 사브드롱의 주먹 자국이 있는 돌과 그의 기도 염주는 특별히 법사의 상 동체에 안치했다. 그리고 그가 제작한 코롤 돔 소형상은 예세이 게옴포 상 안에 넣었다. 림포체 법사 상 바로 옆에는 담첸 수호신단을 마련했다.

본당 이층에는 느가왕 남켈 사브드롱 상을 안치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의 여섯 화신인 초글레이 상들을 나란히 모시고, 각각의 제단에 그들이 사용했던 제구들을 올려 놓았다.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보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 놓이게 되었다는 생각에 환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체링마 신당도 이층에 마련했다. 당대 유명 화가들이 그린 벽화들이 사방의 벽을 장식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그 벽화와 상들에 입힐 금의 상당량을 시주했다. 나는 상초에 코르 드종에 불교 학교를 개설했다. 하 루수카 출신의 린진 왕축 로폰 스님을 초대 교장으로 모시고, 개교 첫해에 25 명의 학생을 받아들였다. 현재는 학생수가 52 명에 이르고 있다.

상초에코르 드종 낙성식이 신성한 달인 4월 보름날(1991년 5월 28일)에 69대 제 켄포 계두엔 린첸 스님의 집전으로 열렸다. 국왕 부처와 왕자와 공주들도 낙성식에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식의 마지막 날인 사흘째날, 나는 과분하게도 왕으로부터 빨간 스카프를 받는 영예를 누렸다. 꿈에도 감히 생각치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그 전날 왕의 시종으로부터 빨간 스카프와 비단 고, 수제 장화, 그리고 검을 미리 받고, 다음 날 있을 서훈식에 그 복장을 하고 나오라는 명을 받았다. 국가를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없는 나로서는 그 같은 영예에 황공해 몸둘 바를 몰랐다. 이튿날, 서훈식이 림포체 법사 사당에서 열렸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나를 축하해 주려고 소망과 행운을 상징하는 하얀 비단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사당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 왕이 내리는 스카프를 받아 들면서, 그것이 드종과 신당들을 세운 공로를 치하해 담첸 수호신이 내게 내리는 축복이라 생각했다.

17. 영조가 날아드는 곳

우젠 채츨이 1988년에 형의 뒤를 이어 성스티븐대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잊게 하려고 사업을 가르쳤다. 나도 이제 사업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푸나카에 관광 호텔 짓는 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여기고, 그 일에 전념할 생각을 했다. 호텔 이름은 림포체 법사가 머물던 처소 이름을 본떠 장푹 펠리라 지었고, 건축 자금은 장기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장기 융자가 가능했던 것은 당국이 그리 길지 않은 관광 성수기에나 호텔 객실이 가득 찬다는 점을 감안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부탄의 관광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부는 단출히 줌링탕(리차) 집에 살고 있다. 논들 한가운데로 푸나카강이 흐르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줌링탕은 우리 같은 노부부가 말년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1991년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있다.

줌링탕에서 호텔 건축 현장인 율로카까지는 거리가 가까워 오가기가 편리했다. 그 곳에서도 잔잔히 흐르는 푸나카강이 내려다보인다. 율로카라는 지명은 15 세기에 살았던 성자 드룩과 쿠엔라이의 제자 율라 둠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당시 율라 둠은 스승에게서 배운 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다녔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그가 집에서 읊조리는 독송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도문이라 하는 것이 순 음란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생각에 그를 집 밖의 오두막에 따로 살게 했다. 그는 그 곳에서 스승에게서 배운 기도문을 마음껏 암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 들리던 그의 독송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그것을 궁금히 여긴 그의 아내와 딸이 오두막으로 가 보았다. 그런데 사람은 온데간데없이 없고, 그가 입던 옷만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수치를 아는 너희들은 그 곳에서 그냥 살거라. 수치를 모르는 나는 극락 세계로 가련다.” 성자 드룩과 쿠엔라이는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아(假我)에서 해탈하는 길이라 설교했던 인물로 유명했는데, 그는 그의 동생 느가왕 초에가이와 함께 부탄 서부 지방에 많은 문화적 족적들을 남겼다. 율로카 남쪽에 있는 치메 라캉이 느가왕 초에가이가 창건한 사찰로, 장모가 생전에 손녀들을 데리고 종종 찾곤 했던 절이다. 그 절은 드룩과 쿠엔라이가 만든 납근 목상과 그가 쓰던 활과 화살이 보존되고 있어, 특히 자식이 없는 부부들이 소원을 빌러 많이 찾는다.

나는 장푹 펠리 호텔을 짓기 두 해 전에 경영난에 처한 켈첸 펜조르가 경영하던 로베이사 목공소를 인수했다. 그 덕에 호텔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가구들

을 모두 그 곳에서 공급할 수 있어서 일 부담이 훨씬 덜어졌다. 터를 파는 데에 나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 주위의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런 일은 다 인부들에게 맡겨 두려 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또 현장 경험에서 얻는 그런 살아 있는 지식은 사업을 꾸려 나가는 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내가 그런 막일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 많이 걱정을 했다. 그들은 몸도 좋지 않고 나이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내게 자주 말했다. 그렇지만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것이 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이 느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형제들은 살이 쯤 내 모습을 보며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고 말을 한다.

첫삽을 뜬 지 일 년(1993년-1994년) 만에 아담한 드중 분위기의 장독 펠리 호텔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4층 본관을 축으로 해서, 그 양쪽으로 일곱 동의 별관과 각 별관마다 두 개의 부속실을 갖춘 호텔이었다. 훗날을 대비해 회의실을 추가로 지었다. 국내 최초의 시설인 호텔 수영장은 푸나카와 왕두에의 무더위를 식혀 줄 좋은 피서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1993년에 출산 여행을 떠나는 아시 산가이 초텐 왕비를 동행해 첫 외국 나들이를 했다. 그 이듬해에는 아시 체링 팸 왕비의 출산 여행 때에도 외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1995년에는 막내딸 소남까지 첫아들을 순산했다. 그로써 우리 부부는 슬하에 다섯 왕자와 다섯 공주를 포함해 모두 스물세 명의 손자를 두게 되었고, 최근에는 증손까지 보았다. 나는 그 해에 고희(부탄 나이로는 71 세)를 맞았다. 그 동안 일에 쫓겨 사느라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쉴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다. 잠시나마 세속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 왔던 명상 수행을 실천해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팡카르포 아래 한적한 곳에 있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수리해 들어가, 라마의 처방에 따라 새벽같이 일어나 오체투지와 명상 기도를 하다가 밤이 이슬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에는 짧게 들었다가 서서히 그 시간을 늘려갔다. 나는 그런 생활을 한 달간 하는 동안, 영적으로 많이 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쉽지만, 오월에 있는 몇몇 중요한 제사들 때문에 한 달 만에 출정했다. 상초에코르 드중에서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 스님과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 형의 기제들이 있고, 그 뒤에 쿠엔가출링에서는 체링마제가 있었다.

타시초 드중에 높이가 27 인치에 이르는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 금상이 있었다. 왕이 사브드룽 상을 탈로 드중의 마체이 라캉으로 이설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곳이 사브드룽의 3 대 정신의 화신 지그메 드락과 (1791-1830)와 5 대 정신의 화신 지그메 초예갈(1791-1830)의 미라들이 모셔져 있는 성소이니 만큼 그 같은 곳에 상을 안치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다. 일

가 친척들은 모두 왕의 사려 깊은 뜻에 크게 고무되어 이설 준비에 팔을 걷고 나섰다.

팀푸가 초겨울 문턱으로 들어서는 1995년 11월 23일 새벽에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룽 상이 마침내 탈로로 향했다. 황색 법의를 입은 게두엔 린첸 제 켄포 스님이 짧은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어둠이 깔린 드중 계단을 내려왔다. 이어서 제례악이 울려 퍼지고, 스님들이 일제히 상 호송대와 함께 산문을 나섰다. 제 켄포 스님을 비롯한 다수의 스님들은 동안거에 들어가기 위해 푸나카 드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예전 같으면 팀푸에서 탈로까지 족히 사흘은 걸릴 거리였겠지만, 찾길이 난 뒤로는 한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스님들은 도충라 고갯마루에서 따뜻한 국물과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제야 저 아래로 보이는 계곡들 사이로 해의 검붉은 귀퉁이가 쭉 내밀며, 몇 줄기 환한 햇살이 운무 위로 고개를 내민 설봉들을 내리비추었다. 한길을 따라 경배객들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상 호송대는 가다가 자주 멈춰 서야 했다.

우리 부부는 웬케이 부부와 함께 바일레이 다리 부근에서 호송대를 맞았다. 그 곳에서 우리는 겨울 안거를 지내러 가는 스님들과 헤어졌다. 나는 사브드룽 상을 가마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천막 안으로 들고, 경배객들을 위해 잠시 흰 보를 벗겨 놓았다. 그런 뒤에 장푹 펠리 호텔 로비에 임시로 마련한 좌대로 상을 옮겨 간략한 제를 지냈다. 밖에는 노간주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와 함께 그윽한 향내가 사방으로 퍼지고, 음식이나 꽃 같은 공물들을 든 정갈한 옷차림의 추모객들이 연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공물들을 제단에 올리면서 존경과 신앙의 표시로 한 쪽 무릎을 굽혀서 상의 발 아래에 절을 했다. 장중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상을 실은 가마가 탈로 드중 안으로 들어섰다. 64년 만의 귀향이었다. 나는 감격스러웠고, 사브드룽 외삼촌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내 머릿속을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탈로 지방의 최고령자인 아움 카감 옹도 눈시울을 붉히며 애환을 토로했다. “사브드룽이 드중을 거닐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저분이 돌아가실 때가 아마 내가 열여섯 살 때였지.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부탄력 1995년 10월 초사흘날(11월 26일)에 사브드룽의 64 주기를 맞아, 그의 상 제막식이 국왕 부처와 게두엔 린첸 스님, 그리고 많은 탈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체이 라캉에서 열렸다. 원근에 사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들었다. 사브드룽 존상이 국왕과 제 켄포 스님 사이의 성좌에 놓여 있었다. 스님들의 독송 소리와 함께 다소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 왕세자가 부왕의 몸과 마음과 말이 자손 만대에 걸쳐 영광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쿠송 툽텐(세 개의 상징 공물 - 상, 경전, 모형 초르텐)을 왕에게 올렸다. 이어서 제 켄포 스님과 고승, 관료, 그리고 사브드룽

의 후손들이 차례로 왕에게 예를 표하며 부엘와(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공물)를 바쳤다. 우리 가족은 하얀 비단 스카프를 올렸다. 그런 뜻 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모두 그의 덕분이었다. 그는 사브드롱 상에 스카프를 올렸고, 왕실 가족들은 초를 올렸다. 1990년에 왕이 사브드롱과 그의 화신들에게 내린 거대한 통드로엘(비단 아플리케) 휘장이 본당 담벼락에 걸린 채 필럭거렸다. 높은 삼나무 그들이 드리워진 뒤뜰 잔디밭에서 즐거운 잔치가 열렸다. 체추 축제 때처럼 사람들로 가득 찬 드종 안은 웃음꽃이 만발했다. 왕도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탈춤과 광대극, 민요 공연들이 펼쳐졌고, 아차라(광대)들이 익살스런 연기를 보일 때마다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루 종일 날씨가 쾌청했다. 대지는 햇살을 잔뜩 머금고 있고, 간간이 불어오는 솔바람은 왕이 머무는 천막을 사랑살랑 흔들었다. 저녁 햇살 아래 왕두에 유역에 펼쳐진 풍요로운 들판 풍경과 셀은가나와 광율강, 루에베사, 틴레이강 너머에 있는 형형색색의 고산 준봉들도 제 모습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러던 중에 독수리 다섯 마리가 마치 시범 비행이라도 하듯 드종 위를 세 바퀴 맴돌고 먼 산봉우리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모습이 가히 압권이라 할 만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때에 나타난 그 영조들은 모두에게 의미 심장한 흥분으로 다가왔다. 게두엔 린첸 스님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길조라 말했고, 주민들은 그 독수리들이 탈로 쿠엔투 잠의 수호신의 다섯 현신인 겹 쿠 느가라고 믿었다. 삼나무 그들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빙글빙글 돌며 타시 레바이 노래를 합창했다. 그것을 끝으로 그날의 축제가 모두 끝이 났다.

1419년에 지그메 신계 람에 의해 창건된 탈로 드종은 현재 왕의 지시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탈로를 잇는 자동차 도로가 개통되었고, 1997년 6월 2일에는 탈로와 노브강에 전기가 들어왔다. 탈로의 전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선들은 모두 지하에 매설되었다. 나는 점등식에서 스위치를 켜는 영예를 누렸다. 주민들은 광명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밤에서 낮으로 암흑에서 빛으로, 번영의 여명이 이곳에 있노라,”

18. 황금빛 노을

우리 집안은 부탄의 마지막 탭이자 다르마 라자인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의 후손이고, 보살로 추앙받는 사브드롱의 언어의 화신과 정신의 화신이 결합한 가문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형제들은 한때나마 장려한 상초에코르 드종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때때옷 입고 하인들이 날라 오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랐다. 나의 어머니 아시 도르지 옴은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롱의 누나이고, 큰형 지그메 텐진 초글레이는 예세이 느고드롭 초글레이의 화신이었다. 그런 배경을 갖은 우리 집안이 사회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편안하고 온정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고,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한 라마로 인정받았던 큰형이 종교와 철학에 정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할아버지의 그런 노력 덕분이었다.

내가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외삼촌 지그메 도르지 사브드롱이 암살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집과 문전 옥답을 다 빼앗긴 채 오랫동안 이국을 전전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고, 유랑 생활 끝에 고국에 돌아와서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야 했다. 경제적인 핍박과 불안감이 늘 우리를 따라다녔고, 가족들끼리도 불안에 떨며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있었다. 짓먹이 여동생을 켈렐라 고개에서 조장시킨 일, 람 형과 세라 뽀을 꽃다운 젊은 나이로 떠나 보내야 했던 일, 그 모두가 너무나 가슴 아픈 추억들이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용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던 할아버지의 기력과 람 형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과 신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나 역시 술한 풍파를 헤쳐 나아가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나는 내 인생 초기에 펼쳐진 그런 험난한 여정들이 예정된 운명이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을 품지 않는다. 저간에 내가 일구어 낸 성과들을 돌아보면 쉬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의 경제적 성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드종 복원과 종교 의식을 제정한 일들이다.

나는 부탄의 전통 사회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 태어나, 신구 문화가 어지러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았다. 그 시기는 한 마디로 변화의 시대였고, 그런 시대만큼이나 나 개인의 인생 역정도 파란 만장했다. 우마 장수에서 시작해서 잡화상과 목재상, 건축업자, 그리고 호텔 경영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영욕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경제적 기회들은 진취적 기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내 주위의 사업하는 동료들이 다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기회란 그것을 스스로 찾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생존과 진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과 행운이 뒤따라야 한다. 나는 운 좋게도 많은 기회들을 만났지만, 그만큼 쓰라린 좌절도 맛보았다. 능력과 결단력의 부족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 삶은 우리 나라와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출세 가도였다.

탈로 축제가 열리던 즐겁고 화창한 날, 나는 꽃망울을 막 터트릴 것 같은 아리따운 자태의 내 아내 투이지를 처음 보았다. 그때에 내 마음은 무척 설레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는 백년 가약의 화축을 밟혔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지금 어언 쉰 해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내는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였다. 내가 어려울 때에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준 내조자였고, 그녀의 현실 감각은 또 복잡 미묘한 삶 속에서 흐려질 수 있는 내 판단력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홉 자식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자식들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 덕에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가 정말 도타올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다. 1997년 4월에 외손자 톱계가 자식을 얻음으로써, 우리 부부는 증손까지 보았다. 정말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내 위로 2 대가 있었고, 아래로 3 대가 생겼으니 그럴 만도 하다.

30년 전에 푸나카에서 팀푸까지 가는 시간이면, 지금은 부탄에서 뉴욕을 갈 수 있다. 예전에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외국 여행에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구경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 보아도 내 조국 만한 곳은 없었다. 복잡한 바깥세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부탄과 내가 부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풍요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와 넉넉한 인심이 있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 국민의 생활 수준도 많이 나아졌다.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던 모습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지그메 신게 왕축 왕의 25년 치세 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 모두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왕의 지극한 애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그의 치적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딸들이 국운을 지배하는 성군의 아내들이라는 데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산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도 왕의 영도력 하에 계속해서 태평 성대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위를 이을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 왕세자가 국가와 국민을 잘 영도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부여받기를 바란다.

나는 신앙 생활을 통해 여러 고승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특히,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사로 1997년 4월 18일에 71 세를 일기로 입적한 69대 제 계두엔 린첸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 스님은 영광스럽게도 상초에코르 드종과 도 자갈람 라캉의 낙성식들을 집전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계세 자쿠(동굴 학자)라 부르곤 했는데, 호랑이 해에 파로의 탁창 동굴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의 열반은 1990년에 그가 중정에 오를 때 만큼이나 숭배와 신앙의 강한 모티브가 되었다. 그가 열반에 든 지 아흐레 동안 이나 팀푸 하늘에 밤낮으로 칠색 찬란한 무리가 섰다. 당시 푸나카 줌링탕에 있던 나도 딸들이 전화를 걸어와, 그 현상을 보았다. 나는 그 칠색 해무리를 보면서 40여 년 전에 람 형이 입적했을 당시에 보았던 현상이 떠올랐다. 계두엔 린첸 스님은 입정을 하듯 가부좌를 틀고 열반에 들었는데, 경이롭게도 아무런 방부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썩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님의 쿠둥(미라)을 친견하려는 참배객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다.

나는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추억 때문에 게으름과 사치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도 노구를 이끌고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브강 집은 베다에게 물려주었다. 그 애가 자신의 애정이 깃든 그 집에 살면서 초쿠(제사)를 지낼 것이라 믿는다. 그 애는 만팔답게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돌보고, 집안 일을 많이 거들었다. 일일 양식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소젖을 짜고, 수로에서 물 길어 오고, 빨감을 해 오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했다.

최근에 노브강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감나무 묘목 백 그루를 밭에 심었다. 멧돼지나 사슴, 곰 같은 들짐승들이 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꾼들을 빌어 밭 둘레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도 쳤다. 나는 구덩이를 파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어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밭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한낮이 좀 지난 시간이었다. 점심도 들고, 좀 쉬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참나무와 밤나무를 엮어 만든 단집 아래 그늘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다. 하얀 햇살 사이로 푸른 셀느가나 계곡과 높은 산들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였다. 땀을 식혀 주는 선들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옛날에 그 밭에서 장인과 함께 옥수수 씨를 뿌리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씨를 뿌린 후에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밤새껏 교대로 밭을 지켰다. 장인은 셀느가나 계곡 너머로 먼동이 터 오를 때까지 염주알을 세며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나는 움막에 앉아 지키다가 대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날이 새고 보면, 밭이 엉망이 되어 버리곤 했다. 장인이 여태 살아서 오늘 여기서 일하는 나를 보았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아내가 싸 준 빨간 도시락 보를 풀었다. 따끈한 온기가 남아 있는 뚜껑 사이로 밥과 고추, 카레 냄새가 풍겨 나왔다. 예전에도 이맘때쯤 이곳에 앉아 쉬고 있으면, 부엌 창문 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점심을 들고 외치는 장모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삼드롭, 알로에(젊은이), 얼른 와서 점심 들어요. 삼드롭! 알로에! 점심 준비 다 됐어요.” 그렇게 불렀다면, 그녀가 그때 기분이 좋다는 뜻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드롭 놈, 우겐 도르지” 라고 이름과 성을 다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장인이 내게 말을 했다. “점심이 차려졌나 보네. 어서 가서 먹자구.” 우리는 얼른 도랑으로 가서 손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난로가에 점심이 먹음직스레 거의 차려져 있었다. 나는 베다를, 그리고 장인은 산가이를 각각의 무릎에 앉혔다. 아내가 넘칠 듯이 담은 공기밥을 우리에게 건네고, 카레를 그릇에 부으며 말했다. “오늘, 옥수수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장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작업 계획을 다 세워 주었다. “오늘 중으로 다 끝낼 수 있을 테죠? 내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울타리를 손질해줘야요. 말뚝을 만들려고 인부 세 사람을 이미 빌어 댔어요.” 장인은 항상 장모에게 자상했다. “밤늦게까지라도 씨 뿌리고 쟁 가는 걸 다 끝내려고 해요. 달빛도 있고 하니,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버터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고, 한 모금을 산가이에게 남겨 주었다. 녀 달 뒤의 수확철에 속이 짹 찬 옥수수들이 영근 밭을 상상해 보며, 우리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참새들이 내 옆을 스치 듯이 확하고 지나갔다. 그들의 출현으로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어느 사이 해가 뉘엿뉘엿 탈로 쪽으로 기울어, 밭에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도시락을 찢던 보자기를 살포시 흔들고, 금빛 아지랑이들이 오후의 햇살 아래에 춤을 추듯 아른거렸다. 나는 그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좀더 누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이기문,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0

김영모 외, 『옛센스 영한사전』, 민중서림, 1992

Della Summers,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gman, 1992

JASCHKE, 『TIBETAN-ENGLISH DICTIONARY』, ROUTLEDGE & KEGAN PAUL, 1968

MACDONELL, 『SANSKRIT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